

MAXIM

SOUTH KOREA

트루블러드 시즌3의 Natasha Alam

ICON **우지원**

표절 왕국에 대한 임진모의 생각

여자 시선 훑치는 어깨 만들기

직장 상사 다루기

더 록 & 슈퍼맨

착한 글래머 **최은정**

So Hot 가비엔제이

연극 무대 위의 매력 김효진, 김정화

하나가 되고 싶은 에즈원

www.maximkorea.net AUGUST 2010

ISSN 2093-422X



부수공사가구
한국ABC가입

MAXIM은 발행부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고정적 부수인공사
구 ABC가 입증합니다.



MAXIM 구독구성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무정한 선물이 숨어있다.
SONY M3 / 최신형 스마트폰 / MAXIM 라일라 / 브라운랩스 의류 / 예술의전당 아
이스라엘 스타티켓 / 타이거 맥주 / 나베아 데오도란트 / 연인들 레드 데오도란트 / 데
히로 연극공연 티켓 / Cointre 아몽도어 의류 "뭐 더 필요하게 없소?"

MAXIM_더..

2010년 8월. MAXIM 한국판
iPhone App을



APPLE 앱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맥스' 또는 'MAXI' 으로 검색하세요.



MAXIM App받기

잡지의 미래다.



— 권 인트로이드 판에서도 MAXIM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간호 무료 다운로드 기간

MAXIM APP

2010. 8. 1~

2010. 8. 31

Features

AUGUST 2010

88

가비앤제이

그녀들을 귀중한 기억하지 마라. 이제 당신의 눈까지 닳는 어부가 되었다.

82

나타샤알람

당신은 오늘 밤 피와 땀으로 충만한 미드 (트루 블러드) 시즌 3을 다운로드하게 될 거다. 그녀의 스트립 댄스를 보기 위해.

96

ICON: 우지원

이젠 코트에서 황태자를 볼 수 없다. 한때 그의 소녀 팬이던 여자 에디터가 왔었다. "이런, 10살" 스튜디오에 그가 나타났다. 38세의 그는 20대 모습 그대로였다. 남자 에디터가 왔었다. "이런, 10살!"

88 ICON: 드웨인 존슨

세 치 혀로 상대를 제압하던 레슬링계의 제왕 '더 록' 이 영화 <디 아더 가이즈>에서 땀방 한 두 가슴을 털링거리는 슈퍼스타 경찰로 돌아왔다.

27

FITNESS

비루했던 지난 날은 지워라!! 트레이너 강이 수줍은 당신의 어깨를 활짝 핀 꽃처럼 퍼줄 모습을 전격 공개한다.

47

GIRL NEXT DOOR

구두가 잘 어울리는 허다리를 가진 독자 모델 김신애의 매력에 빠져보자.

66 DRINK

남자라면 모름지기 이열치열의 모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우두먼 여들을 우주로 날려버릴 화끈한 밀도 소주를 한자리 에 모았다.

100 MAXIM BUSINESS

스마트한 직장인이 쓰는 스마트한 폰이 궁금한가? 지랄 같은 상사가 득실한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이 궁금한가? MAXIMI 알려주겠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MAXIME도 필멸 테니까!

104 명장의 조건

명장이 되려면 창의력과 순발력만 갖추면 된다. 어때? 쉽고 간단하지?





FX 채널 친구
신청하기

FX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채널이다.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 channel  SCREEN  FOXtv  CIN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Departments



85 IN DA CLUB

클럽 mASS에서 열린 MAXIM 파티에 색시한 붉은 악마들이 몰려왔다.

112 착한 글래머 최은정

이 작고(크고) 귀여운(섹시한) 그녀가(숨) 당신의 사선을 빼앗는다.

118 STYLE

보여주고 싶은 언더웨어와 티셔츠 눈앞이 자유로워지는 선글라스 스타일 전문가가 직접 골라주는 옷

126 GROOMING

겨드랑이 탈색을 막아버릴 테이도란트

128 MAXIM INDIA

MAXIM 인도판의 패션 화보를 꿈꿔왔다. 고풍의 화보에선 키레 향이 나지 않았다. 아심친 향았다. 다만 인도 아가씨의 화보가 아니라서 조금 분노했을 뿐.

8 MAXIM INSIDE

본격 MAXIM 커툰 (보리의 마음) 제3탄!
작가/ 굿나이스트
주연/ 메인저의 노예가 된 MAXIM 편집부

12 CIRCUS MAXIMUS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개구리 비빔 돼지야 사랑해. 교통정리 안 되는 사랑 이야기. 개나 소나 시인. 손자가 상악설을 주장한 심리적 배경. 죽이는 버섯. 변명거리 자동 제조기. BEAT THIS CAPTION

35 RATED

비운의 걸 그룹 '오소녀' 의 에스카 지나. 제이무리 원반이라도 굳대 다녀오면 (아저씨). 댄스영화계의 기린아 (스텝업) 3D와 기타 최신 영화. 영화 속 무늬야 열린.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목소리 예즈원. 발라드 아이돌 영진. 영화배우 김효진과 김정화의 소극장 나들이 <풀 프 러브>. 화끈한 춤비 역전 게임의 대명사 (데드라이징 2). 개념 웹툰 작가 임민스의 개념 탑재 인터뷰. 8월이 불 만한 춤비 소설

48 STUFF

질러야 할 이달의 아이템. 멋진 운동화와 운동을 위한 아머론 충진. 팬케이크에 미친 슈퍼맨. 디카 좀 어디까지 땡겨봤니? 남자의 로망 제단 레고! MAXIM의 업무용 차로 선정되기 위한 마티즈와 모닝의 한판 대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객대별 국내 시판 자동차 총망라 리스트 업데이트 버전해 해. 남자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 타고 싶은 페라리 가문의 적자 468 이탈리아

68 SPORTS

MAXIM 스포츠 뉴스. 포항 스틸러스 전격 방문기. 2010 남아공 월드컵 완벽 정리. 마패의 구장 쿠어 스피드를 정복한 투수들



126



85



112



118



128



2010 아이스발레 Ice Ballet

전 세계가 사랑한
‘동화속 환상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동화 속 환상의 세계를 보는 듯한 화려한 무대 세트와 의상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선율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도심속으로 떠나는 문화 바캉스 - 조선일보 - 여타 아이스 쇼와는 차별된 공연 - 중앙일보 -

신데렐라 8.5(목)-8(일) | 잠자는 숲속의 공주 8.10(화)-11(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주최 서울예술기획(주) 협찬 LIG 손해보험 안솔교육 (주) 농부 후원 다이아텍코리아(주) 문의 02)548-4480
가격 R석 9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VIP한정판매 120,000원 공연시간 화~금 오후3시, 7시30분 | 토, 일 오후2시, 6시
예매 YES24.COM 1544-6399 SAC*Ticket 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서울예술기획 02)548-4480

MAXIM

South Korea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예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혜진 / 이사 소상혁

FEATURE EDITORIAL Team

EDITOR

김민혜 ny@maximkorea.net, 김상현 psycho@maximkorea.net
김희성 alicia@maximkorea.net, 박상우 daytime@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이영미 yb@maximkorea.net
임기환 soccerholi@maximkorea.net

FASHION EDITORIAL Team

EDITOR

고경희 kko@maximkorea.net, 권해진 jin@maximkorea.net,
조정민 jj@maximkorea.net

EDITORIAL DESIGN Team

DESIGNER

정미연 Berryee@maximkorea.net, 장성민 ssung_ma@maximkorea.net
정지원 doldo@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혁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김진숙 14@maximkorea.net,
박현민 maxmin@maximkorea.net, 홍효희 hohyohi@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진우민 wubin@maximkorea.net
FINANCE PLANNING Manager 최민정 jw@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민 sm@maximkorea.net
MARKETING PLANNING Manager 김경숙 k@maximkorea.net

고객 센터 kshin0111@daum.net

WEB SERVICE 도플 / IT Director 서정민 sreis@town.com

PHOTOGRAPHY ARC STUDIO

FILM MAKING jin Wook

FINANCIAL CONSULTANT

승강회계법인 / Accountant 김홍락 Consultant 김희영

인쇄 · 원색분쇄 / 인쇄인 유성근 ㈜삼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10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주)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
TEL. 02-323-1182 / FAX. 02-6455-0563 / 2010년 9월호 통권 제1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 00066
본지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 및 심신양성을 준수합니다.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4 구독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yimkorea.net, www.maximkorea.net

MAXIM (South Korea)는 세계 30개국 편집에서 발행되고 50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품의 소유자인 미국의 엘미미디어 그룹은 2009년 12월 29일부로,
대한민국의 PN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PN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
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급, 판매하고 행사/이벤트/오리엔트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엘미미디어 그룹과 와이미디어 50에 가까운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엘미미디어 그룹에 귀속되며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0)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E MANGIONE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Panama
- CHINA** United States, Hong Kong, Taiwan, Singapore, Malaysia, Australia, Canada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yr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SLOVENIA**
- ROMAN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VENEZUELA**
- MEXICO**
- PUERTO RICO**
- COLUMBIA**
- CHILE**
- ECUADOR**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 PHILIPPINES**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maximkorea.net

MAXIM은 잡지의 미래다 #2

종이 잡지의 **변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읽자.



1. 책에서는 볼 수 없던 동영상을 감상하고 싶다면?
 2. 뽕뽕 터지는 선물 보따리를 받고 싶다면?
 3. 에디터가 소장한 미공개 사진을 보고 싶다면?
 4. 기사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5. 재미있는 기사를 쓴 에디터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QR 코드에 갖다 대라!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실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

- SONI MF3
- 최상범의 소프트
- MAXIM 과월호
- 스타리트 패션 브랜드 E-FORMFEATH 의류
- 상도퍼트리부르크 국립 아이스 빌레단 내한공연 5석 티켓
- 타자기 맥주
- Columbia 아웃도어 의류
- 나베아 데오도란트
- T-2 DRY UNDERARM PADS 데오도란트 by 500-600
- 대학로 연극공연 티켓

"뭐 더 필요하지 않아요?"



1. 아이폰 앱스토어나 T-스토어에서 '쿠루쿠루' 앱(App)을 무료로 다운로드한다.



3. 책에 나온 QR 코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코드를 인식한다.



2. 앱을 실행한 후 'QR 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구동된다.



4. QR 코드 속의 MAXIM을 만날 수 있다.

MAXIM INSIDE

MAXIM은 패션지가 아니다. 그렇기에 MAXIM에는 하이패션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정감이나 압박 따윈 없다. MAXIM은 세상 모든 즐거운 일을 다루는 책이다. 야구, 게임, 섹스, 자동차, 여자, 심덕후의 취향. 그 어떤 것이라도 남자가 좋아하는 거라면 워든지 소재가 된다. MAXIM의 패션도 같은 맥락 위에 서 있다. MAXIM이 패션을 다루는 건 패션이 흥미진진한 유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선까 많은 이들에게 패션이란 스트레스이자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끼며 하고, 가질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끼며 한다. 그레아인 가질 수 있는 자가 우울감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유희의 대상이어야 할 패션이 무한 경쟁의 대립 수습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MAXIM은 분명 좋은 참고서는 아니다. 좋은 참고서란 철저히 시험 대비용이어야 하고, 유명 족집게 강사들이 등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두꺼워야 하기 때문이다. MAXIM은 일단 두께에서 틀려먹었다. 하지만 MAXIM은 참고서 따위까가 아니다. 다들 참고서를 보라고 할 때 책상 밑에 숨겨놓고 리라리때 버는 민화책이다.

얼마 전 MAXIM 하반기 공채에 지원한 패션 에디터 지망생들을 만났다. 어설피게 패션계에서 주위들은 정제불명의 외제어보다도 필자를 더 안타깝게 만들었던 건 더 이상 패션을 '즐길' 수 없게 되어버린 듯(?)? 어린 눈빛들이었다. 우린 조금 더 패션을 즐기자. 앞으로도 MAXIM에 무시무시한 100만 원 짜리 지갑 같은 건 소개하지 않을 거다. 100만 원 짜리 지갑을 더 눈속보다 맛스럽게 차려주고, 100만 원은 지갑 안에 현금으로 남아있게 해주겠다.

그게 MAXIM FASHION의 존재 이유이다.

2010년 8월, MAXIM 패션 에디터 고경희



MAXIM CARTOON BY 굼스니스트



WANTED



새벽까지 진행된 촬영에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가비엔제이! 고생한 만큼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었다!



촬영 내내 유쾌했던 예스텔! 늘려달라는 약속 있지만



다리 예쁜 독자 모델 김신애!

참치! 작은 글씨에 최은정은 심지어 귀엽기까지!



멋진 형님 유희림의 작은 얼굴은 손신애 모델이 여자 스타트를 알리미로 만들었다. 몸짱남이라 다들 좋아해서 그리고 신인 수컷 그룹 영근! 반가웠다. 향유를 반대

스타의 사인이 들어간 플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럼 다음 이션을 수행해라!

1. MAXIM 8월호를 구매한다.
2. 가장 재미있었던 기사를 3개를 고른다.
3. 자신의 블로그(메이플에 MAXIM 8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4. [블로그 주소,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을 적은 메일을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낸다.

당첨자는 MAXIM 9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당첨자는 제 이La에 대한 사연이 차고 넘친다는 걸 블로그의 글로 증명 한 이연우 독자다. 축하한다. 좋겠다. 컷.



우리 그냥 결혼 할래요!

너와 함께라면

BY KOKI MITANI



카드출고
타켓 받기

Event

바캉스티켓 30% / 2030 레이디티켓 19,900원 (2030 여성 3인 이상 예매 시)

*회당 40매 한정, 인터넷 예매 시

2010.7.23(금) OPEN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1관

작가 미타니 코우키(드라마) 번역 김태희 연출 이혜제 출연 송영창, 서한철, 추귀정, 박준서, 조지환, 이세은, 김유영, 최창현
 문의 02)766-6007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예스티켓 1544-0113 [연극보통인 www.thebespy.co.kr](http://www.thebespy.co.kr)
 제작 제작지원 인터파크 INT PARCO 협찬 KB 국민은행

평일 8시 / 토요일 오후 3시 6시 (월 공연 없음)



여름이다. MAXIM 편집부는 8월호 작업을 마치고 태양이 직격하는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망했다. 인쇄소에서 걸려오는 8월호 집지 데이터 독촉 전화 세례와 함께 눈치도 없이 정마가 와버렸다. 독자님의 여름은 어떤신가? 살안한가?

MAXIM을 그만 보라니!

같이 일하는 형은 내가 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MAXIM 좀 그만 보라고 핀잔을 준다.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MAXIM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건가? -Ysw15

여자 이야기를 어떻게 했기에 그 형이 MAXIM을 닦하는 건가? 그 얘기를 우리도 좀 들어보라. 억울해서 안 되겠다. 최대한 자세하게 써서 메일로 보내라. 기다리고 있었다.

공휴일이 무서워요

더위를 피해 집 근처 예술의 전당에 왔어요. 폭죽 췌는 찜통 하우스에 들어가기 두려워 예술의 전당 앞 카페에서 앉아 MAXIM을 보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무서워요.ㅠㅠ 시원한 회사가 더 좋아요. -Oklehdkjd

회사를 좋아한다고? 거기다 공휴일을 무서워한다면 당신은 MAXIM이 메타게 찾던 인재임이 틀림없

다. MAXIM 사무실은 24시간 에어컨이 나오고 포근한 인조 잔디밭도 있어 시원하게 일 수 있다. 사무실이 훑대 앞이라 클림에 놀러 오는 여자들을 관람(관할 수도 있으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단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며칠 묵은 땀 스펀지 열 지리 직원에게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포근한 인조 잔디밭은 마당에 썬 시체들이 항상 널브러져 있다(에도를...)). 마지막으로 MAXIM은 당신이 무서워하는 공휴일 개념 따윈 잊은 지 오래다. 차내 여기서 근무해 보는 게 어떨까?

개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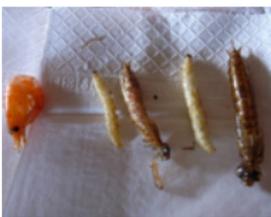
비도 오고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역시 개필자가 상팔자다. 일이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똥글똥글 에어컨 틀고 MAXIM 보는 게 최고 카야! -Skova
약속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너무 애써 당신 팔자가 상팔자라고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 눈물이 앞을 가린다.

Twisted Cook 1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호 'Twisted cook' 에서 무게감 메뉴를 소개했다. 고맙다. 영양 성분은 보아하니 저 멀리 중국인들과 태국 마나이들이 광분할 정도의 고급 디저트일에는 틀림없겠지만 안 타깝게도 우린 아직 이런 요리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의 무명정수가 MAXIM의 소망"이라는 고급멘트를 날려주신 레시피 담당 에디터의 다음호 시식평을 사진과 함께 보고 싶다! 매년 독특한 레시피로 다이어트 중인 본인의 식욕을 감소시켜준 점, 무지 감사하다. 다음호에 꼭 에디터의 행복이 가득한 시식평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다. -nemosun
일겠다. 어려운 부탁이 아니다. 담당은 MAXIM 편집부 막내 에디터(실지어 귀여운 여자 에디터).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짓 거 먹이도록 하겠다. MAXIM은 직원보다 독자를 사랑하니까. 그녀가 토막질을 하다가 쇼크시하면 사산처리는 같이 해 주리라 믿는다. 후일 에디터는 아래의 독자시연을 보내 준 Bug Eater님이 맡아줄 것 같다.

Twisted Cook 2

7월호에 실린 벌레 빙수를 보고, 저도 최고의 벌레 요리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 메일을 보내요. 아프리카 모 부족은 송충이를 잡아먹는다는 글을 읽고 저도 도전해봤답니다. 요리법은 간단해요. 살아있는 송충이를 잡아 나뭇잎으로 싸 다음 라이터불로 10~20초 정도 구우면 돼요. 좀 더 위생적인 요리를 원한다면 나무젓가락으로 송충이를 깨끗한 물에 헹궈준 다음 구우면 됩니다. 구우면 칭그러운 털도 녹아 송충이가 한껏 뽀송뽀송해집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터져 나오는 잔액은 새로운 맛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절리를 씹는 것과 같아요. 열중 위기의 우리 소나무도 구하고, 소나무 먹고 지란 찹빙 음식도 즐기고, 일식이조 아니겠어요? -Bug Eater
구체적인 시식평 감사하다. "Twisted cook" 담당 에디터가 당신 덕분에 웃음을 더했답니다. 이번 호 Twisted cook은 개구리 햄버거다. 당신 혹시 개구리 햄버거는 먹어본 적 없나? 있다면 이번처럼 구체적인 시식평을 위 nemosun 독자 에게 보내주려. 돌이 연결해 주겠다. 사진을 함께 보내면 더 좋단다.





에서 고화질 화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회사를 설득하겠다. 나를 믿고 우선 그 컴퓨터 좀 치워라.

핸드폰으로 MAXIM을?

안녕하세요. 6번지 군인입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제 후임이 핸드폰으로도 MAXIM을 볼 수 있다고 하여 핸드폰 하나 질러서 쓰고 있습니다. 할 부감 때문에 등골은 취지만 이런 방법으로 MAXIM을 읽다니 기분이 좋네요. 우편보다 훨씬 편하게 독자편지도 보내고, 우리 군인들, MAXIM 덕분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군버리 내용도 더 많이 넣어주시고요! -heold

QR코드를 말하는 것 같군. 그렇다. MAXIM도 기술혁신 하느라 골머리 많이 썼고 있다.

보아하니 스마트폰을 산 것 같은데 골 어플도 나오니 풀버전도 즐겁감하길. 그런데 영내 휴대폰 소지 권합니다? 스마트하게 잘 숙려라. 이거 '행복한 감지 App' 같은 거 MAXIM에서 개발하면 잘 팔리려나?

동고

저말게나도 귀여운 큐티걸로 보이게 하는 마법의 술집 '동고' 사연을 보냈던 독자요. MAXIM의 한 여자 에디터가 '동고'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다고요? 음, MAXIM에도 저말게 닮은 에디터가 있는 모양이구려. 이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외모보다 실력인오 에디터를 채용하는 MAXIM은 역시 좋은 회사요! 그 에디터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인가오. 그런데 내가 말한 '동고' 라는 술집은 경남권인데 관청겠소? 시간되면 한번 오라고 전해주시요. 외모를 레이드제인오 바꿀 순 없겠지만 이 술집에 들어가면 지갑보다는 50만 배 사랑해줄 거요. 다만 그 변화는 '동고' 안에서만 유효하오. 이점 명심하오! -헛헛
이만하되만 MAXIM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외모를 보고 뽑는 훌륭한 회사다. '동고'를 물어본 에디터 뿐 아니라 MAXIM의 여직원들의 미모는 상당하다. 못 믿으면 통닭 4마리를 사들고 MAXIM을 방문하오 좋다. 참, 그 여자 에디터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경남 출신이요. 잡소리 치우고 빨리 '동고'의 주소를 불러달라요!"

경상남도 산청군.



싱크로를 100% 당첨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 독자인데요. 얼마 전부터 MAXIM을 즐겨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MAXIM 지난호에서 저랑 싱크로율이 엄청 딱 떨어지는 가슴 사진을 찾아냈어요. 언제 저 가슴을 언제 골래 찍어간 거죠? 책임지세요. -WCMA
가까이 책임지겠다. 걱정 붙들어 매라. 그 사진은 미국 MAXIM에서 보내온 기승인데 만리타국 한만 도에서 가슴의 주인을 찾았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일단 독자사연 선물부터 보내겠다. 선물을 수령해 둘 댈이킬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하길 바란다.



WANTED!

WANTED!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개성 만점의 스트리트 브랜드 브랜드 BROWNBREATH가 제공하는 티셔츠 또는 모자를 선물로 증정한다. (사진과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장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라. 채택되었을 때. 선물이 몇 개에 더해? 매월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1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당신 면상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연을 보내려 수업 중 선생님에게 보낸 것이 딱 하나 MAXIM을 책상에 올려놓은 학생용지 한 손으로 촬영해 매달려서 사진을 한 손으로는 MAXIM을 보는 익스트림 근육질의 독자 등 선정은 독할수록 좋다. 사진을 올려 발송소나 홈페이지(주소:) 사진 내용,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내드. 선물을 지킬 수 있다.

하이슬를 막시무스 당첨

안녕하시오. 우리는 MAXIM을 애독하고 있는 두 고 3 학생이요. 고된 수험 생활을 MAXIM과 함께 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오. 이 순간에도 MAXIM을 애독하고 있을 전국'의 모든 고3 동지들 위해 우리 사연을 게시해 주시오! '잘 때, 빨래 걸 때, 낮잠을 즐길 때에도 MAXIM'이라는 주제의 사연이요. -막시무스 인더 하이슬클-

이보게 청년. 날도 더운데 선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무진 애썼군. 그래, MAXIM을 사랑해주는 건 고맙지만 당신이 소망한 MAXIM 증편 다른 업체가 무던으로 만든 짝꿍 MAXIM도 섞여 있어 안타깝다네. 뉴욕에 계신 MAXIM 보스(ital리아계 미국인)이라 파미파가 아날까 두렵네만가가 그 업체 땀에 분가정천 하셨다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MAXIM사량이 가락하오. 그래, 수승이 100일 남았으니 조금만 더 참내가나.

제이 편

제이의 사진이 아니면 죽음을 달래 내 아이디어를 보라 벌써부터 제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게 보이지 않겠나? -luxurystyle8318
우리로 제이를 사랑한다. 그레도 화보도 찍지 않아요. 칼을 내려놓고 원하는 걸 얘기해라. 개근소장용 고화질 사진 파일을 원한다는 얘긴가? 알겠다. 당신을 위해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HARD-BOILED FROG BIC MAC

하드보일드 개구리 빅맥

BY 김광성 PHOTOGRAPH BY ARC STUDIO

예로부터 거울잠 자는 개구리는 영양가가 높아 양기가 약한 남성의 강장제로 여겨졌다. 정력 고갈로 인한 성욕 감퇴, 극심한 피로에도 백약이 무효한 당신이라면 일단 한번 먹어보라. 아침마다 버섯 먹은 슈퍼마리오처럼 솟구치는 육버섯을 구경하게 될 거다.

개구리는 단백질 함량이 쇠고기, 닭고기보다 높지만 지방 함량은 낮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비계로 겹겹이 둘러싸인 뱃살을 안고 사는 당신은 잦은 운동 관람으로 배출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도 넘을 것이다. 이런 단백질 덩어리를 뱉내!

비위가 약해서 개구리를 먹기가 망설여지나? 개구리는 비위를 강화하고 소화를 도와준다. 일단 한 입 베어 물면 그다음부터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래도 못 먹겠다면 하는 수 없이 평생 토끼로 사는 수밖에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RECIPE

재료: 통통한 개구리 두 마리, 양상추, 치즈 두 장, 토마토 한 개, 피클 약간, 햄버거 빵

- 1 신이나 들에서 잡아온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삶는다. 처음부터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반쯤 익은 개구리가 냄비를 탈출하는 호러가 연출될 수도 있으니 온도는 서서히 높일 것
- 2 개구리가 기본 좋게 시우니를 즐길 동안 토마토를 얇게 썰어 놓는다.
- 3 먹기 좋게 익은 개구리를 찬물에 행취 이물질을 제거한다.
- 4 준비해둔 햄버거 빵에 양상추, 치즈, 토마토, 피클을 기호에 따라 올린 다음 조심스럽게 개구리를 올린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재빨리 그럴싸한 크기가 나온다.
- 5 이제 먹는 일만 남았다. 미끌미끌한 개구리 페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여잡고 한입 베어 물자.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데

eMAXIM Attack!



www.maximkorea.net

- 🔔 4,900원 짜리 MAXIM의 모든 콘텐츠를
1,500원에 보고싶은 자!
- 🔔 사진과 동영상 MAXIM을 보고싶은 자!
- 🔔 책보다 PC가 더 친근한 자!
- 🔔 서점에서 MAXIM을 사는 것이 망망했던 자!
- 🔔 MAXIM을 침대 밑에 숨겨왔던 자!

“ 모두 e매거진과 교감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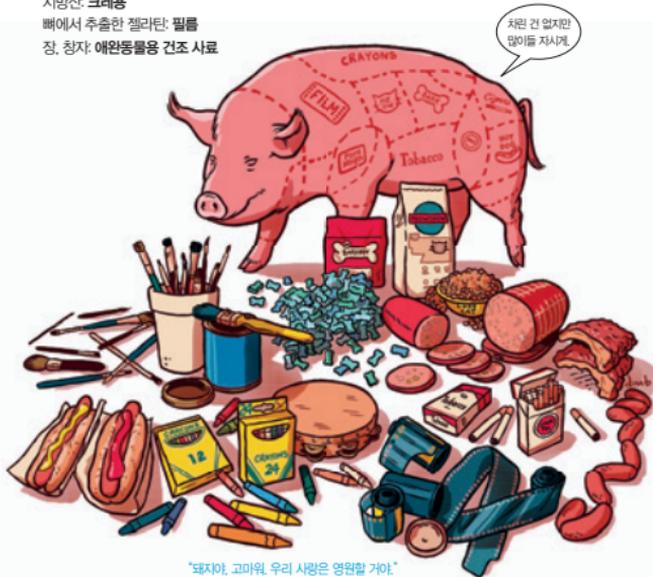


돼지의 보은

(PG 06048)의 저자 크리스틴 민데르츠마의 도움을 받아 우리 베프 통통이가 생산하는 무려 185가지 품목 중 아주 일부만 소개한다. 돼지. 그것은 진리.

ILLUSTRATION DAVID BUISAN

방광: 탬버린
코: 개 간식
갈바: 갈비(응?)
목: 모타델라(이탈리아 볼로냐 소시지와 비슷하지만 더 비싸다!)
헤모글로빈: 담배
지방산: 크레용
뼈에서 추출한 젤라틴: 필름
장, 창자: 애완동물용용 건조 사료



"돼지가 고마워, 우리 사원은 영원할 거야."

EMERGENCY

비상 상황 대처법 << 곰과 여자

야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비상 상황은 2가지다. 사나운 곰을 만나거나 당신 아랫도리를 사냥해 할 처자를 만나거나. 자, 어떻게 할 것인가?



	HOT GIRL	BEAR
당황하지 마라	O	O
손을 반갑게 흔들며 충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도하라. 그래야 당신이 인간임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	O	O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	O	O
먹이를 제공하라	O	X
그것이 흥분하면 제자리에서 선 채로 가 방을 던져라	X	O
당신이 그것을 화나게 했다면 고향을 감싸고 그것이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라	O	O

RUBBER LOVER

기막힌 콘돌 광고

정자 균단이며, 막다른 곳에 도달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당신들의 사랑 순간을 호근하게 언어를 쓴만한 친구가 있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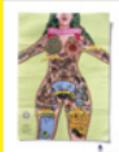
그녀의 입술을 양팔로 짚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커다란 몸집이었다. 빨간 마스크의 재주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녀의 사이즈는 무려 X년 이하 평생 구경할 일 없겠지



백설 공주가 일곱 명 부을 감당하면서도 저렇게 미소를 지을 수 이유는 초콜릿 및 콘돔이 출시되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표정의 일곱 난쟁이를 보려, 난쟁이 호주루 주재해



25달러짜리 콘돔을 사지 않으면 무려 콘돔의 108배에 달하는 40달러짜리 아기 장대를 사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를 행복한다. 신세 망치는 거 다 한 순간이다.



뒤레스 콘돔과 황베리란 그녀의 은은한 곳곳을 마음껏 휘저을 수 있었다는 광고. 하지만 놀이동산의 해리리이드는 역시 동굴 탐험



FX채널 맛보고
신청하기

이제 WWE는 FX에서 접수한다!



THURSDAY PM 11:00 WWE SUPERSTARS
FRIDAY PM 10:00 WWE SMACKDOWN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 channel SCREEN Fusion CineF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교통정리 안 되는 사랑 이야기

세익스피어도 울고 갈 희대의 로맨스 BY 박성우



자전거를 타고 해benen 차는 중이었어



모래사장에 누워 있는 그녀 봤지



발정기 동감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몇 번의 삽질 끝에



결국 그녀가 다리를 발렸어



그런데 그녀가 "오늘은 위험한 날이야"라며



갑자기 진입을 저지 했지만



진정한 남자라면 직진 이잖아?



그녀의 신비한 터널 속으로



우선 들어가고 봤지 어영채!



어쩔 그레 내 존슨 크기와 딱 맞는제



나는 천천히



일뒤로 피스톤 운동을 시작했고



밤새도록 격렬하게 합체와 분리를 반복한 끝에



하늘을 나는 듯 절정에 다다랐어



그녀는 콘돔이 없으니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 지만



나는 정지할 수 없었어 아...아~!~!~!~!!



30개월이 지나고



나는 두 살 배기 아이들의 어깨가 되어 있었지



탄탄대로였던 내 인생 은 궤도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차버렸어. 젠장. 나도 조심하랴구.

Q&A

MAXIM 고민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디터들이 진지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MAXIM은 당신의 친구니까요.

※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위해 아이디는 일부 비공개합니다. MAXIM은 크리에이티브 존중하는 사이트입니다.

Q 미친 놀이 있습니다.

제가 외으로 엄청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걸 제게 해준 놀음 봤습니다. 저의 파파트에서 고급 스포츠카로 요만한 배기음을 내고 다는 녀석이에요. 현대 경차일 아 저씨에 물어보니 이 자식 부모가 어머니는 터미널 청소부요, 아버지는 노가다를 뛰면서 먹고살고있대요. 최근 '내가 진로를 너무 늦게 정하고 안입학해 새?' 하고 고민중이었는데 이 새끼를 보니 그런

걱정이 단박에 날아가버렸죠. 이런 호로 새끼들이 많으니까요 정말 말도 안된 유행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A 호로새끼에는 다양한 유행이 있습니다. 부모 때는 새끼 힘없는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발산하는 개새끼 친척이나 친구 등지 막는 놈.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상심대는 풍 같은 놈 등등. 하나 우리가 '어머머머' 놀음 만 단할 땐 절대평가를 합니다. 더 나쁜 놀이 있다고 나쁜 놀음 착한 놀이라고 할 수 없는 범포도. 더 미친놀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엄청 성실한 놀'이라는 건 개새끼란 거죠. 아,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당신은 덜 미친놀이만 말니까요.

Q 여자 영영이런보통 미치겠네요.

오세 여자애들 스카니 바지 입만 입자요. 하체 쪽 관점은 애들 스카니 바지 입

고 있으면 척 달라붙는 꿀방과 영영이 그리고 하역치. 빨고 심든대 이상한 건가요? 영영이 말고도 톱고까지 빨고 싶어 미처했더라고요. 여자들 이런 거 싫어하나요?

A 영영이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부류지만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정신이라면 길 가던 여자의 응교에 입을 맞출 수 없으니까요. 현대사회의 가치관 단절! 성 도착중의 완성이 기간도 합니다. 오늘 가족과 대화를 시도하는 건 어떻까요? 가족 중대는 게 뭐겠습니까 어찌나게 진지하게 상담해보세요. '엄마, 나 요즘 여자 톱가 빨고 싶어 미처했어' 행운을 빌니다.

Q 빈대 붙는 후배 내뿜는 법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빈대 붙는 후배 영애에 골치 아프습니다. 처음엔 얼마 안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렇지 않게 주머니 나갈 생각을 안 해줘요. 부모님이 이 새끼한테 생활비를 보태고 생각하니 열 받습니다. 또 더러워서 청소는 어머니 안 하는지 어쨌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의상하지 않는 선에서요.

A 마음고생이 심하겠군요. 해결 방법 여 버지를 씁니다. 그리고 똥을 씁니다. 똥을 누는 동시에 후배에게 자취차대 '다가가이것은 똥시 아러운 동지입니다' '만 아귀' 라고 속삭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터넷트와 아이 같은 친한 미소요. 후배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갈 겁니다. 의상하지 말고 후배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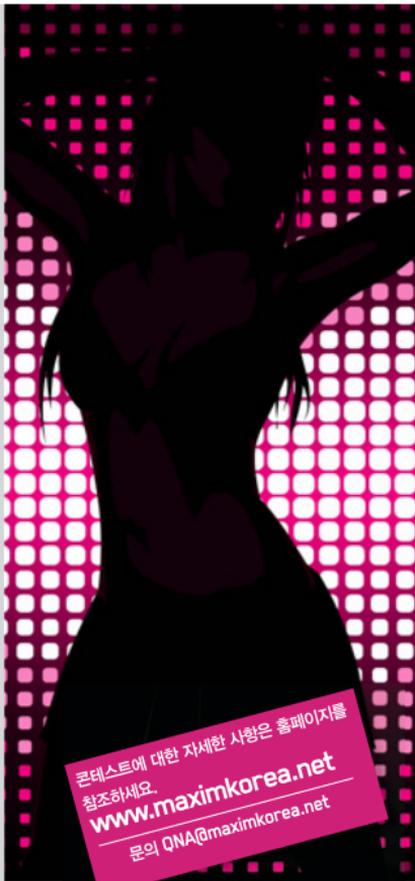


고민 상담하기

2010 MAXIM Girl NEXT DOOR CONTEST

'내 다리가 더 예쁘다. 화장발,
조명발 받으면 내가 재보다는 낫지!'
MAXIM 화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
Come on! 하루쯤은 MAXIM 표지 모델처럼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도

Come on Plz!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문의 QNA@maximkorea.net

MAXIM이 2010 Girl-Next-Door의 문을 두드릴
여성 독자 모델을 찾습니다!

2010 GIRL-NEXT-DOOR 콘테스트는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
며, 독자 모델의 화보는 MAXIM의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방식 및 우승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Girl Next Door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2011년부터 MAXIM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화보 주인공인 당신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포
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전문 디자이너, MAXIM 스태프 등이 움직
일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model@maximkorea.net으로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눈동자만 있고 코, 입이 없는 뽀샵질,
신원 확인 불가능한 사진은 도리도리 사양합니다.

1 네가치 없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고 썩어야 하오. 네가치 없게 대하라는 자에게는 애초에 말을 걸지 말아야 하오. 태도가 나쁜 자의 말은 듣는 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저고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말하는 것은 소린스 란다고 하고, 친한 사람과 말하는 것은 장님이라 하거늘, 군자는 소리를 팔어선 안 되고 잠금 노릇도 하지 말아야 하오.

순자의 막말 퍼레이드

성악설을 주장했을 때부터 알아왔다. 순자의 그칠 줄 모르는 소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이어지는 황당 어러! BY 권태 ILLUSTRATION 장태민

2 성실하고 예의가 바르며, 학문을 좋아하고 경양에 힘써야 성인의 색이 보인다 할 수 있소. 게을러진 데다 영치없이 놀고먹는 이들을 약하다고 할 수 없거늘, 여기에 더하여 재덕대로 애 거칠고, 음험해야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소. 이런 이는 형벌에 차해 죽어 마땅하오.

3 다름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광망히 추악하오! 형벌에서 다름을 근지하고 있고, 다름을 일으키면 가족이 해를 입는데 굳이 남과 다투는 것은 부모와 군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요. 이는 게 돼지만도 못한 것! 만일 이들과 다름을 경나자 정신병의 일종, 다름을 하는 사람은 세나 생쥐로 여기고 심을 따르시오.

4 부귀한 자에게 일부러 거만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천한 자에게는 굳이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정서가 아니거늘, 이는 간사한 사람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행하는 기속이니 이보다 음험한 경우는 없소!

5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처럼 아름답고 나긋나긋하게 행동하는 경박스러운 이가 많소. 이들은 부인과 처녀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아 여자들이 이들과 달라져 하고 있소. 이런 인간을, 군주처럼 신하로 삼기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지식 삼기 부끄럽게 생각하며, 형이라면 아우 삼기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자라면 친구 삼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오! 절대 질투가 나서 이러한 게 아니오!

8 군자는 소인의 반대로, 군자는 능히든 능하지 않든 오감을 주지만 소인은 능히든 능하지 않든 상감이니 그저 추할 따름이요. 군자는 슬기로우면 사물에 밝게 통하고, 어리석더라도 성실하게 행동하오. 반대로 소인은 슬기로우면 도둑질이 심해지고, 어리석으면 나쁜 행동을 하오. 군자는 등용되면 저 자리에서 본분을 지킬 줄 알고, 때를 못 알더라도 몸을 가지런히 할 줄 알거늘, 소인은 등용되면 약삭빠르게 훔치고, 때를 알지 못하면 원한을 품어 음험하오.

7 씹씹이를 잘먹고 육식을 참으며 남비하지 않는 것은 광강히 좋은 일이요. 자기의 긴 말발을 생각하오 뒤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소. 먹는 일에 사처하는 저 구차하고 자각없는 족속들은 갑자기 돈이 바닥나서 궁해지면 동냥자루를 들고 다니니 개천에 쓰러져 죽을 것이요.

6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소. 요임금은 장신이고 손임금은 단신이며, 문왕은 장신이고 주공은 단신이며, 공자는 장신이고 자공은 단신이었소. 생각해도 자공소 훌륭한 이들을 보시오! 공자는 안면이 마치 도깨비 탈을 쓴 것과 같으며 고요의 얼굴은 마치 거칠 벗긴 오이 빛깔 같고 권요는 피부가 안 보일 만큼 수염이 많소. 이윤이란 자는 반대로 얼굴에 수염과 눈썹이 전혀 없소.

HUMAN UNICORN

그들이 뽐났다



3위

영국 캔터베리의 파슬로
그는 약이처럼 보이고 심지어 약 73만엔의 돈을 들여 이마에 볼 두 개를 사술했다. 이 수술과 함께 햇바더를 눈 갈래로 칠해고 송곳도 남가죽에 만들었소. 영국의 판사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그에게 자재 5 시프터 아침 5시까지 동행 금지령을 내렸다.



2위

중국 허난성의 장루이팡 할머니
뽀미-나의 이마엔 1년 정도 된 볼이 있다. 처음엔 흔한 각질이었지만 이것이 더러워져 갈기는 약 6cm 정도, 햇빛을 자주 볼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경우는 희박하다. 수술로 제거 가능하다.



1위

자랑스런 한국의 붉은 악마 처제(?)
와이! 마저! 저 썰매 반해 죽어 버리고 심을 따르시오.

IMAGE 붉은 악마 처제 (Gettyimages.com)

독버섯 군단

몸에 좋은 버섯으로 위장재 우리를 기만하는 고안 독버섯의 정체를 파헤쳐본다. **딱!**



딱! 참인배

화경버섯

활동 시기: 여름~가을 **활동 장소:** 활엽수의 죽은 가지나 고목에 무리지어 발생 **중상:** 눈앞에서 나비 떼가 번쩍대는 환상을 지극, 먹은 사람은 시오징어 된 듯한 작열을 하게 됨. 그 외 통풍, 배스꺼움, 구토를 유발 **특이사항:** 옛날 궁중시대 때 사약으로 활용된 전적 있음. 밤만 되면 자신의 지시새끼인 포자를 퍼뜨려줄 벌레를 고시기 위해 '자재알' 한다 하여 일명 '벌새' 이라고도 함.



한입버섯

GOOD: 이듬처럼 딱 한입에 먹을 수 있다.

WHY NOT: 말린 생선 건은 냄새가 난다. 그에게 킴 서바스런 후 감당해야 했던 썩은 해산물을 낚시의 낚카로운 기력을 따돌리게 한다.



갯버섯

GOOD: 우선 이름에 '갯'이 들어간다. 몹시 매우 화끈한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WHY NOT: 상처를 받았으면 흰 것이 흐른 장로에 연민하다. 눈물도 아니고 초이 흐른다.



소하버섯

GOOD: 산맛이 있어 알레기 썩어 먹거나 버섯에 볶아 먹으면 좋다.

WHY NOT: 맥데가 잔뜩 끼어 있음!



광대버섯

활동 시기: 가을 **활동 장소:** 자작나무 등의 숲 속 땅 위 **중상:** 한 학의 맛을 빌리던 '노새' 목을 파괴하고, 간을 스핀지처럼 녹여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능 **특이사항:** 위장술에 능한 동화나 그림책에 나오는 버섯과 동일한 외양으로 귀여운 처우 후, 자작나무와는 서로 공생하는 죽마고우다.



새발버섯

GOOD: 닭발처럼 생겼다.

WHY NOT: 닭발처럼 생겼다.



기이한 버섯들

딱 먹어도 무방한데, 웬지 그러기 싫은 녀석들.



독버섯 상식 더 보러가기

달걀버섯

GOOD: 가장 친화적인 버섯의 모양을 하고 있어 버섯의 대표 모델로 취급된다. 맛 또한 좋아서 로마시대의 네로 황제는 이 버섯을 가져오던 그만들이 황궁을 상품으로 주기도 했다.

WHY NOT: 러시아의 어느 황제는 이 버섯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왕국보다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을 따 먹다 죽었다. 너무 예쁜 것도 때문 독이 된다.



딱 먹고 싶지 않아~

노루궁둥이

GOOD: 은은한 맛과 향이 좋아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WHY NOT: 궁둥이는 좋은데 털 궁둥이는 싫다.



여름갈고리망이버섯(송로버섯)

GOOD: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등의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는다.

WHY NOT: 발장기의 수핵이 나와 발장의 알갱이가 이 버섯을 찾아오고, 알려지 않고는 살생우는 개를 이용한다. 발장 난 건 나 하 나로 죽는다.



꼭꼭

떨어려줘



말뚝버섯

GOOD: 빨리 자라나므로 전국 어디나 흔히 볼 수 있다. 식용 가능하대 영양성분이 있다 괜찮아~

WHY NOT: 보고도 모르겠나? 학명 Pholus mouleoides는 버섯인 낚시의 생가를 닮았다는 뜻이다. 뭐

말뚝버섯



GOOD: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왕버섯'으로 불린다. 중국에서는 고급 요리의 재료이며 왕민 상인이 있어 악명으로 쓰인다.

WHY NOT: 산부의 드레소와 비슷하다 하여 '드레소 버섯'이라고도 부른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친 때문에 드레소처럼 이쁘게 지긋지긋하다. 게다가 고약한 냄새까지

비듬뿔버섯

활동 시기: 여름 **활동 장소:** 관목이 있는 언덕 또는 대부부의 숲 **중상:** 현기증, 호흡 곤란 등 무엇보다도 이것의 풍기는 '뿔' 냄새가 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재칼을 노끼게 하는 등 심리적 공포 유발 **특이사항:** 그 외 대부분 뿔뿔버섯들은 같은 향기를 공유한다.



중환각버섯

활동 시기: 여름~가을 **활동 장소:** 소 말, 양 등 동물의 뜰에 무리지어 활동 **중상:** 생장에는 지장이 없음이나 미유 입이 웃음을 유발하고 증을 주게 하여 단신을 동태 유발 인식해 안 들이 버린 **특이사항:** 토끼 대변을 주적으로 하여 일명 '토끼 똥버섯'이라고도 불린다. 중환이 마미족은 의식을 가릴 때 흰 뿌리 이 버섯을 시식 같은 중상을 유발하는 동료로는 갈황색 미차망이버섯, 목장말뚝버섯 등이 있다.



독해!

새주둥이버섯

활동 시기: 초여름~가을 **활동 장소:** 주택가 풀밭 숲 속 풀밭 지리 **중상:** 미약한 독 그러나 예민한을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심리적 불쾌감 및 공포를 초래 **특이사항:** 물 탄 지리다 나빠서 나빠서 집 에 부채질하는 뜻된 성미



FIRST AID

응급처치 요령

100% 적용 가능한 독버섯 피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119, 약병한 응급처치 요령을 참고한다.

독버섯을 먹었을 땀 소금을 먹어 즉시 토해낸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내장진 압다라도 토사물을 비닐봉지에 싸서 의사한테 갖다 줘야. 어떤 독성분에 의한 중독인지를 판명할 수 있어 정확한 해독제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의사가 토사물을 든 양분을 기둥한 눈물로 비리볼 거다.

시

시는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BY 김희성

지렁이
도대체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미안하다. 지난 6월호에서 아무 죄 없는 지렁이를 콩국수로 만들어버린 에디터를 탓하는
것 같이 괜히 찢리는 이외수의 시. 이외수 선생님도 MAXM의 열혈 독자였을 줄이야!파이
반다이 다 써야.
... 킁... 킁... 킁뱀
뱀, 너무 길다.제발 좀 분수에 맞게 살라고 강조하
는 시인 원태연의 걸작.

묵념, 5분 27초

그래 긴 여백은 고민의 흔적이
라고 하자. 1980년 광주, 계엄군
이 도청으로 진격한 5월 27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황지우의 시
우리 같은 범인들은 따라했다 욕
만 먹음 게 변하니 여백을 바라보
며 5분 27초 동안 묵념이나 하자.〈홍담우〉의 작가로 잘 알려진 힐 르너르
가 뱀이 너무 길다며 징징거린 시. 아니
면 뱀을 인생에 빗대 권태로운 삶을 비
유적으로 표현한 걸작.영어 또 제수강하며
미국 예들은
생각도 영어로 하겠지
살거나 골든카
씨 팔시인 원태연의 작품. 내가 이렇게 쓰면 쳐
맞겠지. 근데 완전 공감돼. C8.

내 고백할까

이런 뱀에
들어있던
지독할
내가 먹었어.
어디든 내가
아름답게
남겨놓을
것이 없겠지.
읽어주신
정말 맛내고
다들 좋아
사랑했어.여친 냉정고 속 지두를 슬쩍한 뒤 뭇내
찢리는 마음에 남긴 에디터의 메모_라
고 해도 믿겠지? 어이없게도 '내 고백
할까'는 유명한 시로도 모자라 명시선
집에도 자주 실리는 윌리엄 칼로스 윌
리엄스의 작품이다.인생이란
인생은 마치 끝없는 퀘드를 달리는 별 같아
마치 수 많은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
이상성의 광풍을 그려보는 것'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느라 공부도 일도 안 된다는 당신에게 훌륭한 해답을 던져
주는 이 멋진 시는 동방신기 'Rising sun' 의 가사다.

마티즈 12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베스트 프렌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기간: 2010. 7. 1 ~ 7. 31]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드리는 12가지 특별 선물

1 사전등록 선물

- **현금 총 1,200만원** (1등 500만원, 2등 400만원, 3등 300만원)
7월중 온라인 사전등록 및 계약 완료하신 고객들 중 추첨
- **12개월 주유권** (120만원 상당/3명) | 7월중 온라인 사전등록 및 계약 완료하신 고객들 중 추첨

2 베스트 선물

- **키스화랑 전시회 입장권** | 온라인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
- **연간 링크마티즈 세트** | 온라인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
- **악세서리 할인**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보유 고객

3 출고시 선물

- **바다길 무료** (33만원 상당)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Green 구매 고객
- **ABS 무료** (30만원 상당) | 구 마티즈 및 마티즈 클래식 5개월 이상 보유 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출고고객
- **메니페트 고급 화장품 패키지** (24만원 상당) | 링크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구매 고객
- **5.9% 초저리 할부** | 모든 구매 고객
- **삼달합 할인** (최대 40만원) | 자영대우 차량 재구매 고객
- **오토카드 선 할인** (20만원) | 자영대우 오토카드 결제 고객
- **엔진오일할인권** (2만원)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구매 고객 중 합법 신규 가입 고객
* 출고시 선물의 경우, 7월 31일까지 출고한 고객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자영대우 영업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마크의 베스트들 | POP:ART SUPERSTAR KEITH HARING benefit DUNKIN' DONUTS

국내 최초 핑크카 출시의 기쁨을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www.gmdaewoo.co.kr 3부방간판제 및 등동구 • 마티즈 1,000cc DHC : GSL 수동 551 (995cc/85kg) 연비 23.0km/L, CO₂ 119g/km GSL 자동 421 (995cc, 810kg) 연비 17.0km/L, CO₂ 139g/km LPG 수동 551 (995cc/85kg) 연비 17.0km/L, CO₂ 104g/km LPG 자동 421 (995cc/840kg) 연비 13.9km/L, CO₂ 130g/km 0.80-3.000-5.000 • 이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것으로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량의 연비 성능은 100%가 아닙니다.

[지영대우공식딜러] 마티즈모리스(02-2023-6900) 삼화모리스(02-753-9900) 대한모리스(051-712-3800)

Super Safety

matiz

CREATIVE

변명거리 제조기

리포트를 쓰기 싫지? 여자친구 만나기 귀찮지? 사·이·답·게 싫은 건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그럴싸한 변명이 필요하다. 변명 지어내기도 귀찮겠지. 아래 변명거리 제조기를 이용하라. 이 게으른 인간에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여름을 당신 뜻대로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 단, 번호 조합은 신중히 할 것. BY 김민재

아래 리스트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 조합하라.

예) 주어 1. 우리 집 강아지가

목적어 27. 내 거시기를

동사 1. 뜯어 먹었어

→ “오늘 약속 못 지켜서 미안. 우리 집 강아지가 내 거시기를 뜯어 먹는 바람에 병원에 다녀왔어.”

주어	목적어	동사
1. 우리 집 강아지가	1. 내 지갑을	1. 뜯어 먹었어
2. 우리 엄마가	2. 우리 아빠를	2. 임신시켰어
3. 내 친구 자식이	3. 엔조이 상대를	3. 공격했어
4. 옆집 아줌마가	4. 내 책을	4. 훔쳐갔어
5. 우리 삼촌이	5. 우리 집을	5. 난장판으로 만들었어
6. 노숙자 아저씨가	6. 내 친구 자식을	6. 따 먹었어
7. 우리 집 고양이가	7. 여자친구를	7. 고장 냈어
8. 내가	8. 새끼를	8. 날았어
9. 우리 할아버지가	9. 똥을	9. 싸어
10. (남자) 교수님이	10. 변기를	10. 유혹했어
11. 소개팅녀가	11. 내 컴퓨터를	11. 해킹했어
12. 간호사가	12. 내 자동차를	12. 부셔버렸어
13. 군대 선임이	13. 내 휴대폰을	13. 차버렸어
14. 소녀시대가	14. 내 손가락을	14. 뺏아드렸어
15. 직장 상사가	15. 내 머리를	15. 죽었어
16. 바퀴벌레가	16. 내 마음을	16. 아프게 했어
17. 내가 아는 여동생이	17. 팬티를	17. 찢었어
18. 내 여자친구가	18. 내 리포트를	18. 물어뜯었어
19. 연쇄살인마가	19. 내 X구멍을	19. 피해 도망갔어
20. 조폭이	20. 내 열쇠를	20. 불살랐어
21. 과외 선생님이	21. 학교를	21. 잃어버렸어
22. 내 후배가	22. 내 신용카드를	22. 질렀어
23. 강도가	23. 오렐 섹스를	23. 망쳤어
24. 내가	24. 내 가방을	24. 때렸어
25. 인터넷 설치 기사가	25. 엘리베이터를	25. 무너뜨렸어
26.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26. 내 쌍둥이 형을	26. 거절했어
27. 지나가는 사람이	27. 내 거시기를	27. 질렀어





응모하러 가기!

MAXIM 에디터는 기사 작성만큼 많은 시간을 적절한 사진 찾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독자의 웃음보를 자극할 캡션을 다는 데 사용한다. 당신이 실실 흘리는 찰나의 미소가 MAXIM의 기쁨이다. 만질까 말까 새끼손가락에서 망설임이 느껴지는 저 남자는 과연 어떤 말을 흘렸을까? 담당 에디터가 뉴런을 활성화해 나온 결과물은 위와 같다. 이제 당신이 '뽕' 터지는 캡션으로 편집부 전원을 머쓱하게 만들 차례다. 망설이지 마라. MAXIM은 도전 정신이 아름다운 독자의 캡션을 라리사 리켄에 같은 독자가 편집부를 방문할 그날만큼 기다리고 있었다.

1 인생 최고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저 아티스트의 대사를 상상해서 웃겨보라

2 응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건-84)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caplon@maximkorea.net, 또는 QR 코드 스캔 후 댓글로 하라. 마감은 8월 10일이다.

3 담당 에디터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7만원 상당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S석 2장 또는 1년 정기구독권을 선물하겠다.



LAST MONTH'S WINNER
"공휴기월아리나~아역 의사 양반~"

MAXIM FEEDBACK

이번 달의 승자는 QR 코드 댓글로 응모한 Yssu65이다.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종의적 표현을 가능케 한 것이 주요했(대체고추로 제비본 정신은 이제 저것과 비슷한 모든 사이에 독점은 캡션으로 응모하겠지 하지만 아반이 마저이다면 MAXIM은 당신의 이런 섹시한 시도를 기다린다. 당창자는 즉시 연락자를 쓰기 바란다. 선물이 남아있겠다. 다른 제군들은 조금 더 분발하도록 이상

LOVE

*촬영시정리는 편들 등 피인 두군데 사용하에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즐기라. 내용에 논점, 꽃을 둘러면서 질질 띠지 말고

"부케를 들었으니 오늘은 부케케?"

상향 조준 발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오늘은 복학회에 대해 알아보자. 복학회란, 실학사상에 기반한 복학 운동 덕에 사람들이 얻은 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 선진 문물이 당시 생활의 집을 '폭발적으로' 높여 많은 이가 감복했다는 기록이 있...

엄마가 방에서 나가셨나? 옆자리 아가씨가 고개를 돌렸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부케케는 미구 뿌리거나 끼었는데는 의미의 일본이다. 다들 알지? 당신이 허랑케, 허랑케 불태워버리는 그 절정의 순간 얼굴로 날아오는 하얀 액체를 보면서 그녀가 속으로 "더러운 새끼" 라고 외칠지, "올레" 를 외칠지 궁금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다.

BY 이영
PHOTOGRAPHS BY TOM CORBETT

싫은 건 싫은 거다

물총을 질러버릴 거다. K27세 호텔리@

피부에 좋다? 지름을 해라. C25세 대학생

피규어 얼굴에 부카케 한다는 미친는 애기를 들었다. 세상에 미쳐 들어가는 것 같다. 당연하 싫다. 그런 종류의 아동 지체가 싫다. B33세 조연출

우리는 선진 일본의 부카케 아동을 보며 "어찌 저리들 바로 방정맞게 좋아하냐!" 하며 허를 끌끓자는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하기에 일단 먼저 확실하 밝힌다. 에디터가 인터뷰한 여자들 대부분은 안전 사정에 질색했다. 놀랍게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일장 바퀴 생 각해!" 당시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일 거다. 반면 밑에서 열심히 요분칠하다 결정적 순간에 그걸 잡고 엉겁엉겁 그녀 얼굴로 다가가 세이킹을 하는 아 동에, 당신을 포함한 많은 수컷은 자연스레 "학 습" 되어있을 거다. 게다가 부카케는 수컷들이 가 진 정복욕을 만족시켜주는 행위다. 눈도 못 뜨고 있 을 그녀 얼굴을 영망으로 적신다고 생각해봐라. 곱 째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나. 그러니 이 자극을 느 끼고 싶은 수컷이 적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다. 여자들이 질색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단 면 직접 자기 얼굴에 쓰아 보라. (조준도 맞고 빨사 력도 영 시원찮아 당신의 미니미 수억 미리가 당신 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친구한테 딱 한번만 싸 달라고 부탁하라. 진정한 우정은 이렇게 발사. 아니 발현되는 거야) 그 미치근한 온도의 불쾌함은 이유 말할 수 없다. 부카케를 받아들이라고? 사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정액을 썩 좋아하지 않았을게

하지만 좌절은 이르다

왜 그럴 줄 좋아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N25세 교사

남친친구가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자진해서 하고 싶진 않다. 그가 사정하는 표정은 색사하기 보다는 웃 기다. 그 얼굴을 마주보면 웃음이 터질 거다. 그가 사정할 땐 어린 난 이미 흥분이 약간 기어오르고 그가 사정할 수 있게 신음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주는 단계까지 웃을 여유가 충분하니까. Y28세 유학생

불행히도 다행인지 이 죽일 놈의 사랑과 호기심은 인간에게 엄청난 용기를 준다. 맘껏 착한 그녀는 당신 이 쿨이 원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을지도 모른 다. 인터뷰 대상 중 안전 발사를 하한 관대한 여자 들은 "남친친구가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부는 부카케가 등장하 는 아동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고 자비로운 상상 속 에 자신을 대입해줬다고 답했다. 심지어 그녀가 당 신의 레퍼토리를 술술 물러가고 있었다? 기적 선 보기는 새로운 액션이 고작 영타임을 소스화해 대 리거나 그녀의 다리 하나 들쳐 안고 허리를 흔드는 정도이며, 그런 스스로를 격하게 뿌듯해하고 있는



"오빠가 그 말로만 들면 쿨 타이밍?"

당신보다 그녀가 알사고 있고지도 모른다는 소리다(전전. 총겠다. 물론 이미 수백 합을 맞춰본 여 자친구 몸이라도 갑자기 세 발사 지름을 잡아 조준 하는 게 미안하거나 욕 먹을까봐 두렵겠다. 걱정 마. 태권도 허리띠 색 바꾸듯, 색소도 연습을 통한 난이도를 도약할 수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 보자.

단계와 기준점을 정하라

그 생쥐가 기준을 잘못해서 눈 부분에 맞은 적 있 다. 실명보다 더 무서운 건 수컷이 보통 39일이나 지 속한다는 그 녀석의 율령이 수억 미리가 내 눈 속 에서 돌아다닌다는 상상이었다. S28세 연구원

목이나 가슴까진 괜찮다. J29세 자영업

두 귀를 포함하여 얼굴 주변의 그 어떤 구멍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새로 산 규결이에 묻히지 마. 이 법선야! J30세 프리랜서

"처음부터 얼굴을 정조준하여 발사하는 것은 금 물이다. 그 안면 발사를 경험한 여자들이 입을 모 아 에디터에게 말했다. 이 성공한 녀석. 어서 그 물 총 내려놓고 그녀 말을 경청해라 당신도 처음 부 카케가 등장하는 아동을 보며 약간 불쾌해하지 않 였나. 처음부터 그녀가 아동 속 미유기처럼 입을 열 어줄거라 기대하지 말라 소리다. 시키는 낮고 지연 스피크. 하지만 그 끝은 창대해라.

깔끔한 뒤처리는 필수다

뒤에서 그가 사정했다. 머리카락까지 뒤였다. 남친 이 단박질이라 머릿결이 좋아질 거고 해서 등딱 을 후려쳤다. K23세 유튜버 교사

빠는 타이밍이 늦었던 거야. 젠장 타이밍이 쿨이래 던 놈이. H24세 모델지망생

그가 다정하게 몸을 두어주던 감촉이 매우 따뜻했 다. 사랑받는 느낌이였다. 헤어졌지만 아직도 기억 이 선명하다. P22세 대학생

남자가 물총을 쏘았으니 어치든 목 칠 때 땀은 하얀 무지개를 뿌렸거나 날아가는 새를 맞춰 떨어뜨려 야 한다는 쓸데없는 경박은 버리자. 피임을 위해 콘 돔 사용이 아니라 질요사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멍 청이가 그런 강박관념까지 가지면. 그러다 당신만 클 멍청한 애가 지구에 태어나는 사태가 생기면. 야. 우울하다. 실제로 많은 커플이 질요사정으로 피 임을 대신한다. 계획 없는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3 중 슬픔을 세트로 피하려면 피임의 등의 대안을 보 려한다. 이왕 하기로 했으니 잘 해보자. 부카케 등 의 질요사정에서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다. 당신 만의 타이밍 조절 방법이 있겠지만 또 하나 머리에 입력해주마. 도고 색소에 따르면, 사정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물결을 빼고 숨을 들이 마신채 등등을 멈추고 눈을 치켜 부릅뜨는 동시에 괄곡근 을 조이면 사정을 할 수 있고, 사정 후의 정성 성 강으로 돌아오는데 비해 발가락은 떨어지지 않아 어 서서 정액을 충분히 느끼며 즐길 수 있다고. 이 것은 실제로 하고 있는 한 남자 에디터는 "미치 싸 기 직전에 좆을 비벼 개운 것 같다" 그 중언했다. 동료라도 쌀 것 같은 표정으로 "할 거다"고 고정 장치가 밀고 한번 해보자. 사정 후 마무리도 중요 하다. 매나누면 당신은 그녀 몸에 흘린 정액을 조심 히 닦은 뒤 자신의 거시기를 닦겠지만, 그녀에겐 대 총 타서 몇 장 던져주고 뒤돌아 소중한 주니어를 호 호 불러주는 사랑도 있다. 너 지옥 간다. 그러지 마 라. 마지막 시초. 사랑에 정상이 없다는 말은 열없는 사랑들의 필소다. "소중한 사랑을 소중히 대 하라." 이게 사랑의 정답이다. 그 단순한 한마디를 지키면 부카케든 뭐든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고 즐 겹 거다. 당신들의 사랑에 건투를 빈다.



비뇨기과 건강 칼럼



태양이 작열한다. 너도나도 떠난다. 피서지 분위기에 취해 합체 성공! 그런데 휴가 후 당신 몸통이 바실비살 몸살을 앓고 있다만? 이번 달 주제는 '여름철 생병 관리'다. 여름휴가의 추억은 남겨도 후유증은 남기지 말자.

BY 칼럼에 WORDS BY 물레장강남림 마노메디 비뇨기과 전문의 IMAGE 가운 큰 차치(Dreamstime.com)

생병, 그놈은 누구인가

생병은 생행위를 통해 감염돼 발병하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매독, 임질, 무른개강, 비임균요도염, 칸디다증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생병은 생행위가 잦을수록, 성교 상대를 자주 바꾸수록, 성교 상대의 범위가 사회적·지역적으로 넓을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다(현재 양말을 붓고 입고 있던 당신은 생병위 확산 방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거다).

생병에도 트렌드가 있다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고, 기존 치료약에 대한 병원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여성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낸 통계에 따르면 비임균요도염을 제외한 나머지 생병에서 여성 감염자 수가 남성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등은 더해 6개월 동안 모두 8,627건이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여자가 54.7%를 차지했다. 많은 여성이 생병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바꿔 말하면 당신 역시 생병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소리다. 또 용

감하제 다른 삼입 구멍을 시도하는 이가 많아지면서, 남자의 원소 X에도 생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부처지만 앞뒤 모두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모든 일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생병은 생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원충, 곰팡이균의 감염으로 발생된다. 주 감염 경로는 감염자와의 생행위다. 일부는 입이나 삼질에 전염한 손가락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위행위, 포옹, 손 잡기, 수영, 목욕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손 한번 잡았다고 두려움에 별 별 필요는 없다). 증상은 대부분 생관계 주일 전후로 나타난다. 배뇨 시 통증이나 불쾌감, 가려움증, 분비물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고통을 동반한다. 회음부(음낭과 항문 사이) 쪽 불쾌감이나 통증 등이 있을 수 있고, 허벅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물을 많이 먹고, 많이 배변서 안정을 취하라. 증상이 심해지면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한다. 생병은 불임, 고환염, 전립선염 등 장기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생병, 그놈을 잡자

공공시설 등 밀접가 수건, 가운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아 기생충 질환이나 피부병에 감염될 수 있다. 위생 상태를 꼭 확인하자. 그리고, 이 말은 정말 하기 싫었지만, 무분별한 생행위를 자제하라. 생병은 대부분 생관계로 전염되므로 한 사람과 생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난 누구보다 '후리'한 영혼이라 자부한다면 콘돔을 써라. 가장 간단한 방법이자 가장 지켜지지 않는 습관이다. 정가적 생병 검사와 더불어 생기를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 몸집이나 분비물, 궤양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흔치 은밀한 시간을 갖다 알아한테 걸렸을 때 이 말을 변명거리로 써 먹어도 좋겠지). 생행위 시 에우를 통해 상대방의 생기를 관찰하는 것도 권유할 만하다. 물론 반대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지만 생병에 걸리는 것보다 낫다. 생병 예방을 위해 임의로 한 생행위를 두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생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MAXIM 독자다운 태도겠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비뇨기과 전문의 윤재석·전준호·김준영 원장. 알람님 3인방은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2 경일빌딩 2층(지하철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문의 www.manomed.net
080-345-7582 / 02-516-1675

ASK DR. MAXIM

MAXIM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 물어요?



이 달의 QnA

지난 7월 비뇨기과 칼럼의 주제는 조루였다. 칼럼에서 소개한 조루 극복 방법 중 하나인 국부마취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

Q 국부마취제(마취제)는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cy

A 척척이가 당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다만 성의 강도가 무더기 때문에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해 위해 것이냐 아니냐 면 당신을 위해 것이냐는 당신 판단에 달렸다.

섹스와 비뇨기 건강에 관한 당신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국내 최고 전문의 3인방이 여러분의 질문을 읽고 함께 고민해줄 기로 약속했다.

E-mail ny@maximkorea.net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콘서트홀
HEALTH 담당자 말



읽으려 하거



트레이너 강의 ONE POINT FITNESS

여자는 남자의 넓은 어깨에 매력을 느낀다. 트레이너 강과 함께 비루한 몸을 파닥거리다 보면 소지섭 어깨 뽐이 생길 거다. 자, 이제 얼굴만 고치면 돼

BY 박성우 WORDS BY 트레이너 강 (강성근) PHOTOGRAPHS BY ARC STUDIO IMAGE (대리 이재재(Dreamstime.com))

Dumbbell Press 덤벨 프레스



1. 덤벨을 잡고 서서 어깨 높이로 올린다. 팔꿈치를 어깨와 수평으로 올린 채, 덤벨을 든 손은 수직이 되게 한다.



2. 호흡을 내쉬며 덤벨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린다. 덤벨이 머리 위에서 서로 만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호흡을 마시며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다시 반복!

주의 사항

밀어 올릴 때 팔꿈치는 95% 정도만 만다. 팔꿈치를 완전히 펴면 삼각근 단련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Arnold Press 아놀드 프레스



1. 덤벨을 잡고 서서 양 손바닥이 몸 쪽을 향한 상태로 어깨높이에 위치한다.



2. 호흡을 내쉬며 엄지손가락이 서로 마주보도록 손을 비틀어 밀어 올린다. 호흡을 마시며 시작 자세로 돌아와 반복한다. 아놀드 프레스는 덤벨 프레스와 달리 이완 시 기동 범위가 많이 증가한다.

주의 사항

밀어 올릴 때 팔꿈치는 덤벨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95% 정도 편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Bent Over Lateral Raise 벤트 오버 래터럴 레이즈



1. 양손에 덤벨을 잡고 허리를 45° 숙인다. 팔꿈치를 가볍게 굽혀 어깨 팔꿈치, 손목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2. 호흡을 내쉬며 양팔을 옆으로 들어 올린다. 후반 삼각근에 충분한 수축을 느낀 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와 반복한다. 수축과 이완 시 크게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실시한다.

주의 사항

동작 중 팔꿈치를 펴거나 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후반 삼각근에 집중한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Front & Side Raise 프론트&사이드 레이즈



1. 몸 앞쪽으로 덤벨을 잡고 서서 팔꿈치를 가볍게 굽힌다.



2. 호흡을 내쉬며 양팔을 정면으로 들어 올린 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3. 시작 자세의 팔을 다시 측면으로 들어 올린다. 덤벨을 앞, 옆으로 들어 올릴 때, U자 모양을 그린다느 느낌으로 동작을 실시한다.

주의 사항

동작을 할 때는 팔꿈치를 가볍게 굽히고 어깨관절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SUPPLEMENT

헬스 보충제, 알고 먹자!

근육 증가, 다이어트와 관련해 시중에 판매하는 보충제 종류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보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할까? 트레이너 강에게 물었다.

크레아틴

크레아틴 보충제는 근육 수축 및 회복에 지속해서 못하는 초기 ATP-PC 운동 시스템 시점에 크레아틴 인산염을 함유한 공급체인 ATP의 재합성을 도와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단백질 파우더

근육량의 20%는 단백질이다. 즉 근육의 비대는 체내 단백질 증가를 의미한다.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파괴된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추가 섭취해야 한다. 보온, 조리, 가격 등을 종합하면 때때로 수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 파우더가 강점이 있다.

필수아미노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8~10종의 필수아미노산 보충제. 고품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주사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미노산 손실이 큰 단행 단백질 보충제를 가질 필요 없이 아미노산이 즉시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모든 근육에 강력한 단백 동화 작용을 일으켜 단시간 내에 근육이 효율적으로 커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BCAA

필수아미노산 중 측쇄 아미노산. 발산, 발열을 보충해주는 보충제.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면 간섭으로 합성되는 단백질 양이 감소한다. 저항력 저하와 동시에 BCAA가 감소하면서 기타 아미노산이 증가하는 아미노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 이 상태에서 일반인의 합성 능력이 저하되어 단백 현상이 불가능하게 된다. TIP. 아미노산이나 BCAA 등 아미노 계열 보충제는 단백질, 파우더, 캡슐의 3가지 형태가 있으나 아미노산은 정제사 소와 흡수율이 높고 손실 없이 장까지 도달하려면 캡슐 형태가 가장 낫다. 고강도 저열량 필수 캡슐이 되어 있으나 같이 보면 좋을 듯.

글루타민

일반인의 경우 액티비트레아닌으로 과도하게 전신을 자극하면 몸이 소화되면서 백혈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는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글루타민을 보충해 주면 다시 백혈구를 생성하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비타민제

여러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타민 C는 운동하기 30~40분 전에 다량으로 섭취해 운동 중 근육 회복과 지구력을 높이고,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한다. 비타민 B, 은 스피드의 지구력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며, 당질의 분해 과정에 반응하는 시기를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B, 가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지며, 지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한 달간이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아에게 꼭 필요하다. 보다 많은 비타민 양이 많이 들어 있는 종합비타민 제품을 섭취한다.

WHO IS HE?



트레이너 강 강강군

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독한 것들의 진짜 운동법) 저자

'트레이너 강의 Fitness World' 마스터
'성공 다이어트-비타민과의 전쟁
(cale, daum, net/slm)' 운영진

BOOBS WORK

기상천외한 가슴 활용법 5가지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의 시도와 현실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당장 여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리 이걸로 한류 잡아 역사를 새로 쓰지 않겠나?" 고 고든가보자.



병따개

처음엔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실사 거 짓말이라도 해도 믿고 싶다고 자제히 보니 트위터 스텝이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여인은 나이스 보드에 자랄게 출몰한 병따개를 늘 몸 에 달고 다닌다. 반드시 찾아야 할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고 그 기술을 후대에 널리 전파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보자.



일가루 반죽

행을 맛있게 만드는 이 여인의 동영상은 발견한 예디더는 환호를 펼칠 수 없었다. 영민 위생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 만능의 보충제로 꼭 차지게 차려야 할 비닐 뿐 행 밀어 떡을 쳐 보는 건 어찌봐도 정말 순수하게 딱 답답하다.



전경

한 영민 정보원이 가슴이 타질 것 같은 충격을 전 해왔다. 알 카페에서 여성 동지들의 가슴에 풀 풀을 넣는 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니, 테라스트 전문가 조세프 피라는 "알 카페에서 여성 자살 폭탄 테러범은 자신의 가슴에 유방확대수술 과 비슷한 폭발물 삽입 수술을 받는다" 고 밝혔다. 유방에 들어가는 폭발물의 종류는 PETG이므로, 14년만 가지고도 비행기 구멍을 내서 추락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한다.



새차

후우에는 남성의 자동차 관련 판타지를 한바디 로 가슴 밖까지 실현시켜주는 스텝이 클리어 있다. 비벌스 앤 베이브스라 부르는 이 세사는 50달러에 상의를 벗은 여인이 새차를 해주고, 100 달러를 내면 완전히 다 벗은 여인이 새차를 한 뒤 마무리로 "거차 끝으로 차 배 라는 의외에서 램 텐스를 준다. 자동차가 팔리면 이래 남자가 상상 할 수 있는 가장 추측한 자동차 판타지가 현실 에서 가능하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 그의 효율적인 새차 방법은 아-리-리-리!



치즈

'치즈' 라고 외치지 않아도 떠올리거나 하면 일 가에 밟고 미소가 번지는 가슴. 그 가슴이 진짜 치즈를 만들었다. 뉴욕의 요리사 데니얼 켈러는 무엇이든 치즈를 만들어 제공했다. 그는 "우유로 만든 치즈 맛과 비슷하나 조금 달 다" 라고 말했다. 손상의 번짐도 나쁘지 않았다 고. 젓이 밀라거던 그의 부인은 '이제 우유 아미노산이든 만들든 좋겠다' 고 말하며 다시 한차례 펌프질을 시작했다.

남자라면 직접 한다! 차량 점검법

차기 매겼을 때 간단한 점검 정비는 할 줄 알아야 고속도로에서도 암컷을 낚지 **BY 유승민 COOPERATION GMR** 라테리 프리리어



황량한 하이웨이! 로큰롤을 크게 틀고 시가를 쳐들고 달리고 있다. 갯길에 고장 난 차 한 대가 연기를 내며 서 있다. 역시나, 보닛을 연 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핫한 보디의 그녀. 짧게 스쳐는 찰나였지만 넌 이미 그녀의 '쓰리' 사이즈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하지만 넌 선택해야 한다. 10m쯤 지난 지점에서 후진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으지, 아니면 그냥 지나기/버릴지 말이다. 자신 있게 멈추려면 틈 나면 그냥 지나기/버릴지 말이다. 자신 있게 멈추려면 틈 나면 그녀의 차 보닛을 열어젖히고 손을 써줄 수 있어야 한다. 형이 늘 말했잖아. 남자는 차를 알아야 여자한테 어필한다고, 운전만 할 줄 알았지 정비는 모르겠다고? 그럼 그냥 지나길 기다려. 범칙은 저지르지 말고.

자 어떤 녀석이 말생을 부렸는지, 혹은 형운을 저자다 했는지 살펴볼까?

1. 에어클리너 연료를 폭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를 흡입할 때 함께 가져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여기서 걸러낸다.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 막힌다. 바람을 불어 이물질을 제거하자. 반드시 공기를 안쪽에서 밖으로 불어내야 한다. 밖에서 안쪽으로 불면 더 악화되지? 에어스프레이가 있으면 효과적이니 차에 늘 싣고 다닐 것.

2. 램프의 점등 램프는 엔진 크랭크축의 동력을 다른 축에 연결해주는 벨트다. 램프가 끊어진 것 같다고? 빙고, 램프는 여자의 스타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새 스타킹을 걸면 그녀에게 스타킹을 좀 벗어달라고 말해라. 스~러리시 한 쪽은 무서워서 램프로 쓰고 한 쪽은 여해도 좋다.

3. 브레이크 암컷 드라이버 중에 브레이크를 잦아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브레이크액은 일교를 생분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열을 받으면 브레이크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브레이크 패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일명 스펀지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녀의 차에 올라타라. 일단 저단기어로 차 속도를 줄이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정비소까지 가자.

4. 냉각수 엔진 연소실 내부 최고온도는 약 2000°C까지 오를 수 있다. 뜨거운 엔진을 식히기 위한 것이 바로 냉각수. 냉각수 탱크의 계기판을 확인하자. 눈으로 식별 가능하다. 'MAX-MIN' 사이로 차올라 있으면 정상이다. 부족할 경우 보충해야 하는데, 부동액이 없다면 일단 생수라도 좀 부어라. 이미 그녀의 엔진이 과열로 손상되어버렸다면 사용 없을 수도 있다. 내야스.

5. 엔진오일 점검 계기판 엔진 율활작용을 하는 엔진오일이 오래되면나 과열을 받은 채 오래 지숙되어 엔진이 늘어 붙을 수도 있다. '사고 안 난 게 다행' 이라고 믿을 뿐이며 걱정해 주는 척 해라. 열려는 노란 손잡이의 엔진오일 점검 계기판을 빼내고 봤을 때 'MAX-MIN' 사이에 엔진오일이 묻어 있어야 정상이다. 엔진오일을 대신할 건 없다. 아실 뜨거 사용유나 이상한 기름을 넣ອງ 들지 말고, 네 차로 그녀의 차를 견인하라.

6. 퓨즈 특정 전기장치가 먹통인가? 전기장치별로 규정된 정격전류보다 큰 전류가 흘러 퓨즈가 끊어졌을 수 있다. 우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같은 용량 퓨즈를 빼서 중요 부분에 먼저 사용하자. 예비 퓨즈도 없다면 일단 언박지도 권한다.

7. 배터리 시동이 안 걸리다면 배터리 방전일 수 있다. 배터리 정품 케미스트리를 꺼내라. 네 차 시동을 건 재료 반드시 그녀의 차 배터리 +극에 먼저 빨간 선을 물리고 네 배터리 -극에 두 물러라. 경정 케미스트리는 -극까지 물리면 안 된다. 폭발한

다 네 배터리의 -극에 물린 후 그녀의 배터리의 양극에 떨어진 보닛 철판 같은 데에 물려라. 그 후엔 배터리가 충전될 때까지 지면엔 그녀의 손을 너의 -극에 물려도 좋다.

8. 엔진 자동차의 심장부다. 아니 그런데 이 엔진은? 이를 하여 예로써 18 엔진으로 유럽 모델에서 개발한 라테리 프리리어의 글램 전략형 엔진이 아닌가 그동안 저렴 및 오일 브랜드의 엔진들에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받은 고성능 엔진으로 DOVCP형 가변밸브 타이밍 기구가 모두에 탑재되어 중저속에서의 토 크 향상, 효율적인 구동제어가 가능하다는 바로 그 예제 엔진이다. 오, 해님남김 사당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다.



외계인 목격담 그럴싸하게 꾸미는 법

당신이 외계인이라고 행차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BY 정민혜 IMAGES 불 때는 외계인, 외계인 글자시인(Dreamstime.com)



외계인 만나는
방법 보기

목격담은 고대 문서를 통해 남겨라

외계인 존재를 긍정할 때 사용하는 근거 중 하나가 고대 문서에 남은 외계인 목격담이다. UFO 연구가 마리오 파자글리니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에제키엘의 이야기가 목격담의 최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구약성서>에는 이상한 불덩어리, 얼굴과 날개가 각각 네 개씩 붙어 있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또 4세기와 중세시대의 이상 현상에 대한 기록도 UFO 목격담의 시초라 볼 수 있다. 근저 동굴로 들어가 UFO 목격 장면을 암시하는 벽화를 남겨라 사람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거다.

유명인이 돼라

가원전 322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5개의 둥근 은빛 방패들이 광선을 쏘아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기지들에게 UFO 목격담을 이야기하며 UFO를 본 어떤 사람도 조종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전 대통령 역시 UFO 목격담을 이야기한 바 있으며, 1965년 11월 제너바 회담 중 "만약 외계인의 침공에 직면하면 서로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는 말실수를 한 적도 있다. 행으로만 여겨져 온 외계인의 존재는 이들의 목격담으로 더욱 사실에 가까워졌다. 억울하나? 그럼 출세하라.

비행기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가 돼라

LFO학에서 가장 신뢰성을 두는 정보원은 바로 비행기 조종사 혹은 우주 비행사다. 그들은 정체불명의 물체와 다른 인공위성, 별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스트롱은 2대의 UFO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NASA측은 이 증언을 삭제했다). 아스트롱이 첫 우주여행에 들떠 헛것을 봤는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신뢰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목격하라

UFO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목격하라. 단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목격한 경우, 목격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목격의 원인을 집단환각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각각 독립된 장소나 상황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해야 한다. 1566년 8월 스위스 바젤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하늘이 수십 개의 검은 구체로 덮여 있는 것을 목격했고, 이 증언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역시 어떤 경우에서도 '공유'는 아름다운 문화다.



문명을 멀리 하라

사이프리카 말리의 도근 족은 환경경이 발명되기 전부터 토성 주변의 고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선 운하에 속해 있다는 것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그들에게 지구 밖 소식을 알려준 이들은 다름 아닌 '노모스' 라는 외계 종족 도근 족에 따르면 그들은 지구에서 9광년 떨어진 시리우스 성좌의 세 번째 별 주변을 도는 행성에서 왔다고 한다. 맨 처음 천문학자들은 이 주장을 비롯했으나 1970년 시리우스 성좌의 두 번째 별, 시리우스 B성이 촬영되면서 도근 족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문명과 멀어질수록 당시의 주장엔 신뢰가 더해진다. 당장 텔레비전과 컴퓨터 끄시게.



나 알콜 실증 된 것 같지 않아요?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목적감을 만든다

외계인에게 당신의 올빼미를 족다가 너 아예 외계인과 교미를 했다고 말하여 흥미를 유발하라. 외계인은 주로 혈액, 배설물, 소변, 정액, 생식 기관에 관심을 보이며 때론 상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스트리버라는 한 남성은 여자 외계인이 다가와 성기를 더 딱딱하게 세워주길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뭣났게도 그가 거부하자 여자 외계인은 기계로 발기를 유도해 그의 씨앗들을 가져갔다고 한다!세워달라고. 이 성기는 만져야 딱딱해진다고 예 말을 못했. 그들은 인간끼리의 성관계를 유도하기도 하고 자신이 몸속 나사서 인간과 교미를 시도하기도 한다. 아직 충격이더라고 너무 걱정 마라. 인간 쪽에서 거부하면 외계인도 상관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신이 옷차려를 추가하려면 난 처음 이라고 눈물을 그렁거렸더니 외계인도 그 골 보기 싫어 돌려보내겠다고 돌려대라.

이이 따듯해.



신체에 증거를 남겨라

흰든 눈에 보이는 변화가 희고다. UFO 혹은 외계인을 목격한 이들이 겪는 신체적 증상은 주로 다음과 같다. 실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구토, 설사, 불면증을 경험한다. 케나다의 한 광부는 UFO에 접근한 후 몸무게가 10kg 가까이 줄고, 혈액 염분 수치가 10%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이러한 변화도 복불복이라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외계인 접촉 후 반신불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증상의 가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가 새로 돌아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탈모, 신체마비, 그룹림 자극, 붉은 반점 등 부정적인 변화도 있다. 탈모를 겪고 있는 당신. 이게 다 외계인 탓이라고 말하래



FIVE STEPS

외계인과의 근접 조우 5단계

미국의 UFO 연구가 앨런 하이네크가 정리했다!



제1준 근접 조우 UFO나 이상 현상을 단지 목격했을 경우. 여기서 당신이 UFO 목격담을 이야기해 준 것은 머리에 꽃을 꽂고 동네 방네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2준 근접 조우 UFO가 축적 가능한 흔적을 남겼을 경우.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증거에 신뢰성을 더하라.

제3준 근접 조우 UFO 인이나 근처에서 움직이는 외계인을 목격했을 경우. 목격한 외계인은 남장(형 인건, 카디라형, 로켓형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외계인을 볼 때를 즉시 몸을 숨기자. 제4준 근접조우는 좀 더 공박하라.

제4준 근접 조우 외계인에게 납치 당했을 경우. 위 4가지 유형 중 남장(형 외계인들이 납치를 절한다. 무, 무차

제5준 근접 조우 외계인과 직접 만나다! 메시지를 내는 경우. 외계인을 직접 접하고 난 후 지켜야 할 사항은 경우가 많다. 텔레파시로 외계인과 통신도 가능하다. 항상 이머지가 대표적 예다.



어딜 꼬라봐?

ALIEN TEST

초감각 지각 능력 실험

당신의 친구는 초감각 지각 능력을 가진 외계인일 수 있다.

준비물 / 종이 5장, 펜, 노트, 방석, 당신의 친구

같은 크기의 종이 5장에 각각 다른 도형을 그려 넣어라. 별, 사각형 등 도형에 제한은 없다. 그다음 카드 뒤 면에 비친 도형을 당신 친구가 볼 수 없도록 종이 뒤에 방석을 갖다 대라. 철저히 가려야 한다. 맞은 쪽에 친구를 앉히고 카드를 하나 뽑은 후 무늬를 맞춰보도록 한다. 이를 10번 반복하며 실험 결과를 노트에 기록하라.

친구가 카드의 그림을 맞힐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다섯 번 중 한 번뿐이다. 처음 실험에서 친구가 열 번 중 여덟 번 이상을 맞았다면 다시 실험하라. 친구가 여덟 번 이상을 맞았다면 친구의 면상을 집고 친구의 예마 UFO는 도둑해 어디에 두자했 나고 따져 물어라.

SECRET AGENT

진짜 맨 인 블랙

필 스피스X 찾아오면 시인받을 거야!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의 존재를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은폐하는 요원도 존재한다. 1939년 (스페이스 리부)의 앨버트 편지장은 맨 인 블랙 요원에게서 UFO 관련 정보를 잡지해 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형 박 시간이 있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잡지는 폐간되고 이 사실은 훗날 인터넷에서 밝혀졌다. 또 있다. 1979년 12월 정 파에르 프리는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했다. 후에 맨 인 블랙 세 명이 정 파에르를 찾아와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세 명의 눈동자는 흰색이었으며 매우 무서웠다고 한다. 비밀을 누설할까봐 걱정해서 눈물이 뒤집혔는지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G.NA

G.NA 지나

비운의 걸 그룹 '오소녀'의 에이스가 드디어 돌아왔다. by 라영한

2007년 데뷔를 코앞에 두고 기획사의 재정 악화로 공중 분해된 비운의 걸 그룹 오소녀를 기억하나! 비록 오소녀는 시원하게 열망했지만 당시의 멤버인 유빈, 유이, 전효성은 인기 걸 그룹의 에이스로 활동 중이다. 사실 오소녀 시절 그녀들은 자신의 갈질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생자사 새옹지마! 에이스였던 그녀는 다른 친구들이 잘나가는 모습을 TV로 지켜봐야 했다. 연습실에서 절치부심하던 그녀는 오소녀가 해체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Draw G's First Breath〉로 데뷔를 신고했다. 연예계는 벌써부터 원성부를 거울 신인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이다. 마이크를 잡고 온몸을 요동치는 비(Rain) 군이 듀엣곡을 함께 불러 자임 사격도 확실히 받았다. 그녀의 절친 현아도 원더걸스에서 탈퇴한 후 현동인 고생했지만 포미닛의 에이스로 거듭났듯이 지나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이효리를 대신할 새로운 아이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MAXIM의 리더에 걸린 라이징 스타 지나, 그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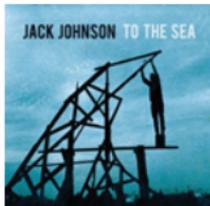
BY 박상우

SOLAR 태양



태양은 흥미로운 엔테테이너이다. 소녀 팬부터 평론가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목소리', '또래 중 단연 두각', '새로운 유형의 아이돌' 등 그를 수식하는 말도 다양하다.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 바로 축구선수 박주영이 세상에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와 비슷한 스타일 하곤 했다. 과도한 기대는 '친제'를 읊어대는 족새였고, 비틀대던 박주영은 대중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다. 다시 태양으로 돌아와 보자. 분명 그는 한국 가요계의 특이한 위치에 서 있다. '나만 바라봐' 로 그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아졌고, 아이돌임에도 뮤지션의 기세를 받는 유일한 가수가 됐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태양의 첫 정규 음반 (SOLAR)은 분명 꽤 괜찮은 결과물이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우수한 제작진이 만든 '잘 빠진' 작품 이상은 아니다. 태양은 유려한 보컬 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뮤지션에는 미치지 못했다. 태양의 앨범이지만 프로듀서 TEDDY의 색깔이 더 짙게 배여져 나온다. 이러한 기대도 태양이기에 가능할 터. 우리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그를 기다려 주자. 태양도 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분명 그는 박주영 못지 않은 재능과 가능성과 신상임을 겸비한 엔테테이너니까.

TO THE SEA 잭 존슨



'친환경 예코 뮤지션' 잭 존슨이 새 음반을 선보였다. 다섯 번째 정규 음반 제목은 (TO THE SEA) 이제 자신이 하와이 출신의 생계 서핑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셈인지 이젠 아예 내놓고 '바다'로 간다. 언젠가 그랬듯 딱딱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목소리는 나직하고 편안하지만 이번 앨범에선 약간의 변화도 감지된다. '이제 그런 밴드(90년대 펑크록 밴드들의 음악을 좋아했었다고 말하는 것도 지치었어. 그래서 저 음악 속에서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라는 그의 인터뷰 내용처럼 경쾌하고 시원한 사운드의 비중이 높아졌다. 잭 존슨의 새로운 모습은 발매 후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할 만큼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감히 말하건대, 첫 싱글 'You And Your Heart'는 울 여름 최고다. 긴 말할 필요 없이 일단 들어보시길. 특히 뮤직비디오는 꼭 감상하길 권한다. 당신이 끈적끈적한 장면이 붙어 느끼고 있을 여름 기운을 잠시나마 완전히 잊을 수 있을거라 장담한다. 근데 그런 그였고 아무리 봐도 이 형, 판 니스텔로이 닮았잖아! 콜론의 습격인가? 달달달.

보물섬 리오(L.E.O)



'물림없는 떠버리'가 돌아왔다. 리오 케이코리아는 이름으로 발매했던 그의 1집 (《Skale》) 지금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라틴 느낌 물씬 풍기는 싱글 '황혼에서 새벽까지'는 리스나들이 절로 어깨를 들썩들썩 줄 정도로 신명났다. 지금까지도 그의 솔로 활동을 이야기할 때 빠질수 없는 수작이다. SSSO의 감성(지후신세 밀고)이 피쳐링으로 참여한 'Love Train'을 비롯한 2집은 타이틀의 자나니 대중성과의 타협 때문에 오해를 가웃하게 만들기도 했다. '본연의 색을 내다오' 하는 의지로 가장 리오다운 음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보물섬)은 더위를 날려줄 울드스콜로 가득 차 있다. 중간 중간 삽입된 스킷은 재기발랄하며 한 편의 여행 같은 구성은 그가 하와이 출신이라는 걸 되새기게 만든다. 영화배우 황정민을 떠올리게 하는 밝은 웃음의 사진을 보고 인노리엔 예전의 강렬한 사진 속의 리오가 맞는지 약간 의심되기도 한다. 신나게 듣기 좋은 음악이지만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흥겨움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아쉽다. 역시 리오에게 라틴합창이 가장 잘 어울리는 웃이다. 그러나 '황혼에서 새벽까지'가 커리어 하이는 아닐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그는 누가 뭐래도 물림없는 떠버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쿨라 셰이커하면 떠올리는 노래는 'Hush'다.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라는 익숙한 멜로디로 익숙한 이 노래는 어느새 쿨라 셰이커의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딥 퍼플의 동명 곡을 커버한 것이다. 훌륭한 커버 곡이긴 하지만 쿨라 셰이커는 'Hush' 한 곡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진 밴드다. 1986년 발표한 (《)는 영국 역사상 오아시스의 (Definitely Maybe) 이후 최근 기간 세일즈 (85만 장)를 기록한 데뷔 앨범이다. 이 뛰어난 밴드명은 94년 첫 정규 힌두교의 용성에 공헌한 인도 왕의 이름을 변형한 것이다. 그들은 밴드명처럼 힌두 음악과 영국 비트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조화한 음악을 선보임으로써 이런 경향의 창시자인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조차 하지 못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이 공로로 (《)는 영국 오메가에서 1998년 2월호에 발표한 '가장 위대한 앨범 100장'에서 44위를 차지하고 있다. 5년 동안 2장의 앨범을 내고 해체한 밴드치고는 그만큼 굵은 발자취를 남기고 있던 이들이다(2006년 재결합). '순례자의 정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번 음반 (Pilgrims Progress)는 음악적 순례자인 쿨라 셰이커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키델릭과 인도음악의 결합은 유지하되 속도감이 줄고 질감이 늘어난 모습이다. 아, 거 참 복잡한 밴드구나! 이번 자신 벨리 록 페스티벌에 온다고 하니 그냥 한번 들어보자. 당신도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될 거다.

PILGRIMS PROGRESS

쿨라 셰이커 (KULA SHAKER)





영건

MAXIMO 의리 남자들
세 남자를 만났다

이민



창수



나영



반갑다. 당신들의 소개를 팔막하게 부탁한다.

신인 가수 영건이다. 담담 파트는 따로 있다. 석재는 식탐이 있어 '음식' 을. 창수는 날씬해서 '몸무게' 를. 이민은 '180cm가 넘는 위너라' '키' 를 담당한다.

그럼 노래를 부를 때는?

발라드 그룹은 보컬에서 파트를 특별히 나누진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음반 커버를 봤을 땐 당연히 여자 그룹인 줄 알았다. 커버가 남자였다면 그게 더 식상하지 않았을까?

식상해도 MAXIMO는 남자보다 여자가 좋다. 가수로 데뷔한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사인 시디를 나눠 드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쉽게도 소녀시대처럼 훈훈한 걸 그룹을 만나지는 못했다.

균직한 가수의 컴백 시즌과 맞물렸다. 데뷔 타이밍이 썩 좋진 않다.

선배의 멋진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이돌 그룹은 많지만 우리처럼 정통 발라드 그룹은 찾아보기 힘들니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정규 음반은 언제쯤 내놓을 생각인가? 디지털 싱글을 3장 정도 발표한 후 올 연

말 즈음에 정규 음반을 내놓을 생각이다.

싱글 음반보다 밥은 먹고 다닐 만한가?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음반의 타이틀 곡만 기억한다. 정규 음반은 곡마다 만만치 않게 들리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은 싱글 음반이 더 낫다.

아이돌 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영건은 흥한 그룹이 될 수 있을까? 오 남자 그룹은 표절 사비에도 끄떡 없이 인기 기도를 달리고 있다.

흥한 그룹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표절을 해서까지 인기를 얻고 싶지는 않다.

당신들이 한창 총할 즈음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할 나이가 될지도 모른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갈 건 가야 하지 않겠나. 걱정 마라 영건은 곧 죽어도 군대를 간다.

스티브 유도 군대를 간다고 떠들더니 입영 날짜가 나오니 미국으로 튀었다. 우리는 스티브 유와 다르다. 군대는 꼭 갈 거다. 진짜다.

뮤직비디오에 티아라의 지원이 등재해 회재다.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다.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잘해줘서 고맙다. 사실 티아라 보다는 소녀시대가 더 좋대(웃음).

음악 이외에 즐기는 취미가 있다면?

영건이 말했다

영건의 라이벌은? 없다. 그런 거 없는데!
영건이 존경하는 선배 가수는?
신승훈. 그리고 최근 컴백한 바이브.
영건이 가장 좋아하는 걸 그룹은?
소녀시대(중에서도 유리).
영건이 최근 한 일 중 가장 꿈꿔왔던 일은?
MAXIMO와 인타부에서 버텨가던 것.



영건 (Vol. 1)

석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낫시를 좋아한다. 창수는 독서, 요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1084)를 읽고 있다. 책은 소장하고 있으나 보내줄 필요는 없다. 이민은 시간 날 땐 틈틈이 운동을 한다. 짐승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건장 때문에 하는 거다.

멤버 간 장단점을 속 시원하게 까발려 봐라.

창수는 음악적인 영감이 좋다. 이민은 막내답지 않게 든든한 녀석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싫다. 석재는 리더답게 말한 노력을 묵묵히 한다. 이제 갓 데뷔했는데 서로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좀 곤란하다(웃음).

가수로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작사, 작곡에도 도전할 생각인가?

발라드 쪽에 이르면 선배 가수처럼 되고 싶다. 가수로 지리 좁은 다음에는 작사, 작곡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MAXIMO 영건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우리는 솔직히 남자애한테 관대하지 않다.

영건은 '의리' 를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남자니까!

알겠다. 군대와 의리를 꼭 지키길 기대하겠다.

RATED MUSIC

AS 에즈원 ONE

MAXIMO 둘이 합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녀를 에즈원을 만나왔다.



1999년에 데뷔한 10년 차 가수다. 지금도 가수로 활동하는 게 즐거우니 궁금하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는 가수인 하고 싶은데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게 사실 버거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린 친구와 게임을 하고, 다른 출연자보다 눈에 띄기 위해 발뽀대치며 하는 상황이 많았다. 크리스탈은 2007년 즈음 미국에 돌아갔을 때 가수 생활을 완전히 접으려고 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음반을 내놓는 걸 보면 가수라는 업(業)을 여전히 즐기려는 게 아닐까(웃음)

유리상자는 음반 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들었다. 예전원은 어떤가?
가수 제이까지 우리 3인방은 뒀는지 항해하는 사이다. 회사에서 짝지어준 게 아니라 가수를 하고픈 친구가 함께 똘쳤다. 이런 똘 중 한 명이 따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의 사이가 됐다.

각자 보컬로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신선한 질문이다. 우리는 늘 둘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이야기를 주로 들었다. 일단 크리스탈은 다소 허스키한 음색에 인성적이고 부드러운 보컬이라 듣기에 편안하다. 반면 민이는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목소리를 가졌고, 요즘은 기교를 지체하는 편이지만 보컬로서 기교가 최고 수준이다.

유행을 좇아가기에 급급한 가요판이다. 예전원이 꾸준히 인기를 얻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니?
자주 안 나오고 2~3년 만에 한 번씩 얼굴을 비치기 때문에 아닐까(웃음) 사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 유행을 좇아간 적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가수에 비하면 그 정도가 덜할 뿐이다. 우리가 하고픈 음악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내놓은 싱글 〈Double Star〉에서 댄스 가수로 변신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
빌고 바로 그거다. 그 음반을 발표한 건 '예전원은 댄스와 맞지 않는다'를 보여주지 위함이었다. 실제로 그 음반은 그다지 흥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는 댄스 가수가 아닌 R&B 가수로서만 꾸준히 활동 중이다(웃음).

음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 지 궁금하다. 예전원의 노래는 늘 거울 뎀드는데 둘의 근황은 알 길이 없다.
앞으로는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수로써 버티기가 힘든 각박한 상황이다. 요즘은 SBS e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영어는 올림피아드 심해 차마 듣지 못하겠다.

걱정 마라. 우리는 K-POP이라고 쓰고 가요라고

읽는다면 듣다. 좋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좋은 노래도 듣고, 감사장사 영어 공부도 되니 썬 먹고 알 먹었다.

'나아길 배려요' '사랑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죠'를 비롯해 당시들의 노래 가사는 듣고 있으면 가슴이 편해진다. 본인들의 경험이 노래에 많이 배어 있는 건가?
배우가 늘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듯 우리는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에 감정을 실어 부르는 거다. 물론 1집 〈Day By Day〉처럼 우리가 직접 만든 노래는 당연히 우리의 경험이 배어 있겠지만. 경험만으로 노래를 만들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노래에 나오는 애절한 경험을 모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인들의 음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를 하나씩만 골라내면?
2집의 '싱가루', 4집의 '사랑했던 날처럼.'이다. '싱가루'는 지금도 기뻐만 든다며 이 노래로 활동하고 싶다. 희망이 생겼고, 피터팬이 날아다니는 기분 이 드는 즐거운 노래다. '사랑했던 날처럼.'도 꼭 한번 들어봐라. 우리 음악은 언제 들어도 촌스럽지 않으니 예전 음악을 추천한다고 놀라지 마라(웃음).

둘다 요즘 손을 잡고 다닐 사람은 있나?
크리스탈은 있고, 민이는 없다. 좋은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간 나쁜 남자만 만나서 이제는 좋은 남자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나를 웃게 만들어 줄 재치 있고, 귀여운 남자였으면 좋겠다.

둘다 요즘 손을 잡고 다닐 사람은 있나?
크리스탈은 있고, 민이는 없다. 좋은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간 나쁜 남자만 만나서 이제는 좋은 남자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나를 웃게 만들어 줄 재치 있고, 귀여운 남자였으면 좋겠다.

결국 옆에 두긴 싫단 소리군. 크리스탈의 이상형은?
됐다. 민이에게만 친절하게 이상형을 물어보는 센스라나 컷플이라고 차별한 거 잊지 않겠다(웃음).

둘의 평소 성격이 궁금하다.
예민! 지켜주면 더 이상 해람을 수 없다. 민이는 누구에게나 친사처럼 친절하고, 크리스탈은 친해지기 어렵지만 친해지기만 하면 뭐든지 퍼주는 스타일이다.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다. 팔로워 신청을 하면 받아줄 건가? 받아준다고 해놓고선 인터넷가 끝나니 안응답수 하는 사람 많이 봤다.
팔로워 신청과 동시에 승낙 오게이다. 각종 불이익에 따라, 우리는 트위터에 달린 글도 모두 답장해주는 사람이다. 둘이 함께 관리하는데 뎀이 2백 명 정도라서 그럴 필요도 아니다(웃음).

MAXIM 화보를 찍어볼 생각은 없나? 당신들이라

면 멋진 사진이 나올 거다.
가수 제이처럼 멋진 풍자라 미녀로 찍어볼 텐가? 우리 둘의 신체 킬링을 커버만 해준다면 대환영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MAXIM에 출연한 소감은?
우리는 미국 출신이라서 MAXIM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는 MAXIM에 등장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가끔 사생활만 사진은 물론이고 가사도 재미있었다. 한마디로 MAXIM은 맛있는 밥차 집이다. 최고다.

고맙다. 우리도 당신들이 최고다. 다음에 꼭 잡아오길 마약.
같이!
까야!

WANTED

예전원
Azone Season 1
네오윙즈인터랙티브



예전원은 과거 모 기업의 피아노 광고 CF처럼 '맑고 고운 소리'를 자랑하는 R&B 그룹이다. 데뷔한 지 10년이 됐지만 하나의 악기처럼 어우러진 그녀들의 보컬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3년 만에 내놓은 디지털 싱글 〈Azone Season 1〉은 여름에 어울리는 달콤한 사랑 노래 'SONNET'을 타이틀로 삼았다. 빌고 경제해 멜로디를 한껏 살린 예전원의 목소리는 스테리안 한여름의 우드위를 건디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삽입곡인 '눈물'은 'SONNET'과 달리 애절한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그녀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픈 이를 위한 노래다. 그간 무수한 가수에게 허울 뿐 사람이었던 오랜만에 우리 곁을 찾아온 예전원의 음반이 더욱 반가울 거다. 아쉬운 점은 딱 하나다. 2곡만 수록된 디지털 싱글 음반이란 사실 벌써부터 그녀들의 정규 음반이 기다려진다.

RATED FILM

이런데 내가
남에게 할까?

아저씨

군대 다녀오면 다 아저씨다. 원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BY 이영미

〈아저씨〉는 이렇다나?

혼자 사는 불쌍한 남자

사실은 무려 전직 특수요원

옆집 소녀만이 그의 집을 드나들지
그녀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러

누군가 소녀를 납치해

아저씨가 화가 나서 너를 붙여라 가.
근데 아저씨도 아주 착한 놈 아니었어.

당신 반응은 이렇겠지.

"시작부터 초 우물. 독거노인으로 혼자 놓고 병들어
죽기 전에 여친에게 씩씩 잘해이지."

"내 그걸 줄 알았어. 특수요원 없으면 영화 못 만
들지."

"완전 코미디잖아? 김산다. 집에 가서 숙제나 해"
"젠장. 이젠 원빈 보고도 아저씨라니 난 어쩌란 말
인가."

"역시 애는 번거로워. 정자를 소중히 아껴야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이 답답한 양반아"
"맞아. 112도 못 알는 아주 멍청한 사람이야."

한 마디로 이 영화는?



예고편
보러가기

(테이큰) + (레옹) +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를 해집
고 다니던 김도진(원빈) 본명의 병장 포스 + 당신 여
친 입에서 흐르는 침 + 원빈과 옆집 소녀와의 교감
- 그 교감이 부성(父性)에 기댈수록 실망스런 설정

= 결국 원빈의 미모에 킬릭, 니미릴, 젠장.

NO BRAINER

얼간이의 현연

우리가 사랑하는 (오피스)의 골 때리는, 아니 때릴 골도 없는 지
점정 마이클 스킵을 연기한 스티브 카렐, 그가 (얼간이를 위한
만찬이라는 영화로 돌아온다. 그를 맞이하기 전에 영화 속 모든 남
자 캐릭터보다 다들 덜 얼간이 같긴 하지만 말이다.



프랭크 드레빈
총알 탄 사나이(1988)

역스 세대의 배꼽을 지구 밖으로 날린 그는 바로 연기에 나이 제
한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당시도 최신판을 다하던 언젠가
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다



헤리 더글 로이드 크리스마스
덤 앤 더머(1994)

한겨울 두 남자가 스쿠터를 타고 달리고 한 사람이 없은 채 우중
을 싸서 두 동이 알뜰로 알아본은 정도는 돼야 배스시가 된다는
는 소릴 들을 수 있다.



데릭 쥘렌더
쥘렌더(2001)

세계 최고의 아바타로 모델로 나온 벤 스타일라의 오연 율스호
의 미모 대결이 대타이다. 이렇게 아바타들도 도대체 왜 뇌 같
은 게 필요하냐.



강두
괴물(2006)

4천 무자의 손님이 먹을 오징어 다리. 그것도 가장 긴놈만 골라
총쳐 먹고, 중학생 딸에게 빨대 굵은 맥주 권을 주고, 괴물이 쫓
아올 땐 단들 집 앞까지 손잡고 뛰는 얼간이 이별.

PREVIEW

이달의 신작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잡아 잡아! WORDS BY 김희성

1. 스텝업 3D

수많은 연스 영화의 참배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
는 시리즈가 바로 스텝업이다. 3편까지 나왔고 3D로 제작
됐으니 그 인기는 알고도 남을 만하다. 스텝업은 골라드 스
텝업 OST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정도로 음악가 같다. 일
단 땀뻘 땀으로 화려한 연스 베틀을 3D로 감상할 수 있
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예전에 삽입된 OST가 갖춰져 울
리는 모양새도 상당히 좋은 걸 보니 전편을 보기할 속편이
탄생할 조짐이 엿보인다. 얼마 전 내한해 자리를 권중세에
맞구 뿌리고 간 개미-개미 불로 리라와 더 배진의 음악을 실
컷 들을 수 있으니 귀와 눈을 즐겁게 해줄 영화라는 건 확실
하다. **8월 5일 개봉**

2. 심야의 FM

라디오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DJ 생연은 사이코
패스 동수에게 가족을 인질로 잡힌다. 방송 시간 10분 동안
가족을 구해내야 하는 생연은 무사히 가족을 구해낼 수 있을
까? 관객들의 시간과 영화 속 속도로 생중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라디오인도 긴박하기 때문이다. 이드 (4)에 연속
해져 놓이긴 관객에게 어떤 시간의 호흡이 였나? 먹
힐자는 미자수나 유자태가 많은 사이코 패스 역은 조금 기
대한다. 참고로 반전은 없는 영화라 쓸데없는 예측하러 친
배지는 말 것. 그저 편익이 많아 '우에는 절정에 빠지는 모
습도 예쁘구나' 하는 정도면 되겠다. **8월 6일 개봉**



3. 테이킹 우드스탁

바이올로 독 패스티엄의 계절이다. 끝내버린 독 패스티
엄에 대한 미련을 달랠 영화가 당상을 찾아왔다. (색계
와 (보로박 맥 미운던)의 이란 감독과 맥이 만나 (테이킹
우드스탁이라는 독 패스티엄의 탄생 스토리를 그린다.
부도없이 파산 직전에 처해 전 재산인 모안을 남기기 하
는 처지가 된 얼간이가 모델 광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 패스티엄을 유지한다. 아무런 골도 준비한 패스티
엄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로 바뀐다. 각종 독 패
스티엄의 전신시 도입되며 심지어 미국 문화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우드스탁 패스티엄의 탄생 과정을 다룬
실화다. **7월 29일 개봉**

4. 슬트

리사야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침투로 의심받게 돼 OA
요원 슬트가 조국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음모 세
력에 맞서는 액션 스릴러다. 당시와 연거늘을 모두 갖
춘 안젤리나 졸리가 슬트 역을 맡아 어려운 액션 장면에
를 대역 없이 훌륭하게 소화했다. 원래 슬트 역은 톰 크
루즈에게 먼저 제안했으나 톰 크루즈는 이를 거절하고
(4:28(레오))를 택했다. 그 뒤에 주인공 생생까지 톰페
르 바린 (슬트)는 대역적인 사:노로 수경 직업을 거쳐
이전보다 더 매력적인 '슬트' 로 대타였다. 아예 톰 우리
에게 더 잘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7월 29일 개봉**

트레일러너 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트레일 러닝화

2010년 트레일 러너 매거진은 획기적이며
뛰어난 지지력과 피로완소를 가진
'라브너스'를 최고의 트레일 러닝화로 선정



무료 중장
이벤트



더 가볍게, 더 빠르게 두발에 딱 맞는 자신감



Men's Ravenous™ BM3996: • 초경량 트레일 러닝화 • 맞춤형 착용감 및 안정감을 제공하는 3D 테크라이프 시스템 • 뛰어난 합치력을 제공하는 홀디그립 기술
• 트레일 러닝 전용 라스트 • 트레일 러너 매거진에서 Editors' Choice Best Debut 수상 • 독일 프리드리히스한 아우토어소에서 디자인상 수상

Columbia
THE GREATER OUTDOORS

풀 포 러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BY 김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연극은 보고 싶은데 무엇을 봐야 할지
 라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나? 당신이 연
 극을 꾸준히 봐오던 사람이 아니라면
 소극장에서 연극배우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여기에 TV나 스크린에서 만나는 배우
 가 있으면 금상첨화. 이 둘 모두를 만
 족하고 스토리마저 당신의 입맛에 맞
 는 연극이 여기 있다. 연극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풀 포 러브〉. 당신
 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늘 고민
 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
 야기를 다뤘다. 여기에 하나 더 볼 때
 마다 유재태가 미워지는 김효진(개그
 우먼 아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김정
 화 2명의 여배우가 펼쳐는 진한 키스
 신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당신
 이 〈풀 포 러브〉를 볼 이유는 충분하
 지 않은가?



이달의 공연
 보러가기

폴 포 러브



연극 (폴 포 러브)

연제 7월 6일~9일 12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4시 7시 / 일요일 오후 3시 6시 / 월요일 밤
 어디서 3M 아트홀
 문의 02-744-6700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갈등은 남녀의 사랑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폴 포 러브>에서 주인공 에디와 메이는 서로 사랑하는 이복형제다. 에디는 메이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곁에서 사랑할 수 없어 떠나고, 메이는 에디 때문에 괴로워 곁을 떠나고 싶지만 사랑하기에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둘은 공연 내내 서로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다. 하지만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는 건 이런 지극단박한 싸움이야말로 사랑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사실 <폴 포 러브>에서 에디와 메이가 싸우는 건 사랑에게 숨어 있는 양상의 자아가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 필요는 없다. 아차피 사랑이란 건 각기 다른 존재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순간의 연속이니까 말이다. 지금 당신도 커피이 되면 젤라 콜이 흐르는 낙원으로 고고상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막상 커피이 되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흑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알겠나? 당신은 지금처럼 솔로일 때가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대영).

출연 배우



박관형

뮤지컬 배우 박관형은 덜고 달았지만 연극배우 뮤지컬은 승털이 보송보송한 햇병이다. 하지만 영화배우보다 뮤지컬 배우로서 연식이 오래된 배우답게 호흡이 긴 연극에서도 매끄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동혁

조동혁은 <폴 포 러브>의 대본을 그대로 무대에 옮기는 사나이다. 정식 연기를 펼치는 만큼 원작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려내는 연기를 선보인다. 다만 너무 장식적이어서 연극에서 맛볼 수 있는 증중연기를 만나보는 맛은 없다.



한정수

투박한 외모답지 않게 연기는 자연스러운 편이다. 대신 발성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연극 초반에는 그의 대사를 듣기 위해 귀를 뚫고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매화 조금 씩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한마디로 애드리브를 중시한다).

김효진

영화배우답지 않게 연극 무대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특히 그녀는 메이의 그늘지고 양갈진 모습을 100%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연극의 긴 호흡을 이어가는 데는 여전히 서툰 모습이 남아 있지만 연극배우로서 김효진은 매력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화

그녀가 연기한 메이는 김효진이 연기한 메이고 달리 힘이 넘친다. 한동안 TV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김정화는 이번 <폴 포 러브>에 출연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동안 늘 2% 부족함이 느껴졌던 연기가 한결 매끄러워진 게 눈에 뵈 정도다. 네 일 발류는 김효진이 압도적이지만 김정화의 <폴 포 러브>도 충분히 찾아볼 가치가 있다.

뮤지컬 (그리스)

참고 영상만 그들은 언제나 반강이다.



연제 7월 3일~8일 22일
 해(토요일) 8시 / 금요일 8시 4시 / 토요일 3시 7시 / 일요일 3시 (월 밤)
 어디서 타임스퀘어 OGV 아트홀
 문의 02-501-7688

먼저 참고 넘어가자. 뮤지컬 제왕인 (그리스)는 우리나라 뮤지컬 무대에서 붉은 그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당시들이 머리에 바르는 왁스처럼 180년대 미국 청춘들이 머리에 바르던 '그리스(Greece)'를 말하는 거다. 여지천후와 몸 품고 뮤지컬을 보러 가서 그리스 신화 운운했다가 개방신당하는 일은 피하도록 원래 (그리스)는 스타 등용문으로 유명한 뮤지컬이다. 오만석, 임기훈, 강지현 등 (그리스)를 거쳐 간 스타는 손으로 꼽기도 힘들다. 내용은 간단 하다. 하세 둘은 캣워크링 대-와 손수레 샌더의 일곱살 러브 스토리다. 하지만 (그리스)의 진짜 매력은 참고 영상만 넘겨 배우의 군무를 보는 데 있다. 귀여워 숙한 03. 지미 니터도 볼 충원거리며 어깨춤을 뽐내다 보면 딱딱한 한살에 딱 딱한 가슴이 흥 풀리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이 직접하고 싶은 그대와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세요. 그만이다.



2010 <아이스 발레>



연제 신데렐라 8월 5일~8일 / 정자는 숲 속의 공주 8월 10일~12일 / 영일 오후 3시 7시 30분 / 토 일요일 오후 2시 6시 8월 6일 월요일 공연 함
 어디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1544-6399(YES24), 02-580-1300(SAC티켓), 1544-5559(인터파크), 02-548-4480(예술기획)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한 당신의 기억 속에 이 장소 (신데렐라)와 (정자는 숲 속의 공주)를 소환해보자. 상상 속에서 맘을 필요로 했다. 2010 (아이스 발레)에서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 선수들이 펼치는 아이스 발레 공연을 통해 그 시대의 감동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아이스 무대 최상의 경험을 위해 공연장에 24시간 내내 발라를 가동한 덕분에 공기가 수분을 잔뜩 머금었으니, 스케이트 날의 세밀한 소리가 귓전을 파고드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보습에도 효과적일 거다. 이만하면 얼음과 피사지로 풍지 아니하구나.





데드라이징 2

당신의 게임 불감증을 치료할 녀석이 등장했다. BY 김상현

게이머 사이에는 워크이라고 쓰고 외계어라고 읽는대로 참원형 A급 게임보다 한글화된 B급 게임이 더 재미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한글화는 게임성과 직결하는 중요한 요소란 거다. (데드라이징 2는 A급 액션 게임이 한글화까지 되었으니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셈이다. 이제 무적형 중점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도 알아가려 준비를 차치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사오오 허드즈)가 준비의 난데없는 공격에 게이머의 강담이 사들해지는 서스펜스 도미블

잘 생각하면, (데드라이징 2는 1만 명에 가까운 준비를 대량 학습하는 미칠광 진두의 총패권을 멋지게 뽑아냈다. (데드라이징 2를 권히 액션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여기에 북이 무상재 바친이 까칠한 국내 상의를 무사히 통과해 올가을 Xbox 360과 PS3로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당신의 게임 불감증을 한 방에 치료해줄 짐승이나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두자. 진정한 하드코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기준	PS3/ XB360
제조사	캡콤/캡콤엔터테인먼트
장르	액션
발매일	가을 예정
가격	가격 미정

트랜스포머: 워 포 사이버트론

원작 팬은 바로 이런 게임을 기다렸다.



〈트랜스포머: 워 포 사이버트론〉은 저작권을 가진 하스브로사가 참여해 두 진영의 치열한 개싸움을 생생히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상황에 따라 각 진영의 다양한 로봇 조종이 가능하고 자신만의 로봇을 만들어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장한 각 로봇이 때로 등장에 박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기

기준	PS3/ XB360/ PC
제조사	하이 로 소프트
장르	액션 어드벤처
발매일	7월 7일
가격	9255원 (PS3/XB360)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Wi

이 맛에 정말 Wii를 버리지 못하는 거다.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최신작이 정식 발매된다. 즐길 만한 소프트가 없다는 이유로 애플단지 취급을 받아온 Wii가 개싸움을 그만 먹은 때가 된 거다. 배관공 아저씨가 출연한 게임 중 재미없는 게 있던가? 당신은 게임을 지를 충일을 마련하는 데만 정신을 집중하자. Wi 불려 버전도 동시에 발매되니 Wii를 지니지 않는 한국인들도 꼭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이었다면 지금이 찬스다.

기준	Wii
제조사	한국닌텐도
장르	액션
발매일	8월 7일
가격	4255원 (원)

나루토: 키즈나 드라이브

나루토나. 몬스터 헌터나?



〈나루토: 키즈나 드라이브〉는 〈몬스터 헌터〉의 스펀이 느껴진다. 4인 소대 플레이를 지원하는 거지만 누가 봐도 이젠 〈몬스터 헌터〉에서 합동 플레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아류작으로 폄하하기엔 원작 스태프가 감수한 스토리와 다양한 캐릭터를 조작하는 재미가 기대 이상이다. 한글화가 아닌

기준	PSP
제조사	판다니얼소프트
장르	액션
발매일	7월 16일
가격	4255원 (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싸우야 할 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지

BY 박상현 IMAGES BY 원진소

당신과 당신의 웹툰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한다.

네이버에서 《싸우자 귀신아!》라는 웹툰을 연재 중이다. 귀신 만화인 주제에 웃음기가 듬뿍 들어갔다.

웃긴 대학이란 사이트에서 유머 작가로 활동했다고 들었다.

2004년 고교 시절에 유머 작가로 활동했다. 친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코믹 만화를 주로 그렸다.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댓글과 프래다사인지 인기가 많았다. 요즘은 혼자 웹툰 작업을 하다 보니 유머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유머를 하나 소개해달라.

웃긴 대학(거칠기가 디자인사이드 및 지팡이)에서 겁도 없이 자신의 얼굴을 인종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유유를 먹고 나면 입에서 똥내 나게 생겼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걸 보고 혼자서 배꼽 잡고 3분 동안 미친 듯이 웃었다. 실제로 그렇게 생긴 얼굴이었던 말이다!

〈결례라는 웹툰으로 개님 작가〉

재작가? 라 불렀다. 동료 작가는 날 '직립견(견어다니는 개)'이라고 부르네. 개님과는 담 쌓고 자낸 지 오래다. 난 웹툰계의 재간둥이 정도라는 평이 딱 어울린다.

〈결례〉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궁극해하는 웹이 많았다.

실화는 아니지만 모티브는 있었다. 스무살 때 만난 고등학교 여자친구의 경험이 녹아 있다. 쓸쓸한 추억이라 내막을 밝힐 순 없다.

〈결례〉의 영화 판권 계약도 했다고 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상화 판권을 팔아 먹었다. 그런데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판권이 다시 돌아왔다. 조만간 〈결례〉의 고퀄리티 리메이크를 기획 중이라 영상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작의 주제가 무거워서 이번 작품의 주제를 고르는 데 고민이 많았겠다. 고민 따윈 없었다. 새로 구매한 컴퓨터용 작업 도구의 사용법을 익힐 겸 코믹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코믹가 사람들에게 먹혔다. 팬이 적잖이 생겨서 중간에 연재를 끝낼 수

없었다. 정식 연재에는 진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팬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개그도 섞었다. 덕분에 장르 불문 만화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으며 연재 중이다.

그렇게 말하기엔 《싸우자 귀신아!》에서 현실감이 잘 묻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과 투쟁한다. 나 역시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울증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조증일 때는 현실에 휩쓸려 사람과 이루어질게나 섞어 살았고, 우울일 때는 타인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스스로 상처받으며 자내 왔다. 그런 시절의 기억이 주인공을 통해 표출된 게 아닐까?

그림체가 웹툰답지 않게 수려하다. 출판 만화에 도전할 생각이 없나? 출판 만화 작가와 비교하면 생활의 피 수준이다. 이걸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이 넘치지만, 그림꾼으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은 노력에 필요하다.

얼굴도 준수하고, 그녀는 작품마다 개명이 넘친다. 솔로 부디(릴라가 없잖?) 그렇게 봐준다니 고맙다. 질문한 에디터가 여자였더라면 사랑했을지도 모르겠다(하하하하).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쓰고 솔로 부대라고 읽는다.

본인 성격을 솔직하게 깨달아버라. 《싸우자 귀신아!》의 봉합이다. 나처럼 (반?) 조울증 캐릭터다. 주인공은 누구나 보다 진지한 실리 묘사가 필요하지 않기에 작가의 성격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 임인스는 곧 봉합이다.

MAXIM처럼 온몸이 달아오르는 웹툰을 그릴 생각이 없나? 군대 시절 MAXIM은 희망이지 낭만이고, 흥분 그 자체였다. 불러만 좋다면 영광이다. 다만 지금은 짬이 나지 않아서 양다리는 염두가 안 된다. 4컷 만화 정도면 고민해볼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MAXIMO(민?)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HIS CHOICE

임인스의 추천 작품

당신의 잉여 시간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리라.



잉여엔 연애라

▶ 웹툰

〈타이밍〉 강률

He Says 웹툰의 전설이 아닌 레전드. 웹툰 연출의 기본.

〈위대한 캐츠〉 강도하

He Says 감성적 작가의 창작열을 볼 때유게 만든 작품

〈연옥보 보고 계사〉 연옥

He Says 20대의 고뇌를 한 큐에

▶ 출판 만화

〈슬램덩크〉 작가

He Says 문답무쌍

〈연반캐리온〉 작가

He Says 연노 해피카는 나의 또 다른 아버지

〈베르세르크〉 작가

He Says 남자라면 토타도를 수색해

▶ 영화

〈쇼생크 탈출〉 팀 로빈스

He Says 레전드의 레전드

〈협오스르온 마르코의 인생〉 작가

He Says 정말 길게 길게 협오스르온

〈대부〉 작가

He Says 모든 누아르의 교과서



이 정도면 그림체

작품 소개

《싸우자 귀신아!》는 귀신과 티마시의 최후를 위한 승부를 다루고 해를 고신 장로 명영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작품이다. 포털 사이트 배너와 블로그 웹툰에 연재 중이다. 작가의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inshe23 이니 궁금하면 찾아볼 것



〈결례는이러저러로 10대의 성 문제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다룬 웹툰이다. 읽고 나면 임인스라는 작가를 배려하느라 '개님 작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다. 대신 내용이 다소 무거우니 웹툰은 그저 깔깔대며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추.

좀비 소설

좀비를 꼭 영화에서 만나야 하는 건 아니다. 좀비 얼굴이야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잖아? by 권희성
 IMAGES 좀비가 돋보이는 책(Dreamtime.com)



맥스 브룩스
《세계대전 Z》
 황금가지



좀비계의 수작

그동안 책은 좀비 영화는 대부분 인간의 생상을 노리는 공주린 좀비와 이를 저지하려는 인간의 대결 구도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었다. 좀비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액션이 좀비의 모습도 멋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세계대전 Z는 기존의 좀비물과는 조금 다르다. 소설은 이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뒤 좀비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활거고, 빨고, 피르는 하드코어한 액션이 주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좀비 바이러스로 퍼져 살아남은 생존자를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두루 형식대로 국가 권력을 신랄하게 비판 코믹하게 풍자한다.

그렇다고 해서 좀비를 특유의 재미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작품은 사실적 요소, 골한 문체로 좀비로 뒤덮인 세계를 매우 현실감 있게 그렸다. 미국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당점당 50주간 전영 부문 1위를 차지하고 브래드 피트가 영화화했다. 다 나설 정도로 대중적인 주목을 받은 작품이나 좀비물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읽을 만한 일화 거다.

구현
《대화로 좀비 습격사건》
 휴먼앤북스



일상이 기괴함으로 물든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은 매우 드물다. 그나마 몇 안 되는 한국 좀비물도 우리나라의 이름 모를 송이나 어근지 당 죄할 수 없는 한련련 로망 배경으로 설정했다. (대화로 좀비 습격사건은 리아드, 브루클린 따위의 지명이 아닌 '대학'로 한복판에 좀비 떼가 출현해 그 일대를 아슬아슬로 만든다는 설정으로 매우 익숙한 일상 풍경을 기괴하게 느껴주도록 만들었다.)

키프카의 《연산》에서 비류벨로 변한 주인공이 무감각해진 일상을 평소와 다르게 지각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좀비'의 출현이 일상을 낯설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싷한 공포와 좀비물 특유의 하드코어를 잔뜩 가세한다면 다소 심할지도 모른다. 《Z주주》, 《해의 저주》 같은 기존의 좀비 영화와 스토리 라인은 비슷하지만 하드코어는 빠고 유머를 가미했기 때문이다. 술을 남기지 않는 책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 없는 당시의 집주머니 크드로 낯설어지는 오싷한 어원이 가득하고 있음에도 모른다.

세스 그레이엄 스미스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해님출판사



《오만과 편견》에 좀비만 더했다.

제인 오스틴의 고전 《오만과 편견》에 좀비가 추가됐다. 작가는 영국의 문장은 그대로 두 체 좀비를 등장시켜 사랑과 질투로 갈등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유머와 흥미진진한 결투 이야기를 더했다. 배경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영국이다. 마음에 알 수 없는 액션이 들고 좀비들은 무덤을 거어 나와 사람들의 뇌를 먹는다. 백작이 자택의 아바지는 자신의 다섯 딸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동서양의 무술을 가르친다. 엘리자베스와 네 자매는 좀비 사냥이 되지만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오직 딸들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 이 이야기 지루해질 만하면 좀비가 하나씩 등장한다. 기존 좀비물에도 그렇듯 이 소설에서도 좀비는 아무 이유 없이 불쌍 나란다. 《오만과 편견》을 좀비물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발상 자체가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상상의 저위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어쨌거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는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게이머만 만들어져 엑스투어에도 등장했다. 이 책의 상업적 성공이 단순한 좀비 효과에만 기인하는 직접 일화 판데보컬 비한다.

J.L. 본
《허위하루가 세상의 종말》
 황금가지



차라리 좀비가 되고 싶어.

이라크전과 각종 테러전에 잠긴 해군 장교가 좀비물에 손을 댔다. 허위하루가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온라인 연재 소설이다. 좀비 물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의 끔찍한 삶은 1월 1일부터 무려 150일 동안이나 계속된다. 허위하루의 사투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마치 진짜 일기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한날장 넘치는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좀비의 습격을 받을까 가슴 졸이며 살아나니 차라리 좀비로써 감당해 엔드가 되는 게 백 년 못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책이란 존재에 극도로 감동을 이만한 당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오싷한 일이지.

IT'S YOU

좀비 백과사전

일편 미수족 더 알고 싶으시는 좀비들의 양식을 알려.

좀비 탄생 공식

나루 속에 숨어 있다가 무명비 상테의 여 행자를 먹어치우는 가의 도도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잠겨 참판해 긴 손톱을 이용해 짐승의 힘을 비를 뽑는 좀비 탄생 속도로

= 비를 거머쥐는 검은 존재 좀비

좀비 만드는 법

말썽한 시체를 좀비로 만들고 싶다면 좀비 가루를 사용한다. 좀비 가루는 명목상 아무인 동물이나 죽어 있는 동물과 같고 사시히 죽음과도 같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만든다.

그러나 《앤드 백과사전》에 따르면 부두 교의 주술사들이 쓰는 법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발견되는 법이 없

으며 마법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된 분말의 생물을 용해 입수해 과학적인 분석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고 한다. 어쩌라는 거야 없나만 못하잖아

가장 위험한 좀비

로그랑 좀비는 거대한 비엔나군1 특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 주술사들도 자주 불러주지 않는다. 능숙하고 강력한 마법사만이 로그랑 좀비를 부를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라넷을 때는 오히려 자신을 불러낸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독한 녀석이다.

좀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앤드 백과사전》만 커린 저음책/생물을 참조해 좀비 알고도 행하여 누리꾼과 외산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도 가득하다.





하경영 인터뷰
더 보러가기

로맨티스트 허본좌

하경영은 이렇게 말했다. "내 인티가 되면 멸망할 거야." BY 김연희 ILLUSTRATION 장영민



당신에게 24시간이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일반 인간들이랑 달리 10차원을 살아. 그래서 나한테 시간 개념은 큰 의미가 없어.

10차원에 사는 당신은 인간들과 무엇이 다른가?

난 한 살 때부터 유체이탈을 했어. 지구 밖 우주에서 나는 창조주와 대화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 10분밖에 안 걸려. 빛의 속도를 초과해서 갔다 오니까 이젠 내가 10차원에 살아서 그래. 또 사람들 세포 속에 들어가 병을 고쳐줄 수 있어. 그게 0.1초도 안 걸려. 눈앞으로 고쳐. 예전도 할 줄 알지. 이번에도 내가 대한민국 106강 잘라고 예언한 게 맞았어.

이번에 월드컵 응원가 "붉은 천사"를 불렀다.

참 안타깝지. 내 이름만 불렀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 이름을 안 불렀어. 그래서 8강 못 갔어.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죽나?

난 지구를 고치러 하늘에서 내려온 지구 수리공이야. 내가 죽는다는 건 다시 하늘로 간다는 뜻이었지. 육체는 가지고 가. 예수가 죽을 때 육체도 같이 사라졌어. 원래 나처럼 도를 깨달은 사람은 올라갈 때 육체를 가지고 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왔나?

중랑교 다리 밑에서 태어났지. 한 살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다 기억해.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죽으니까 날 지켜주는 12명의 천사가 푸른빛을 내뿜으면서 뺨을 칠라주고 나를 어머니 배 위에 올려놔. 얼어 죽지 말라고. 어머니도 실려했지. 그 천사를 지금도 내 옆에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살 수 있나?

인간들은 100세이면 죽는다는 최연이 걸려 있어. 그래서 죽는 거야. 원래 인간 수명은 360세야. 이걸 최고 3배 더 연장할 수도 있어. 그러려면 내 이름을 불러야 해.

360년 이상을 산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

300살이 되면 도인이 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예를 들어 부신에 나타났다가 서울에 나타나는 도술을 부릴 수도 있어. 360살로 죽을 땐 나처럼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그 도술 한번 보여달라.

이걸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 우리나라 첩보기관이나 CIA에서 안 좋게 봐.

당신이 세계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일과 오바마 대통령을 텔레파스로 조정하겠지. 지금은 내가 일부터 안 해. 공로가 현 정부에 가 버리니. 내가 했다는 게 표시 안 나잖아.

정치와 연예 활동 중 하나만 고르신다면?

정치는 국민들 즐겁게 해주면서 소통하는 거야. 그래서 연예가 곧 정치야. 대통령이라고 랩 정도 할 줄 알아야지. 대통령이라고 목에 침만 주면 가족들 다 불행해져. 취임식 때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해. 나는 "꽃미"를 부를 거야. 젊은 예능이랑 음로수 손에 들고 춤추면서 스탠딩 파티를 벌이는 거지.

당신이 천상으로 가면 지구는 어떻게 되나?

2012년에 종말이 와. 내가 거기 막으러 왔어. 천한 명 이상이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면 종말이 안 와. 그래서 "꽃미"에 내 이름을 많이 넣은 거야. 내가 오늘 천상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천상으로 다른 대책을 세울 거야.

안티가 은근히 많다.

그러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야. 대권 주자 중 한 명이지 시를 보내. 나한테 안티를 보내는 사람은 결국 그 집안이 망해. 이상한 병에 걸려 멸망하는 거야.

가기 전 인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하경영을 부르면 죽지 않는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

방울토마토.



허본좌의 여자 여자 여자

하경영의 첫사랑

이작은 노코멘트. 빅00인차 천상의 여인인지는 조만간 그의 책에서 밝혀질 거란다.

하경영의 이상형

천상의 여자를 이대기정 중요. 꼭 유골 손으로 본 다. 작은 얼굴. 키는 160cm 이상. 날카로운 김수정의 소유자.

그림 참조 / 하경영이 직접 그린 그의 이상형



하경영의 인기 비결

창조주와 동일한 XXXY 염색체 구조. 이를 어찌 알고 어지름은 하경영을 보면 비명을 지르고 달려든다.

하경영과 그레이스 켈리

죽기 3일 전에 하경영을 찾아와 "신생님. 저 겁니다." 하고 예외적으로 인사한 배우. 하경영은 당시엔 누구진 몰랐는데 알고보니 유망이였더라고 칭애부서 가장 인생제기였다고 밝혔다.

표절:

과잉 상업성이 부르는 재앙

이효리의 음반 (H-LOGIC) 수록곡 다수가 표절로 드러나면서 표절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도대체 왜 대중가요계는 표절의 늪에 빠졌을까? 임진욱이 말하는 표절공화국 대한민국

WORDS BY 김원익(나스틱 임진욱(www.izm.co.kr))
IMAGE 제이노(Dreamstime.com)



다시 표절 문제다. 이번은 당시자가 인기 최고봉의 예식 작곡가 이효리라서. 또한 그한테 표절 씨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파장과 충격은 비할 수 없이 거세다. 현재 이효리 측이 자신에게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지만 여전히 시름들은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바누스 같은 사기 행각이 가능했을까' '왜 이효리 측은 처음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했을까?' '표절은 그토록 민감한 가수가 왜 바누스 곡에 대한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을까?' '작곡가만 최고 과잉 이효리는 누구인가?' 등등.

이번 음반 작업과 관련해 바누스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미 이효리의 신보가 곡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기대하지 않았다가 막연에 자신의 곡이 채택되어 녹음이 가능해졌다. 이게 사실이려면 이효리는 다른 어떤 곡보다 바누스의 작품을 더 히트 가능성을 두고 주도적으로 선곡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이번의 경우, 자신이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음반 작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전체를 관할한 이효리에 있다. 그래서 이효리가 이번 사태에서 단순한 피해자의 위치로만 머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분명 프로듀서 이효리와 작곡가 바누스 사이에 긴밀하고도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뤄졌다면 표절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남의 곡을 도둑질하고도 본인의 창작이라고 강변한 바누스에게 지워야 마땅하다. 이따미어하게 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곡이 표절인지 확인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작곡가의 말, 그의 앙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음악계의 현실은 결코 작곡가의 주장과 앙심으로 답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작곡가도anyi 위해서는 감각적인 후크 송이 편지는 현재 유행 패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 개성으로 곡 쓰기가 초저렴 쉽지 않다. 오로지 히트 가능성이 전부다. 그러다 보면 히트가 더 확실한 남의 기존 작품을 흉차려는 유혹에 놓이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 작곡이 어느덧 예술이 아닌 비즈니스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가리킨다. 근대 예술가들이 모여 회사를 차리고, 기획사를 상대로 곡 팔기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다. 철저히 상업화한 가요 풍토가 순수해야 할 작곡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표절은 국내 가요계의 과잉 상업성이 부르는 재앙이다.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왜곡 풍토에서 '예술형 작곡'은 퇴락하고 '생계형 작곡'이 고개를 쳐들었다. 자기만의 개성이 시장에서 대우받는 환경이라 하면 작곡가 그러한 변칙을 구사할 필요는 없다. 작곡 부문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표절은 원작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친고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아무리 상당 부분을 빼갔다고 주장해도 원작자가 문체의 곡을 듣고 그 정도는 그 사람의 창작이라고 여기면 표절은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의혹이 상대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고 원작자가 한두 마디가 자기 곡과 비슷하고 그 부분이 결정적이라면서 소송을 걸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표절은 따라서 작곡가의 문제다. 작곡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가수와 제작자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이효리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은 분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작곡가와 프로듀서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효리도 프로듀서로서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본인의 명예 실추만큼 가요계의 신뢰도 추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 이 점은 본인도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표절 인정에 따른 음반 활동 중단이 도덕적 책임의 전부인가. 이효리는 표절 사건 이후에도 TV 예능프로에 출연해 특유의 눈웃음을 뿌려댔다. 반성과 자숙의 기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과거 표절 씨비가 오른 가수는 김민중의 예처럼 은퇴와 같은 초강수를 두거나 상당 기간 매대에서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팬 케미에 표절을 인정하는 것이 월드컵 한국과 나이지리아전을 앞둔

시합자는 사실 또한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활동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렀다는 점에서 상쇄하지 않다. 도덕적 해이 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사실 음반 녹음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과거 10곡이 넘는 앨범의 경우 스튜디오 녹음만 1년 이상이 걸리곤 했다. 이효리와 같은 말티 플레이어 슈퍼스타들에게는 이러한 물리적 시간이 태부족이다. 표절로 시달린 전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는 싶지만 작곡가와 대화를 비롯한 '몰입' 시간이 충분할 리가 없다. 이번 표절 사태는 음악 작업이 예나저나 배본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닌 '전면적'으로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작업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표절과 관련해 가장 반박하게 등장하는 의견이 '차라리 표절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은 표절이 친고죄인 이상 가능하지 않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야 성립하는 죄이므로 특별한 표절 기준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기준을 마련해놓는다면 일각의 작곡가들이 그 기준을 피한 채 남의 것을 도용하는 부작용이 속출할지도 모른다. 과거 1970~80년대 공판(공연예술리위원회)이 표절 기준을 마련한 통에 그것을 악용한 작곡가들 사이에 더욱 표절이 횡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실은 결코 나쁘지 않다. 네티즌이 표절 감지서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곡이 조금 이상해도 누리꾼의 레터마당에 걸린다. 인터넷 환경은 법적 표절 원칙을 확립하는 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럼에도 최종 개선책은 작곡가의 양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작곡가들은 기속하며 가요계의 과잉 상업성 풍토가 먼저라고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소위저자들은 음을, 개성적이고 창의적 음악을 찾지 않는 한 표절을 막을 수는 없다. 공산품이 아닌 예술품이 사명받은 남의 곡 도둑질은 절로 사라질 것이다.



2010년 8월 독자 모델

김신애

그녀가 괜히 구두 소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었다. 늘씬늘씬한 허다리를 뽐내면서 걸어 들어오는 자태에 MAXIM 스타트업들은 무릎을 꿇었다!

BY 김해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펄린 MAKE-UP 은재성용 부지 STYLING 조경진
COOPERATIONS Calvin Klein underwear, adidas Originals(02-3447-7701)
Papaya(02-2138-7769) COLLECT-Z(02-3443-1703)



촬영장 엿보기



나는...

여성 구두 소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스물다섯 살의 느낌 있는 여자다.

남들은 모르는 내만의 약점이

무언가를 적는 걸 좋아한다. 오늘 할 일 혹은 어제 산 것, 어제 먹은 것 등등 수시로 적는다. 반복해서

이런 남자라면 변호 출수 있다!

당당한 남자. "제가 아까부터요..."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말을 꺼내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 없어 보인다.

내 물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곳

하리에서 힘이 연결되는 부위다. 여자는 라인에 생명이 없다.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신체 부위

어게 공교롭게도 이제껏 만난 남자들이 비슷한 유형이다. 그때 느꼈다. '아, 내가 어째서 보는구나.'

내 볼 수 있는 곳

집, 휴대와 종로의 술집 난 '이슬이'를 사랑한다.

MAXIM 독자들에게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즐겨라. 소핑몰 '느낌적인 느낌' (www.kkim.kr)도 많이 애용해 달라. 너무 상업적인 멘트인가? (웃음)

BEST vs WORST

최고의 타이트
작년 7월 2일 성암경기장에서 FC 서울과 팬유 경기를 관람한 것.

최악의 타이트

쇼핑에서 나보다 더 피부가 허얀 남자가 나와서 내 소핑에서 이것을 팔고 무 다 보았다. 더운 날 대롱뭇가 싫어하는 것을 팔고 무 영영화 별로 인 줄이한다고 말했더니 값을 구우려고 영영화 별로 인 줄이 없다고 보는데도 굳이 엑스맨 최후의 전쟁 티셔츠를 팔더라 보다가 됐다.

최고의 선물

작년에 받은 지갑

최악의 선물

없다. 선물은 다 좋다. 날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BELKIN
F5L001**

여름에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게겐 발열은 스트레스의 근원이다. 키패드는 열 때문에 뜨거워지고, 팬이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가면 노트북은 바퀴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답답함을 넘어서 두경이 열리는 건 시간문제다. 그러나 노트북 전용 쿨링패드 하나쯤 장만해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벨킨의 F5L001처럼 노트북 스탠드도 겸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금상첨화. F5L001은 7° 정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어 타이핑할 때 손목의 부담을 한결 줄여준다. 노트북의 USB 전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 초미니스케터나 핫팩처럼 입은 애인에게 '자기가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사용하다가 고온 피부에 화상이라도 입을까봐 걱정해서 장만했어'라는 게드립을 치며 선물하면 효과 만점이다. 아, 그리고 보니 당신은 그런 여자가 없지? 미안하다. 그럼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해 선물하라. 적어도 노트북은 기뻐해줄 거다.

문의 www.belkin.com/kr 02-558-7667
가격 3만 원

이이브리 컬러의 시몬 햄마스 skg-ii
블랙 끈의 베이지 언더웨어 SEXYCOOKIE
베이지 컬러 슈즈 DONNICHET



TARGUS
PRESENTATION

프랙텐테이션할 때 레이저 포인트와 마우스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일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도중에 프랙텐테이션의 흐름이 끊어져서 사람들의 집중력이 개판 5분 전으로 변한다는 데 있다. 대학교나 회사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라면 타거스의 프랙텐테이션 리모트를 지르는 걸 고려해보자. 레이저 포인트와 마우스 기능은 물론, 리모트의 버튼을 잘못 눌러 프랙텐테이션 화면에서 빠져나오는 난감한 실수를 막아주는 키 잠금 기능도 탑재했다. 마우스 모드로 설정하면 조이스틱으로 실제 마우스와 동일한 조작도 가능하다. 수신 거리도 최대 5m에 달하고, 맥과 윈도우 OS 모두 지원하는 훌륭한 녀석이니 질러도 후회는 없을 거다. 그렇다고 발표할 일이 하나도 없는 관동이나 채워생도 미친 척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면 소리는 아니나 오해하지 말 것

문의 www.targus.com/kr 02-2589-3200
가격 7만9천 원

MUST HAVE ITEMS

이달에 질러야 할 아이템을 골라주겠다. 고민하지 마라. 리스트는 MAXIMO 이미 작성해뒀다. 남자라면 모름지기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갈지라도 관운장이 호쾌하게 청룡인월도를 휘두르듯 신용카드를 지름신을 향해 내던질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BY 강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정희 HAIR 이도우 MAKE-UP 오봉기 MODEL 구혜인 ASSISTANT 조정민



이달에 질러야 할
제품 보러가기!

COOPERATIONS editas Originals(02-3447-7701) Calvin Klein Underwear(02-3448-7725) DONNICHEI, SYSTEM, Papaya(02-2138-7769)
GUESS UNDERWEAR(02-514-0893) SEXYCOOKIE(02-3442-0220) SHOESONE(www.shoesone.co.kr) skg-ri(www.skgr1.com)

SONY VAIO

VAIO Z

지구 환경을 위해 전기 소모가 덜한 노트북을 사용하진 말은 페이브라. 소니 바이오 Z가 있으면 데스크톱을 찾을 일이 없을 만큼 이 녀석의 성능이 뛰어나단 말이 장담이다. 바이오 노트북의 최상위 모델답게 1.4kg의 가벼운 무게에 디스플레이 켜는 성능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쿼드 SSD, 엔비디아의 최상 그래픽 카드(GT 330M/1GB VRAM)를 탑재했고 풀 HD(1920 x 1080) 해상도를 자랑한다. 까다로운 노트북 마니아가 보더라도 어디 한 구석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빠졌다. 아쉬운 점은 단 한 가지다. '소니 스타일'이라는 말이 잘못 튀어나오는 3백만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 가격

문의 vaio-online.sony.co.kr 060-770-2000
가격 369만원 원



청 핑크 반스패 티셔츠 adidas Originals
블루 컬러 셔츠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오렌지 컬러 슈즈 SHOESONE



LOMOGRAPHY
SPINNER 360°

로모 카메라는 독특한 색감을 보여주는 필름 카메라이다. 여기에 360° 회전 기능을 더해 일반 필름으로도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스피너 360°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카메라 옆의 코드를 당겼다 놓으면 필름 스피너 360°가 있다면 당신과 그녀가 침대에서 격하게 레슬링을 펼치는 장면을 한 장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다. 소리대 남지 않으면 쓸데없는 연예인 사진보다 물만 아는 이런 은밀한 사진이 소장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건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질문이 할 이유가 더 필요한가!

문의 www.lomoshop.co.kr 02-522-0256
가격 16만5천 원

스카이 블루 컬러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데님 쇼츠 Papiya
베이지 컬러 슈즈 DONNICHETTI

KODAK
PLAY SPORTS

여름에는 역시 방송 캠퍼다. 당신이 스킨 스쿠버처럼 수심 3m까지 내려가는 여름 레포츠를 즐기지 않더라도 해변에 신재현 헬멧은 그녀의 모습 또는 당신이 온종일 사랑한 그녀의 뜨겁게 몸을 부는 추억을 풀 HD급 화질로 남기고 싶다면 코닥의 플레이 스포츠 캠퍼를 눈여겨봐라. 여기에 28g의 초경량스마트폰 갤럭시 S가 120이 아니냐? 얼마나 가벼운지 짐작이 갈 거대한 데다 2인치 의 LCD 액정은 빛 반사 방지 기술을 적용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500만 화소의 정지 영상이라고 쓰고 일반 사진이라고 읽는다. 촬영도 가능하니 비웃기에 갈 뎀 이 녀석 하나를 사진 동영상은 대동단결이다.

문의 www.kodak.co.kr 060-706-5600
가격 24만9천 원

SAMSUNG YEPP
YP-S1

스마트폰이 대체다. 이제 MP3와 PMP의 시대는 저물었다고는 이야기한다. 그래도 YEPP 것처럼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패셔너블 MP3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50만 개 속도 센서를 탑재해서 간편하게 흔들는 것만으로도 볼륨 조절, 곡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무게가 150으로 가볍기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도 OK. 음악을 보지마자 남자가 이렇게 자기 자기한 MP3를 들고 다니면 품이 안 난다는 소리를 무심결에 내뿜었다면 당신은 골라먹었다. 5인치인 여자가 훔칠 만한 MP3를 하나쯤 챙겨줘야 지나가는 여자랑 밀이 라도 한 번 더 설 수 있는 거다. 아이폰의 성능을 100% 활용하는 여자는 10명 중 1-2명이 고작이다. 여자라면 디자인이 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한다는 소리다. 당신이 저를 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바로 이 MP3처럼 말이다.

문의 kr.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6만9천 원(4GB 기준)

니트 소재의 사선 절개 워딩의 상의 SYSTEM
라이트 그레이 컬러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베이지 컬러 슈즈 DONNICHETTI



**OPTOMA
PK-102**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해를 쬐면 좋거나 좋은 제품을 찾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피코 프로젝터요. 몇 안 들어갈 정도로 작은 프로젝터다. 울토마의 PK-102는 무게가 90g에 불과하고, PC와 연결하지 않아도 메모리 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나마 창문에 누워서 PK-102로 천장에 비친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달콤한 영화 속 분위기에 취한 그대가 당신을 멀리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물론 화려한 AV의 주인공이라면 더 좋겠지만 모로 가나 결혼은 딱침이나 달라질 건 없다. 울어봄 여자친구와 단둘이 여행 갈 계획을 잡아놓았다면 이 녀석의 구매 계획도 그려해 보는 것도 좋을 거다.

문의 korea.optoma.com 02-2219-2360
가격 59만 원



사진 받으러 가기

5 SONY / MDR-AS35W

운동형 이어폰 중에는 특이한 헤드밴드 형태이다. 머리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은 편이고 오다 현상도 방지해준다. 땀이 흘러도 귀속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디자인한 센스가 돋보인다.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착용감과 디자인이 좋은 운동형 이어폰을 원한다면 구매를 고려해볼 것이다.

문의 www.sonystyle.co.kr
1588-0911 가격 5만 원대

6 SENHEISER / OMX 680

젠하이저의 아이다스가 손잡고 만든 스포츠형 이어폰. 운동 후 물로 세척해도 될 만큼 방수 기능은 확실하다. 내구성도 평범하지 않지만 충격에는 조금 딱딱하고, 영화 10도의 저온에도 선 굵음 따윈 발생하지 않는다. 여름에 땀을 욱수처럼 흘려서 심지어 운동 중이 아닌 데도 이어폰의 인위적 과열되는 사람에게도 적절하다.

문의 www.senheiserkorea.co.kr
02-6408-9560 가격 6만 원대

1 NIKE / LUNARGLIDE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신서유제를 모았다. 아찔 신는다고 유재석의 센스가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다이내믹 서포트 시스템이 주는 쿠션의 편안함에 적어도 당시 받은 행운의 비공인을 지를 거다. 경운색과 주황색의 조화가 운동화의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문의 www.nike.co.kr
080-022-0182 가격 12만 원 원

2 B&O / A8

엄밀히 따지면 스포츠형 이어폰은 아니다. 그렇지만 A8은 착용감과 내구성에서 스포츠형 이어폰과 넘사벽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송처럼 사용에도 까다로운 오디 가수가 콘서트 무대를 방방 뛰어도 날 태어난다 A8을 사용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다. B80 제품만큼 음색도 고급과 중저음까지 풍부하며 시원하게 느껴진다. 민세전에서 구매하면 장바구니 더 싸게 영입할 수 있다. 총알에 여유가 있다면 운동 파트너로 A8 이어폰을 지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문의 www.bang-olufsen.com
02-618-1380 가격 26만 원

3 PHILIPS / SHQ 3000

SHQ 3000은 귀에 가는 커널형 이어폰이라 소음 차단 기능이 탁월하다. 시끄러운 헬스장에서 사용하기엔 안성맞춤. 차가 많은 곳에선 도둑목 사용을 피하자. 차가 돌아야 운전자를 만나 저속행 급행열차에 탑승할지도 모른다. 방수 기능도 탑재했으니 걱정 붙들어 매 것. 문의 www.philips.co.kr

02-709-1200 가격 3만 원대

4 PANASONIC / RP-HS33E-P

운동할 때 꼭 구입 만한 저렴한 이어폰을 찾는다면 RP-HS33E-P를 고려해보자.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 외엔? 가격이 저렴하다니까.

문의 www.philips.co.kr
1588-8452 가격 1만 원대

FOR THE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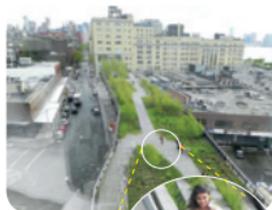
운동할 때 쓰는 이어폰은 따로 있더라. 아, 운동할 때 필요한 운동화도!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제대로 된 슈퍼 줌 비교 분석

이 슈퍼 줌 디카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장면까지 잡아낼 수 있다. 어떤 눈이 진짜 매의 눈일까?

ILLUSTRATION PETER DUMANSKI



NIKON COOLPIX P100

40만 원 후반



GOOD 이 26배 슈퍼 줌은 최상급 니콘 SLR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녀석을 3색을 최상으로 뽑아낼 수 있었고, 특히 피부 톤은 훌륭했다(우리는 이 색이 바버리걸을 4중에서 찍었다). 보너스: 1080p 해상도의 HD 비디오 성능과 조작성이 놀라 간단한 매뉴얼 세팅

BAD 광학 줌을 최대(678mm)로 당겼을 때 사진이 조금 거칠게 보인다.

한마디로 만약 당신이 건너편 빌딩 사람이 야동 보는 장면을 찍을 게 아니라면 아이가 운동장에서 코 파는 비디오나 콜로조업으로 찍어 놓자. 그리고 유튜브를 살펴보는 데 일조하지!



OLYMPUS SP-800UZ

40만 원 중반



GOOD 스펙은 훌륭하다. 30배 줌(840mm), 14메가픽셀과 3인치 LCD를 갖왔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 이 녀석은 다른 키메라만큼 영료하고 정밀한 색을 나타내지 못한다.

BAD SLR처럼 컨트롤 휠이 위에 붙어 있는 니콘, 펜탁스와 달리, 올림푸스는 아무 표시도 없는 휠 하나만 뒤에 덩그러니 붙어 있다. 이 버프로 거의 모든 세팅을 조작해야 한다. 짝새다.

한마디로 "팝아트(당신을 워홀처럼 보이게 해준다)" 나 "어맨(여자친구를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른다)"처럼 카메라 내장 기능으로 사기 칠 게 아니라면 제치자.



PENTAX X90

60만 원 중반



GOOD 이 SLR 같은 기계는 간편한 조작과 초점거리 676mm에 이르는 26배 렌즈를 포함한 슈퍼 줌으로 베키를 박는다. 줌을 최대로 당겼을 때 저행복한 탈복숭이의 영영이를 건어차려 가고 싶은 정도로 훌륭한 사진이 나왔다.

BAD 렌즈를 최대로 뿔 때 카메라의 너무 긴 줌과 가벼운 무게(400g) 때문에 약간의 음주 후에 바림이 잔잔한 상황에서도 균형잡기가 힘들었다. 셋 중 최고의 ISO 감도(최대 6,400)를 가장 점에도 광량이 부족한 사진들은 여전히 구했다.

한마디로 다섯 집 건너 색사한 이웃이 선댄하는 모습을 찍을 때 미리 사용하라.

고가품 모방이며
(최아트콜프)

2독보형 중무장형기
(골라프)



STUFF CREATIVE LEGO

LEGO is ALWAYS GOOD!

이제는 매뉴얼 없이 만들어볼 차례래.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미라클렉 택시



인공 고속 전동정



레고 사진
반오리 기기



내 광선검
레알 썰지?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레고를 좋아하는 30대의 평범한
직장남유부남이다.

레고를 보관할 정도라면 집 크기가 민만치 않겠다.
수집 욕구가 넘치는 사람은 늘 보관할 공간에 목마라.
그렇다고 사는 집이 크단 소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당신처럼 색다른 레고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설계도를 그리는 타입은 아니다. 만들고픈 모형이 머릿
속에 떠오르면 이 부품, 저 부품을 조합해본다. 다음
부터는 자신과 싸움이다.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리지만 끝
임없이 만들고 부수다 보면 노허우가 생긴다. 한미라로
많이 만들다 보면 어떻게든 된다.

작품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궁금하다.
그때그때 때문에 3~4시간 만에 똑똑 만든 녀석도 있고
한 달 동안 피땀을 싸며 겨우 만든 녀석도 있다. 보
유한 레고 부품으로 작품을 만들다가 모자라는 것이 생
기면 부품 전문 사이트에서 구입한다. 비용은 부품의 종
류, 수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레고 원제품 중 랜침은 녀석 3가지만 골라 추천해 달라.
남자라면 역시 (스타워즈) 시리다즈. 622번(X-wing),
4509번(Millennium Falcon), 8030번(Venator)은 죽기 전
에 꼭 한번 만들어봐라.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번신 로켓, 3단 합체 메카닉, 그리고 거대한 우주전함
(하얏하얏)

MAXIM과 레고, 여자 셋 중 1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무
엇을 선택할 건가? 지금 MAXIM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음?).

그래서 어쩌란 건가. 나야겐 무엇보다 부인이 가장 소
중하다(음?).

마지막으로 레고의 매력이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고맙다. 당신 같은 능력자가 있어 오덕(오덕)을 가진 우
리 같은 남자도 아예를 펴고 세상을 살 수 있다.

REAL LEGO!

독특한 레고 제품 가격 대비 성능 따위 뒤임! 레고로 대동단결!



레고 계산기

특별한 기능 따윈 기대할 수 없지만 사람의 사진을 찍기
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계산기를 쓰는 사
람이라면 정말 돈이 잉여스럽게 넘거나, 아니면 레고에 환
정한 절정 덕후 중 하나다. 당신이 후자가 아니길 바란다.



레고 디카&사진기&MP3

아직까지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여자를 끌어들이는 부가
적 효능은 있다. 이걸 캐논의 순간 주머니는 당신에게
물려줄 거다. 물론 그 여자와 멋진 사진을 찍거나 후끈한
동영상을 찍는 건 온전히 당신의 배무기 소질에 달려 있다.



레고 USB

USB를 쓸 일은 은근히 많은데 (다만)이 비슷비슷한 제품
에 질렸다면 레고로 만든 이 녀석도 쓸 만한 거다. 어쩌면
USB 기능이 더 거시기 거시기 성능의 우위를 따질 일은 거
의 없다. 그저 당신의 물품이잖아 될 뿐이어서 저장만 되
면 충분하다.



팬케이크에 미친 전직 슈퍼맨

세계를 구원할 만큼 대단한
강철 자질을 흔들며 망토를
휘날리던 **브라운 루스**가 영화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에
나온다기에 사실은 그 자질
한번 구경하려고 만나봤다.
만나서 그가 MAXIM과 나는
얘기는 팬케이크에 관한 것뿐
이었지만...

WORDS BY PATRICK CARONE
PHOTOGRAPH BY BRYCE DUFFY



그의 새 영화
예고 보기

팬케이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들었다.

사랑한다. 늘 그러했다. 고향 아이
오일에서 보면 어린 시절부터 남
들은 아침에 먹는 팬케이크를 나
는 저녁에도 먹었다. 아버지는 팬
케이크를 잘 만들었다. 어머니가
바쁘실 때 우리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시곤 했다.

어떻게 먹나?

배와 사람을 곁들인다. 어릴 땐
지금보다 사람을 훨씬 많이 뿌려
먹었다. 그런데 요즘은 팬케이크
먹는 게 쉽지 않다. 케란과 유제품
에 알레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케란과 우유는 팬케이크를 만드
는 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말이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영웅 같
대
은. 맞다. 사실 난 채식주의자를
위한 팬케이크나 먹어야 하는 운
명이다. 근데 내가 만든 채식주의
의 팬케이크도 케란, 버터, 우유를
넣은 플레인요거트만 넣은 것
은. 맞다. 사실 난 채식주의자를
위한 팬케이크나 먹어야 하는 운
명이다. 근데 내가 만든 채식주의
의 팬케이크도 케란, 버터, 우유를
넣은 플레인요거트만 넣은 것
은. 맞다. 사실 난 채식주의자를
위한 팬케이크나 먹어야 하는 운
명이다. 근데 내가 만든 채식주의
의 팬케이크도 케란, 버터, 우유를
넣은 플레인요거트만 넣은 것
은.

흥미롭다. (스콧 필그림 vs. 더 월
드)에서 당신이 부리는 초능력어
채식에서 나오는 건가?
그렇다. 그는 꼬가나 기타 동성성
채로에서 나오는 형이 아니라 정
신적 영역을 사용한다. 내 생각엔
끝만 못어 먹는 정도의 지극한 채
식주의자 캐릭터인 것 같다.

로버트 드 니로는 영화 (생난 황
소)에서 권투 선수 제이코 라 모
타를 연기하려고 실을 피우기 위
해 팬케이크만 먹었다. 당신도 연
기할 위해서 그 정도로 노력할 수
있나?

그런 멋진 먹을 먹는다면 당연히
팬케이크를 먹고 달콤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될 수 있다.

"팬케이크는 식사가 아니라 단
지 식사 전과 후에 먹는 디저트
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게 한바디만대냐?

팬케이크가 식사로 나온다는 이

유가 대체 뭐가? 적당한 단백질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식이가 될까 말이다. 어쨌든 콜리
는 대로 팬케이크만 먹어도 된다.

다른 나라에서 팬케이크를 먹어
본 적 있나?

그렇다. 하지만 다른 나라 팬케이
크는 언제나 나에게 실망만 안겨
왔다.

그렇구나 당신에게 팬케이크란
오직 미국식 팬케이크를 의미하
는 거로군.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먹은 팬케
이크가 맛있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다.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약
간 부족한 것 같다.

오늘 인터뷰 정말 좋았다. 우리는
팬케이크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이야기했다.

내 평생 팬케이크에 관해 나는 대
화 중 가장 수줍고 속깊은 대화
였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끝났다.



MAXIM RIDE

2010 MATIZ
creative 810만원



MAXIM 비교 시승기 #2

모닝과 마티즈의 맞짱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하지만 이날
MAXIM KOREA의 업무용 차량을 선정하기 위해 두 차가 다시 격돌했다.
과연 MAXIM 에디터들의 애마가 될 차는?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2010 MORNING
eco plus **754**만 원

2010 모닝 예코플러스

엔진	1.0 리터 3기통 4700 SOHC
배기량	999cc
변속기	자동 4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대출력	70마력
최대토크	9.2kg·m/4500rpm
공인연비	18km/L(1등급)
공차중량	879kg



ENGINE

SOHC DOHC

'속도' 이라고 읽는
색깔 노약.



모닝은 SOHC 엔진을, 마티즈는 DOHC 엔진을 탑재했다. 차이점을 한번 다뤄볼까? 보통 SOHC 엔진은 배기밸브가 8~14개에 비해 DOHC 엔진에는 배기밸브가 두 개 더 들어 있다. 실린더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배기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배출할 때 배기량이 같아도 배기밸브가 풀리면 가스 배출이 더 잘 된다. 반면 밸브가 하나이면 배기가스 배출에 병목 현상이 생겨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기술개발을 세계 최고 수준의 SOHC와 DOHC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RPM이 높아지고 배출해야 할 배기가스 양이 많아지면 병목현상이 적던 DOHC 엔진에서 더 좋은 출력이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닝의 SOHC 엔진은 낮은 RPM에서 배기가스 양이 적을 때 최대토크가 나오고, 마티즈의 DOHC 엔진은 높은 RPM에서 배기가스 양이 많아도 최대토크가 나온다. 낮은 RPM으로 주행하는 도상에서는 모닝이 빛을 발하고, 높은 RPM을 유지해야 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마티즈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SOHC 엔진을 탑재한 모닝은 가다 세타를 반복하는 복합도 도심 속에서 마티즈보다 정차해 움직일 거고, 고속도로에서는 DOHC 엔진을 탑재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속도를 더 쭉쭉 뻗어준다 는 말이다.

DESIGN

디자인 중요하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MAXIM에 디터들의 패달을 실려줄 MAXIM CAR의 시명을 띠었으니 디자인이 어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나. 마티즈와 모닝 중에 고르기로 한 이상 어쩌 꼭꼭 따지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MAXIM 차, 넘 짱짱해요.' 하며 조수석에 앉아 촬영장으로 함께 달려 가줄 색시한 모델만 생각하자.

'예쁘다'와 '귀엽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 어줄 것인가. 일산 컨티스에서 열린 2009 서울 국제 모터쇼에서 정말 Creative한 디자인으로 등장한 이후, 폭발적 반응을 이어나가고 있는 '예쁜' 마티즈와, 시작은 미약했으나 불수록 매력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꾸준히 마티즈를 괴롭히는 '귀여운' 모닝.

일단 외관을 비교해보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선이 굵고 과감하다. 전면 윗자리까지 뻗어있는 사나운 헤드램프 라인이나 날렵한 인사를 주고, 소켓처럼 지 않게 두툼한 범퍼와 그릴이 마치 입안을 꽉 채우는 박맥버거 같다. 모닝의 경우 좀 더 나은 디자인의 '스페이스 모델'이 따로 있다. 요즘 기차처럼 패밀리룩의 핵심인 일명 '호랑이목' 라디에이터 그릴을 기억하나? 포르테, K5, K7, 스포티지R, 쏘렌토R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바로 그 그릴 말이다.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한 모닝 스페셜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호랑이목' 라디에이터 그릴로 기차처럼 패밀리룩에 동참한 모닝 스페셜 모델이라면 마티즈와 꽤 좋은 승부가 될 듯하다.

인테리어에서는 마티즈가 우위다. 투톤 스티어링 휠이나 미니쿠퍼 느낌의 에어벤트('에어컨 구멍'

이라고 말하면 없어 보이잖아는 모닝이 갖추지 못한 세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핸들 바로 뒤에 달린 돌출형 계기권이 인상적이다. 요새 한참 화제를 뿌리고 있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핑크'가 나오면 또 여자들의 지갑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다. 핑크 라니. 예쁘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이래저래 디자인에서 밀리던 모닝이 2010년형부터 깜짝 놀랄 만한 디자인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보여줬다. 바로 꽃잎 모양의 15인치 블랙 럭셔리 휠이다. 그렇다. TV CF에서 본 그 켄가류 유모차 바퀴 말이다. 모닝은 이 휠 커버 디자인 하나로 차 전체의 느낌을 쇠산했다. 만약 모닝이 인테리어에서도 이 꽃잎 모양 블랙 럭셔리 휠을 본떠 디자인해서도 이 꽃잎 모양 블랙 럭셔리 휠을 본떠 디자인해서도 이 꽃잎 모양 블랙 럭셔리 휠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멋진한 살내디자이너의 컨셉으로 확 살았을텐데. 동구형. 좀만 더 쓰지 그랬어.



DRIVING

자, 이제 좀 뻗어볼까? 두 녀석 모두 속도계 숫자가 180km/h까지 나와 있다. 정말일까? 180km/h까진 체험해보지 못했다. 고속도로에서 150km/h를 넘어서는 것까진 확인했다. 안 그래도 가벼운

차체가 더 밟으면 이륙해버릴 기세였기 때문에 그
냥 믿기로 했다.

정지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는 힘은 모닝이 좀 더 낫
고 50km/h를 넘은 후의 가속은 마티즈 크리에이
티브가 더 수월했다. 결정적 차이는 엔진에서 비롯
한다. 모닝은 SOHC 엔진을, 마티즈는 DOHC 엔진
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SOHC와 DOHC의 차이가
뭐냐고? 옆에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가 눈길 좌향
좌하고 읽고 올라.

다 읽고 왔나? 수고했다. 이제 당신도 아는 척할 수
있는 자동차 지식이 하나 생겼다. 남들이 마티즈와
모닝의 디자인만 비교할 때 당신은 DOHC 엔진과
SOHC 엔진의 차이를 설명할 줄 아는 메카닉 색시
가임을 얻기하면 된다.

모닝과 마티즈의 출력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 실
내 에어컨을 온 상태에서 주행했다. 거드랑이에
땀이 뻘뻘 흘러내린다. 운전 하는 독자들은 익히 알
고 있었지만, 운전 중에 양쪽 에어컨 바람으로 겨팜
을 말리는 일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하지만 사람
마다 앉은키가 다르고, 거드랑이의 해발고도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정확하게 거드
랑이를 조준 시킬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
다. 모닝의 경우, 에어컨 풍향 조절의 폭이 매우 좁
은 반면, 마티즈의 에어컨은 상하좌우 풍향 조절
폭이 넉넉해서 좋았다. 아이, 뽀송뽀송해.

【COST

아마 MAXIM 경영지엔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 분명하다. 경제성 회사 입장에서 에디터들이
최소한의 기름으로 최대한 많이 써들어야야 할
테니 말이다. 먼저 모닝은 이름부터 뭔가 그럴싸
한 '모닝 eco plus'. 모닝 에코플러스는 종전의 모

닝보다 더욱 강한 편을 연비를 탑재하고 등장했다.
공인 연비는 무려 리터당 21.2km/L 마티즈 크리에이
티브의 괴물연비 21km/L를 간벌의 차로 앞서버렸
다. 물론 오토매틱의 경우에는 수치가 좀 떨어지긴
만 아깝거나 기적 같은 연비가 아닐 수 없다(시장
입고가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모닝과
마티즈로 각각 이틀간 출퇴근한 결과 그 미세한 연
비 차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그저 둘다 굉장한 연
비라는 느낌밖엔... 경차 연비가 이 정도라면 역시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카보다도 경차를 택하는 게 훨
씬 경제제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모닝이 어떤 예
코플러스 모델에서 내세우는 소위 '경제운전 안내
시스템' (음션은 현재 운전자 나기 기름을 많이 쓰
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기판에 그린과 레드 컬러로
표시해준다. 최대속력 테스트하느라 초콜 밟았더
니 비로 빨간불 뜬다. '사장이 보고 있다고 말하
는 듯하다. 뭐, 상관없다. 에디터는 적목 색맹이니까.

【SAFETY

안전성, 필수 중요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디자인이
고 주행 성능이고 나팔이고 따져봤자 어차피 내 차
도 아니다. 하지만 회사 차 안에 타는 건 귀한 내 몸
이다. 이 풍진 세상을 다 할아보지도 못하고 회사
차 안에서 사고로 죽으면 안 되잖아? 마티즈는 무
엇보다 안전성에서 가장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국
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종 충돌 테스트에서 최
고 등급을 휩쓸다시피 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특히나 기아 모닝을 집중 겨냥해서 자신들의 차별
화된 안전성을 강조한다. 옆자리 사람의 안전 여부
야 내 알 바 아니지만, 조수석까지 사이드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고 하니 사고 있을 때 옆자리 승
객을 치을 일은 없겠다. 천장도 튼튼하다. 보통 천

장 루프의 강성 기준은 자동차 중량의 1.5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마티즈는 4배까지 견디나. 전
복되었을 때 아스팔트에 골수를 바를 일도 없겠다.
안타깝게도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시승으로 직접
경험하기 좀 어려웠다. 어시스트먼트를 데미 인형으
로 쓰면 불쌍하나가.



아이가 불수목 아가자면 내수목아자면 이 둘의 전쟁
은 겉모습처럼 예쁘고 귀엽지만은 않다. 한때 배기량
800cc로 된 녀석들이 각각 1000cc로 업그레이드하면
서 이제 더 이상은 '경차' 대결이라는 말이 무색해
졌다. 보통 800cc를 넘는 차는 '소형차'로 분류하는
데, 모닝과 마티즈가 소형차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기준 소형차 타듯대감인 클럭, 베르나, 젠트라를 압
도해버렸다. 나름대로 자동차 리뷰를 한다는 불로
거들치고 마티즈와 모닝을 뺀 불이지 승용차가 없
을 정도니 이 두 차은 거인의 건곤일척 승부가 때
라리와 포르세의 대결보다도 뜨거워 보인다. 원래
애들 싸움이 재밌는 거야.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엔진	1.0 DOHC-TED II
배기량	995cc
변속기	자동, 4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대출력	70마력
최대토크	9.4kg · m/4800rpm
공인연비	(170km/L, 2등급)
공차중량	910kg



새로운
차별기

FERRARI 458 ITALIA



아버지는 '황제' 미하엘 슈마허. 이름은 이탈리아.
페라리 기운의 적자(嫡子)를 소개한다. 차미네이터 부럽지 않은 녀석이군!

BY 박상우 IMAGES FMK



내공 있는 중견 가수가 오랜 숙성 끝에 선보이는 음반 타이틀로 본명을 내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십 수년을 갈고닦아온 고수는 그렇게 신보에 대한 음악적 자신감을 고스란히 담은 대물론 기본조차 안 된 초짜 신인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랑으로 넘어가주자. 다 먹고 살지도 하는 짓 아닌가. 그렇다면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향 이름을 신치로명명으로 달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이탈리아라면?

전통의 명가 페라리가 한국 시장에 신처를 선보였다. 전통적인 숫자 작업법 뒤에 이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채로, 페라리는 노련한 아티스트처럼 새 결과물에 대단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뭘 또 그렇게까지'라며 고개를 가웃하던 이도 페라리 458 이탈리아의 '미친 스피크'를 접하고 나면 큰절을 할 테다. "이 고 물리면서 최승합니다."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8기통 4.5리터의 미드-러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570마력, 최대토크 55.1kg·m을 자랑한다. 제로백은 3.4초 이내이며 최고속도는 325km/h에 달한다.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최고출력 시에도 매끄러운 주행을 보장하며, 메인 컨트롤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핸들은 혁명적인 F1의 인체공학적 인터페이스를 자랑한다. 거기에 신속한 코너링과 정확한 그림 레플을 계산하는 컨트롤 로직의 진화는 더욱 뛰어난 승차감까지 선사한다.

페라리의 공언대로 "진정한 페라리 마니아를 위한 수퍼카" 인 것이다.

페라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을 만들어냈는지 스포츠 공급해제는? (신세기 사이버보틀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가 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밖에. F1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해놓은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한두 해 기다려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소한 문제라면 한국에선 이 녀석의 질주 본능을 충족시켜 줄 곳이 없다는 것.

캘리포니아, 이탈리아가 나왔으니 언젠가 페라리 대~한민국도 나오길 기대해보자. 차는카념 페라리 향수 하나 시면서도 우리 손은 벌써 떨리지만 말이다.

제원

엔진	8기통 4.5리터
최고출력	570마력
최대토크	55.1kg·m
최고속도	325km/h
0-100	3.4초



게임 속 페라리
보러가기



2010년 8월 가각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제조사/가격/연비	모델명	제조사/가격/연비	모델명	제조사/가격/연비	모델명	제조사/가격/연비	모델명
GM	550	200	200	현대	280	200	200
GM	555	200	200	현대	290	200	200
기아	75	200	200	현대	300	200	200
기아	75	200	200	현대	310	200	200
현대	510	200	200	현대	320	200	200
현대	515	200	200	현대	330	200	200
현대	520	200	200	현대	340	200	200
현대	525	200	200	현대	350	200	200
현대	530	200	200	현대	360	200	200
현대	535	200	200	현대	370	200	200
현대	540	200	200	현대	380	200	200
현대	545	200	200	현대	390	200	200
현대	550	200	200	현대	400	200	200
현대	555	200	200	현대	410	200	200
현대	560	200	200	현대	420	200	200
현대	565	200	200	현대	430	200	200
현대	570	200	200	현대	440	200	200
현대	575	200	200	현대	450	200	200
현대	580	200	200	현대	460	200	200
현대	585	200	200	현대	470	200	200
현대	590	200	200	현대	480	200	200
현대	595	200	200	현대	490	200	200
현대	600	200	200	현대	500	200	200
현대	605	200	200	현대	510	200	200
현대	610	200	200	현대	520	200	200
현대	615	200	200	현대	530	200	200
현대	620	200	200	현대	540	200	200
현대	625	200	200	현대	550	200	200
현대	630	200	200	현대	560	200	200
현대	635	200	200	현대	570	200	200
현대	640	200	200	현대	580	200	200
현대	645	200	200	현대	590	200	200
현대	650	200	200	현대	600	200	200
현대	655	200	200	현대	610	200	200
현대	660	200	200	현대	620	200	200
현대	665	200	200	현대	630	200	200
현대	670	200	200	현대	640	200	200
현대	675	200	200	현대	650	200	200
현대	680	200	200	현대	660	200	200
현대	685	200	200	현대	670	200	200
현대	690	200	200	현대	680	200	200
현대	695	200	200	현대	690	200	200
현대	700	200	200	현대	700	200	200
현대	705	200	200	현대	710	200	200
현대	710	200	200	현대	720	200	200
현대	715	200	200	현대	730	200	200
현대	720	200	200	현대	740	200	200
현대	725	200	200	현대	750	200	200
현대	730	200	200	현대	760	200	200
현대	735	200	200	현대	770	200	200
현대	740	200	200	현대	780	200	200
현대	745	200	200	현대	790	200	200
현대	750	200	200	현대	800	200	200
현대	755	200	200	현대	810	200	200
현대	760	200	200	현대	820	200	200
현대	765	200	200	현대	830	200	200
현대	770	200	200	현대	840	200	200
현대	775	200	200	현대	850	200	200
현대	780	200	200	현대	860	200	200
현대	785	200	200	현대	870	200	200
현대	790	200	200	현대	880	200	200
현대	795	200	200	현대	890	200	200
현대	800	200	200	현대	900	200	200
현대	805	200	200	현대	910	200	200
현대	810	200	200	현대	920	200	200
현대	815	200	200	현대	930	200	200
현대	820	200	200	현대	940	200	200
현대	825	200	200	현대	950	200	200
현대	830	200	200	현대	960	200	200
현대	835	200	200	현대	970	200	200
현대	840	200	200	현대	980	200	200
현대	845	200	200	현대	990	200	200
현대	850	200	200	현대	1000	200	200

DRINK



또 다른 필드 소주 보러가기



八道 燒酒 列傳



여름-맥주만 편견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진정한 마초라만 삼겹살에 소주 아니겠냐!
 화끈한 여름을 나는데 벗이 되어줄 팔도 소주를 총망라했다.

BY 작가님 PHOTOGRAPH BY ARC STUDIO

	소주 전문가 매니저 유신영 소주 전문가 황포 25의 터줏대감. 매니저 경력 4년 차 필드 소주를 섭렵했다.
	소몰리에 김광희 신의 미라는 지난 한해 No.1 소몰리에. 광화문 가든 플레이스 총재배인으로 있다.
	에디터 임기환 새우깡에 소주가 잘 어울리는 굿도 착남단 제주도 원주민.

DRUNKEN STORY

소주에 관한 몇 가지 상식 뭐든 알고 먹어야 제맛.

1. 몽골인이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문화를 받아들이며 증류주가 함께 동양에 전해졌다. 이렇듯 소주엔 몽골의 기상이 서려 있어, 마실 때마다 네 발로 기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다. 엄밀히 말하면 소주의 고향은 페르시아지만.
2. 증류주는 도수가 높고 변질될 재료가 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 보통 알코올 도수가 20° 넘어면 변질되지 않는다. 소주병에 유충 기어오르는 이유가 다 있었다.
3. 소주 제조법엔 증류식과 희석식이 있다. 동네 슈퍼에서 파는 소주는 대부분 희석식이다.
4.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소주 1병을 5킬로, 알코올이 모두 순화하는 데 약 2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간이 생생해도 운전이 회복하는 데는 7시간이 걸린다. 운전 톱도 없이 계속 등이 붓다가는 죽는 수가 있으니 적당한 저자세라.



참이슬 Original

난 곳: 서울
 도수: 20°
특장: 국가 대표 소주. 대나무 활상 숲으로 거둔 참이슬씨는 세계 60개국을 뚫는 데 성공했다.



소주의 교과서다. 이슬처럼 맑은 한 맛은 더 이상 많이 필요 없다.



처음처럼보다 순하고 부드럽다. 뒷맛이 주는 파니시가 강해 입가에 묘한 여운을 남긴다.



상경 전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서울에 정착하니 참이슬이 입에 착 붙었다. 무난하다.



처음처럼

난 곳: 강원도
 도수: 18.5°
특장: 세계 최초의 일각리 환원수. 혼돈된 물 입자 사이에 일각올이 스며들어 소주 맛이 더욱 부드럽워진다. 이요리가 괜히 흥드는 게 아니다.



뽀뽀한 원조만 한 게 없다. 처음처럼도 오리지널이 최고다.



항이 주는 인티미트는 마치 곱고 단단한 대나무 숲을 걷는 듯한 각이 들게 한다.



항상 초심을 갖고 마실 수 있는 소주다. 음주는 계속되어야 한다. 처음처럼 푸른.



처음처럼 Cool

난 곳: 강원도
 도수: 18.8°
특장: 대관령 청사양만수가 우이의 청사양을 만나 더욱 시원해졌다.



스태프들에게 가장 인기였다. 순한 것 중에서도 최고.



질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느껴져 여자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초입부터 목을 타고 넘어간 후味が 풍미가 살아난다. 베스트 피터는 과일처럼 단 안주.



처음처럼 '쿨'.



산

난 곳: 강원도
 도수: 20°
특장: 강원도 숲은 무조건 대관령에서 뽑아낸다.



우리 개처럼 없다. 미안하다.



소주에서 보드카를 느꼈다. 진하고 부드럽다. 강한 알코올을 향토 소주의 거친 질감을 잘 표현해냈다.



강원도의 향이 느껴진다. 군 시절 길목으로 쌓인 분노를 한 병에 날려주던 나의 외침이다.

한라산물 순한 소주

난 곳: 제주도

도수: 19.8°

특징: 미국 캔타키에서 공수한 오 크 통에 알다시피 백팩담 맑은 물 을 담았으니 무등도담이 따로 없 구나!



맛있대 말고 깨끗하면서도 입 안에 함있게 꼭 파인다. 기온전질이 일교산 있게 조행 된다는 뜻이 깔끔한 게 화산수 의 특징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같다.

내 인생의 첫 술 이거 바로 그 향이 맛이다.



화이트

난 곳: 경상남도

도수: 19.9°

특징: 이젠엔 지리산 양반 을 깨고 부심 만들었다. 전 국 각도에서 매일매일 삽 질이구나!

인지도는 C에 밀리고 이름은 하 이트랑 비슷해서 덜 찾는다. 맛이 복합적이고 풍부해 나이 지 국한 분들에게 잘 어울릴 듯 보 디 감이 깊어 넓은 어깨를 가진 아 초 같다.

C 때 친구가 이걸 먹고 파친 한 판을 썼어! 내가 다 차웠다.



인세주

난 곳: 전라남도

도수: 19.5°

특징: A 이하리가 보통 입 새가 아니냐. 멀리 캐너 캐릭 남도의 단풍나무에 서 사랑을 재빨랐다. 남도의 장유엔 토독크 많은 사 연이 담겨 있다.

청이슬 처음처럼 맛과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서술 분포도 자 주 찾는다. 도수에 비해 알코올 함이 잘 정 도됐다. 메이플 시럽 뒷맛이 정성 이 높고 라운드했다 느껴진다. 맵 고 기쁨진전주와 잘 어울릴 것 같다. 메이플 시럽의 풍미가 세히 느껴 지었다. 맵도스 기본할 거 같다



O, 린

난 곳: 충청남도

도수: 19.5°

특징: 소주계의 빅자성 디 소주보다 산소가 3배나 많 아 30배 알코올이 캔다는 슬로2를 내걸었다.

부드러운 첫 맛과 깔끔한 뒤 문. 소주간처럼 속취에도 탁월하다.

특징이 확실하다. 질감이 가볍고 여운이 거의 없다. 유아하고 성세 한 한 편의 서정시랄까 소주 입문 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계몽산 자취를 가는 충청도 양 번의 느린 걸음이 허공을 오갔다.



Soju Island

난 곳: 울릉도

도수: 19.5°

특징: 울릉도 심해 660m 에서 채취한 해양 산중수 를 사용했다. 이제 독도 심 해만 남은 공간!

병이 참 예쁘다.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도수는 만만했다. 맥 마 쟁간 후가 좋다.

진한 향이 느껴진다. 가나넬 술자 리보다는 가벼운 반주에 어울릴 것 같다.

울릉도형 배에 실고 오징어 다리 찍먹 풍요어 한병 끼고 싶다.



참소주

난 곳: 대구

도수: 19.3°

특징: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과 자몽이 들어 담겨 들어갔다는데 여차며 과음하면 모두 깨 가 되지!

담백지근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 는다. 목 넘김도 좋다.

드라이한 느낌이 강하다. 풍미의 덩어리가 크고 알코올 정제가 잘 돼 있어 러스티함마저 느껴진다. C보다 보디 같은 한 수 있다.

대구 맥팅과 함께하면 난 영희의 달빛 수 있다.



하이트

난 곳: 전라남도

도수: 19.5°

특징: 전주 슈퍼마켓 이층 마술이 가장 실어하는 소 주. 맥주인지 소주인지 두 번 물어봐야 되잖아!

오 희사주 이름과 같아서 그런 지 기억하는 게 있다.

새끼 생형 길을 걸으며 마시는 위 은 공간 같다. 끝 맛에서 화산전 느낌이 있으나 과하지 않다. 오히 러 순한 편에 가깝다.

남도의 화려한 밤상에 잘 녹아들 듯. MC로 치면 학지 않는 친형으로 게스트를 살리는 필수음료 되었다.



C1

난 곳: 부산

도수: 19.5°

특징: C는 클래식을 7가지 중 2가지나 들으면서 자 리 산 소주다. 클래식은 알코 올과 물 분자의 결합을 극 대하여 소주 맛을 더욱 좋 게 한다!

한라산과 더불어 가장 잘-자다. 이틀처럼 깔끔하고 시원하다.

딱 부산 스타일. 깔끔함과 강렬함 을 두루 갖는다. 끝에서 짙은향 풍미도 느껴진다. 바다 새-자이다 은 환관엔 금방 취할 것만 같다.

2003년 처음 음을 만났다! 그런 명 했던 그거 7년 동안 안 해수해져 이전 재빨 쓰는 느낌이 난다.



한라산

난 곳: 제주도

도수: 21°

특징: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한라산 양반수 로 만들었다. 에비양으로 빚어도 이만큼 깔끔한 맛 은 못 낼 거다.

두꺼비 병 모양인데 심해로 쓰 다. 30대 이상이 많이 찾는다. 작 업음으로 최고!

경상도 소주와는 상반된 스타일. 심박 단맛이 강하며 고급스럽다. 허전함에 별책 캐럴이 깔릴 듯 부 도고 듯하고 거부감이 없다.

하이트엔 C: 시피지만 해수해지근 하게 먹는 게 제일 좋다. 진짜대!

BASEBALL

HUMAN THEATER

RA. 디키

이가 없으며 잇몸으로 버티는 거다.



로버트 앨런 디키(Robert Alan Dickey) 줄여서 RA. 디키는 대학 시절 93마일와 150km의 강속구를 뿌리던 잘 나가는 투수였다.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할 예정이던 그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토미 손 수술로 다른 곳의 인대를 팔꿈치에 이식했지만 예전의 유력투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메이저리거로 살아남기 위해 배짱과 끈기 없이는 배울 수 없다는 너털볼에 도전했다. 너털볼을 배우는 동안 팔뚝기를 비롯해서 시애틀, 마스터스 등 여러 팀을 전전했지만 유시즈 뉴욕 메츠에서 너털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본인의 커리어 하이라인 10승과 3방타 벵어우드 가시군에 들어왔다.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불굴의 노력으로 극복해 36세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이한 RA 디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이런 게 바로 사-키의 삶이다. 보고 배워라 쥘

LOSING PARADE

프로야구 연패 기록

누가 누가 더 많이 잤나!



작년 프로야구 우승팀인 기아의 연패 행진은 기아 팬에게는 악몽으로, 타팀 팬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야심계도? 삼미 슈퍼스타즈의 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역대 연패 기록 3위에 올랐다. 이창에 연패 기록 1057를 싹파저지. 정말 눈물난다.

1위 1985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18연패

2위 1999년 쌍방울의 17연패

3위 2002년 롯데의 16연패, 2010년 기아의 16연패

4위 1993년 태평양 15연패

5위 2009년 한화 12연패

MAXIM TIM

이달의 스포츠 소식

BASKETBALL

HELL OF LINEUP

NEW BIG3의 등장

NBA의 캐시가 캐릭터 3인방이 하나로 뭉쳤다.



NBA의 오프 시즌을 뒤흔든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FA로 풀린 젊은 거물 3인방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이애미 히트에 등지를 들었다. 사실 농구만큼 이변이 없는 스포츠도 별로 없다(그나마 마이클 조던 정도는 되니까 이변을 만드는 거다). 출전 선수도 고작 5명이라서 주전 3명만 초특급 선수로 발라두면 지킬 원해도 지기가 힘든 게 농구다. 게다가 이번엔 마이애미 히트에서 뭉친 BG 3는 선수로서 전성기가 최소 10년 이상 남은 영연이다. 여기에 CP3크리스 폴의 등번호를 합친 별명까지 2년 안에 마이애미 히트로 합류하겠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CP3가 합류해 BG 4가 만들어진다면 NBA 역대 최강팀이라 불리던 1986년의 시카고 불스(NBA 역사상 정규 시즌 70승을 거둔 유일한 팀도 가볍게 뛰어넘을 기세다. 마이클 조던을 비롯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일궈낸 우승이 값진 이유는 이적이던 에이스에서 팀

을 아우르는 캔턴으로 거둔다 소속팀에서 새로운 왕조를 열었기 때문이다. 특히 '킹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는 전 소속팀 클리블랜드가 온갖 정성을 다 했음에도 우승 트로피 한 번 주어주지 않은 채 출가 분하게 팀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 팬과 구단주의 가슴에 화끈한 불을 댕겼다. 이들이 서로 합침을 맞춰볼 2년여 정도의 시간과 이들을 보좌할 짜리 선수라고 쓰고 베테랑 선수라고 읽는다면 보장된다면 한동안 마이애미 히트를 위협할 팀은 올드(D) BG 3가 간재한 보스턴 셀틱스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LA 레이커스 외엔 없어 보인다. NBA 팬의 입장에서 이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각 팀의 기둥이 되어줘야 하는 젊은 에이스가 벌써부터 우승에 목을 매는 모습에 입맛이 답답해진다. 새로운 BG 3의 결합과 앞으로 예상되는 그들의 득조도 그라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SPORTS ES!

MAXIMO 선정한 이달의 스포츠 이슈들. 2010 남미공 월드컵 결산은 따로 빼줬으니 놀라지 말 겠
BY 김성현, 임기환 IMAGES 로보트 제임스, 드웨인 데이비, 크리스 보쉬, 존 테리, 예시 베니츠(Geity Images/겔터비치)

SOCCER

SUMMER TRANSFER

새(NEW) 동지 위로 날아간 이적생들

이들이 새집 증후군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차두리(프라이부르크) → 셀틱

차이네이터가 셀틱 파크에 입성했다. 인간 팀으로 부족함을 느낀 닐 레는 우승을 위해 로봇의 힘이 절실했고, 결국 셀틱 법안카드를 끊었다. 그러나 차두리는 정작 잭팟에 더 관심이 있었다. 축구 명기 차이네이터는 축구보다 영어 공부에 더 하고 싶었던 거대 그림 2011년엔 3개 국어(한국어, 독일어)에 지원 기능을 갖춘 차이네이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건가?

정대세(가와사키 프론타레) → 보코

정대세가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정대세는 올 여름부터 제2의 리그를 떠나 분데스리가 2부 팀인 보코에서 뛰게 됐다. 지난해 강등당한 보코는 1부 복귀를 위해 불도저처럼 저돌적 공격수가 필요했고 결국 '인인 유두니' 정대세에 베풀었다. 보코의 선택에 그는 '10골이 목표'라며 다부지게 화답했다.

테리에 앙리(바르셀로나) → 뉴욕 레드볼스

한때 최고 몸값을 자랑하던 앙리가 축구 불모지 미국으로 떠났다. 앙리는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즐리던 루비안카치, 메시에 이어 페드로에게마저 차이머 세일의 무게를 느껴야 했다. 그는 남미공에서조차 후보로 빠져버려 병든 뒤 신세로 전락했고 결국 베클렘/AC밀란 → LA갤럭시의 전철을 밟아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앙리의 베프 스티븐 내쉬(NBA 파닉스 선수는 어서 와서 같이 놀자며 그의 이적을 반겼다. 이리다 중간에 아구로 의도한 마이클 존던 골 날라.

밀란 요보노비치(스탕달 리예주) → 리버풀

'세비야 특급' 밀란 요보노비치가 레즈(리버풀)의 저지를 입게 됐다. 스탕다르를 벨기에로 정상에 올려놓은 요보노비치는 독일과 펼친 남미공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신분 상승에 성공

GOODBYE!

조지 스타인브래너 사망

양카스 구단의 황제 이 세상을 떠났다.



뉴욕 양카스의 전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래너가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CBS 방송사로부터 양카스를 인수한 후 재임한 33년 동안 아메리칸 리그 우승 16회, 월드시리즈 우승 11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스타 선수들 명망 현상도 굶어지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은 덕분에 야구팬들에게 욕도 바가지로 얻어 먹었다. 하지만 양카스의 명예게단공은 누구보다 팀을 사랑한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멋진 구단주였다. 한 사람의 야구팬으로서 양카스는 뉴욕 양카스라는 제목에 모든 것을 바친 최고의 황제로 기억하겠다. 굿바이~ 조지

했다. 하지만 그를 영입한 전 감독 베네츠는 떠났고 호지슨이 새로 부임했다. 호지슨은 물론 시절 실기함을 뺀채워며 돌린 장본인 이만큼 요바노비치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다.

송중국(수원) → 알 사합

알 사합과 송중국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 사우디 클럽 알 사합은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 오른쪽 윙 플레이어가 필요했다. 오일 마니를 미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송중국은 영혼의 안식처인 수원을 떠나 횡량한 시련으로 향했다. 이제 송중국이 알 사합의 신데렐라로 등극할지는 순전히 그의 활약에 달렸다. 사합 사합 알 사합 ♪

네네(AS 모스코) → 파리 생제르맹

차근과 환상의 공황을 자랑하는 네네는 베프 박주영을 대신하고 이웃집으로 이사를 가져왔다. 네네는 지난 시즌 박주영의 PK 공룡을 다 가로채며 팀 득점 1위(4골)에 오르더니 30대에 흑해 그저 그런 팀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나왔다. 쫓듯,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날 녀석야.

요시 베니츠(리버풀) → 첼시

이스라엘의 엄한아 베니츠는 자수성가의 대표 케이스다. 동네 축구팀에서 그럭저럭 볼 좋 했던 그는 스페인(라시산 산티아고)에서 외국몰을 먹더니 다음 충격적인 영국에서 비호스 진가를 발휘했다. 그는 웨스트햄의 에이스로 자리 잡더니 다음 팀 리버풀에서 또 성공곡을 시즌을 보내며 결국 로만 왕국에 입성했다. 스태프 비이 스펠. 그것은 돈서고금을 막대한 건리였다.

SHOOTING LIKE STEEL HEART!

MAXIM의 포항 스틸러스 구단 습격기!

MAXIM이 후반기 대반격을 노리는 포항스틸러스 구단에 전격 방문했다. 한여름의 피약해도 승리를 갈구하는 선수단의 불같은 열정에
는 태양 앞 반딧불이었다. 시즌 최하위에서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는 강철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눈 똑바로 뜰 시
간이다. 덤으로 MAXIM 에디터의 멋진 활약상도 감상할 수 있다. 음, 이걸 좀 별론기?

BY 김성현 ASSISTANT 박상우 PHOTOGR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포항 스틸러스





선수 사진
받으러 가세요



BATTLE GROUND!

훈련 스케치

전장이 따로 없더라



박창선 감독 대행

하반기 돌풍 기대해도 좋다.

레오스 감독의 경질로 급작스럽게 감독 대행을 맡았다. 팀 성적이 바닥이라 부당히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간 파리아스 감독과 함께 일하면서 외국어의 선진 축구는 충분히 접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대행' 꼬리표도 충분히 뗄 수 있으리라 본다.

성적이 바닥인 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수단 분위기가 혼란하다.

성적이 바닥이라고 감독과 선수가 날을 세워봤자 좋을 게 없다. 이런 때일수록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피해야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던 사실을 파리아스 감독을 비롯한 외국인 감독 재임 시절에 몸으로 익혔다.

훈련할 때는 엄하기가 호랑이 선생님을 관공시킬 기세였다.

연습을 장난스럽게 하면 그게 실전에서 이어진다.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수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도 치는 거다.

포항 스틸러스의 매력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공격력이다.

2008, 2009년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뛰어난 공격력 덕분이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선수에게 골도 다 이내미하고 멋지게 성공시키라고 주문한다.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그리고 팬이 원하는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 축구다.

공격 축구일수록 탄탄한 수비진의 도움이 절실하다. 작년 활력 수비를 자랑하던 모습은 어디로 떨어졌는지?

김재성, 김형일, 황재원 등 주전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 및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보니 수비수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조직력이 깨 판 5분 전이었다.

노병준 선수와 울산 현대의 이진호

선수를 맞이대만 사실에 놀란 팬이 적지 않았다.

노병준 선수에게 변화가 필요했다. 작년에 부와 명예를 모두 얻다 보니 심리적으로 나태한 감이 없지 않았다. 울산 현대의 이진호 선수는 팀에서 외국인 공격수의 활약으로 입자가 좋아졌다. 우리도 마침 제공권을 장악할 공격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심사숙고 후 결정했다.

실기엔 선수에게 기대가 될 텐데?

공격진에 질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 좋겠다. 부상에서 회복한 후 지금 70% 정도의 몸 상태다. 큰 무대 경향이 있는 선수니 잘 해주리라 믿는다.

모타의 활약은 만족스러우니까?

'모타神'으로 불리던 시절의 기량은 아니다. 하지만 팀에서 원하는 역할에 점차 적응 중이다.

남은 하반기 K리그의 관전 포인트를 알려달라.

필ippe에서 출발한 포항 스틸러스의 최종 성적을 지켜봐라. 조금 망가지지만 파리아스 감독이 정말 기본을 잘 닦아놓은 팀이다. 포기하지 않고 후반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MAXIM 8월호가 나올 즈음에는 팀 순위가 어떻게 뛰어올랐겠다.

적어도 8위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MAXIM에게 한마디 해달라.

우리 팀이 등장하는 만큼 국민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즐겨 보는 MAXIM이 되었으면 좋겠다. 포항 스틸러스와 MAXIM 모두 파이팅이다.



설기현

K리그에 설바우두가 떴다

오랜만이야. 이번 월드컵에서 당신을 경기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나는 오죽했겠나? 대표팀의 첫 경기를 TV로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선수들의 긴장감이 온몸으로 생생히 전해졌다.

우루과이와 치른 16강 경기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당신이 이탈리아전에서 보여준 극적인 동점골이 애타게 그리웠다.

이동국 선수에게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 아쉽게 스치기 빔빔했다. 그날 비가 온 데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부담감이 컸던 모양이다. 경기가 끝나 후 "2년이나 기다려온 월드컵이 이렇게 끝나니 허탈하다"고 말한 인터뷰를 봤다. 같은 축구 선수로서 그 감정을 누구보다 이해하기 때문에 코골이 짱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동국 선수에게 주어진 시간

이 너무 짧았다.

오랜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K리그로 돌아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면?

비예가다. 당시 소속팀의 리그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이기는 것보다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경기 때마다 선수단 버스에 맥주를 가득 싣고 다녔다. 경기를 이겼을 땐 신난다고 맥주를 마시고, 지면 열 받는다고 맥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경기가 끝나 후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웃음). 한번은 경기가 끝나고 회복 훈련차 선수단 전부가 목욕탕에 있는데 그곳에서도 삼매인을 마시더라. 할 말이 없었다(웃음).

2006년 세제갈라와 평가전에서 보여

준 당신의 '역주행' 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테리존을 만나게 해 달라. 그날 같은 상황은 경기를 뛰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가끔 이영표 선수와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당시 경기를 해설한 김태형 해설이 문제였다! 현역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경기에 지나치게 몰입했다. 자신이 세네갈 선수를 수비하고 있는데 내가 공을 몰고 달려온 것처럼 느꼈을 테니 놀랐겠지. 축구를 볼 땐 해설가의 멘트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데 "설기현 선수 이런면 안 됩니까"를 연발했으니 축구 팬은 더 놀랐을 거다. 물론 선수로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게 베스트다. 그날 경기도 역주행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한 평가전이었다. 실제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된 거잖아(웃음).

남부러울 게 없는 당신이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예전처럼 큰 꿈은 없다. 빅 리그에서 뛰어보겠다는 나름의 목표도 있었다. 올 시즌 전반기는 부상으로 제대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몸도 많이 회복되었으니 일단은 포항 스틸러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부인은 미인으로 유명하다. 미인을 사로잡는 노하우를 MAXIM 독자에게 소개해달라.
그런 건 없다. 세상에는 자신만의 인연이 있는 법이다.

명쾌한 답변 고..고입니다.



LONELY WOLF

차가운 도시 남자

하지만 그도 여름은 여름 수 있었다.



SHOOTING LIKE STEEL HEART!

김기동

나는 아직 생생하다. 은퇴? 그게 뭐임?



신화용

포항의 신세대 골문지기!

당신에게 진짜 축구 인생을 열어준 건 포항 스틸러스가 아니라 유공(현 제주 유나이티드)이었다.

어린 포항에 입단했지만 벤치만 달랐다. 93년 유공으로 이적해서 니콜라시 감독과 만나면서 축구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모든 경기에 출전했고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감독님이다. 그때 동업을 담당한 강창식 씨를 통해 지금도 안부를 물어보고 한다.

K리그의 전설이 아닌 레전드다. 5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후 은퇴하겠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일본의 미우라 가즈오씨는 40대의 나이에 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500경기를 뛰 후 은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체력이 뒷받침되는 한 끝까지 뛰고 싶다. 우리나라 원장님이 일본의 닛토님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2007년 소속팀은 K리그 우승을 거머쥐었고, 당신은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에 선

졌다. 당시 축구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자신이 있나?

난 늘 그때 그대로다. 이 나이에 젊은 선수와 경쟁하고 주전을 다투야 한다. 기량은 물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간도 긴장을 놓아본 적이 없다.

공격과 수비가 능한 몇 안 되는 미드필더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대표팀 감독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법하다.

감독마다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선호하는 선수 역시 다르다. 내 능력을 알아본 대표팀 감독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월드컵 성적표는 진득 달라졌을지도 모르다(웃음).

지금 K리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국내파와 해외파 리그 베스트 11가 맞붙으면 승부할 수 있겠나?

지구도 동글고 공도 동글다. 축구는 이름값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K리그에도 해외파 짝 먹음 테크닉이 많다. 경기 결과는 직접 부딪쳐야 알 수 있을 거다.

말했던 수비진이 무너져서 전반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나.

전임 감독님이 사람은 참 좋았는데 전술은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감독으로서의 역할이 다소 떨어졌다. 덕분에 수비진도 나도 고생이 많도 못했다.

공중볼 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 3~4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다. 경기를 꾸준히 본 사람은 내가 공중볼에 약하던 소리는 하지 않는다. 뜨내기 팬만 그런 소리를 한다. 당신도 설마?

난 뜨내기 팬이 아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골키퍼의 세고교체가 이뤄졌다.

월드컵도 가던 사람이 가는 게 맞다. 나처럼 관심 밖의 대상은 대표팀에 차출될 일이 없다. 2009년 K리그 베스트 11 시상식장에서 허정무 감독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시더라. 지금이라고 단다는 보장은 없다.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훌륭한 첫 번째

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정성룡 선수의 판단ミス다. 기만해서 있었으면 이영표 선수가 공을 처리했을 거다. 정성룡 선수가 달려 나가는 바람에 수비진이 얼뚱얼뚱 바라보지만 있었다. 수비진의 움직임도 애교되지 못했다.

훈훈한 외모에서 여자 팬이 많다고 들었다. 혼자서 백 명 뒹을 하는 편은 있다. 작년에는 클럽 하우스에 자주 보이더니 팀 성적이 곧두박질치니까 얼굴을 보기 힘들다. 역시 팀 성적은 좋고 봐야 한다(웃음).

여자친구는 있나?

나 몸잘남이다. 내가 결혼한 지도 몰랐던 건 개 실랑이다.

웃자고 한 소리다. 감독님이 당신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나도 지금 우리 팀이 좋다. 훈전 강도는 만만치 않지만 감독님이 잘 다루어주시는 스타일이라서 운동하는 게 즐겁다. 그저 지금처럼만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HISTORY OF STEEL WARRIOR

포항 스틸러스의 역사

한미타로 대박이!



- 1984년 프로축구단으로 전환
- 1988년 한국 프로축구대회 우승
- 1990년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 준공
- 1992년 한국 프로축구대회 우승
- 1996년 제1회 FA컵 우승
- 1997년 아시안클럽 챔피언 우승
- 2000년 승라 스틸러스 클럽하우스 준공
- 2007년 삼성 하우젠 K리그 및 FA컵 우승
- 2008년 제13회 하나은행 FA컵 우승
-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 2009년 우승 FFA 클럽 월드컵 3위
- 2009년 K리그 통합 2위

STEEL YARD

스틸야드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전용구장이다. 우리나라 구장 중 유일하게 사파드조 원형석을 보유했으며 총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2009년 잔디 교체 및 원형석 리프트를 공사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월드컵 경기장의 규모에는 못미치지만 K리그의 역사가 살아있는 팬을 위한 전용구장이다. 스틸야드에서 직접 관람하는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못지않게 생동감을 당신에게 전할 것이다.

LEGEND OF STEEL WARRIOR

명문구단의 위용

전설이 된 선수들



1980년대

가파르게 상륙으로 100% 자랑하는 박성화, 이훈만 순한 최순호 감독

1990년대

전설의 고성민, A급 왕병의 전설 레전드 포항 팬이 라면 누구냐 라는 극적 우승의 주인공 박성화, 최교의 테크닉서 최민서 명명한 라면로 흥행몰이 무적 황새 황선홍

2000년대

원활의 마법사 허석우, K리그 수문장의 역사 강철 수비 이재는 더 잘 갔도 없는 오범석, 포항 스틸러스 수비진 핵심 황재환, 김형일

2010년대

셀러우두 살기엔 아쉽게 대표팀에서 낙한 신형민, 우루과이전에서 활황 불타던 김재성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산

4년 만에 찾아온 공놀이를 보느라 밤잠깨나 설쳤다. 근데 비몽사몽 뭘 봤는지 기억은 나나? 그럴까 봐 MAXIMO 월드컵이 남긴 이슈들을 쑥쑥 뽑아봤다.

BY 양기환 IMAGES 스페인 팀, 독일 팀, 프랑스 팀, 멕시코, 남아공(에/Getty Images/멀티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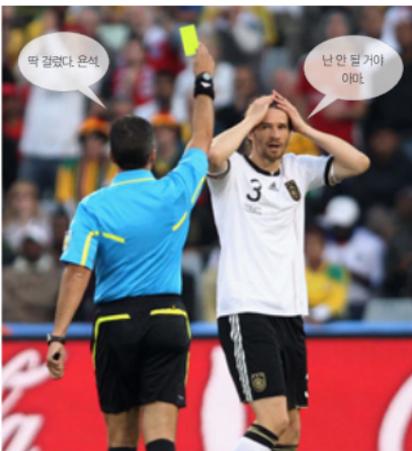
1 대세는 실리 축구

이번 월드컵에서는 '상대 공격을 막아 놓으면서 동시에 넣기도 하는' 이른바 '실리 축구'가 대세를 이뤘다. 네덜란드와 브라질을 비롯해 우루과이, 파라과이, 스페인, 일본 등 실속 있는 축구를 펼친 팀들이 남아공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브라질은 열무의 희망으로 4강 문턱에서 좌절하며 자국 팬들의 맹 비난을 들어야했지만) 동가의 축구 지체는 그럭저럭 호평을 받았다. 4년 전 월드컵에서는 탄탄한 수비력을 가진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차지하며 '수비 축구'가 세계 축구의 트렌드라 지리 잡았다. 하지만 이번 남아공에서는 공기를 주지 않는 지역방어로 상대 공격을 봉쇄하고 빠른 역습으로 효율적 공격을 하는 패턴이 주가 되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32개국 중 가장 안정적인 공수의 밸런스를 보여주었다. 네덜란드는 기본 포백 라인에 미드필더인 판 보벨, 더 용까지 수비에 가세하며 탄탄한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리고 중원의 스네이더르와 로빈, 엘리아 등 발 빠른 공격수들의 활약으로 결승까지 승승장구했다. 남미의 강세를 이끈 '괴이 형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도 우선 수비 자물쇠를 꼭꼭 채운 뒤 한 방으로 끝내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가나와 치른 8강전에서 수아레스가 후반 막판 1점의 골을 불러들였지만 머라도나오는 또 다른 유행의 신의 손이었다하며 조국의 40년 만의 4강행을 이끌었다. 동가의 브라질은 8강까지 순항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망이었다. 삼바 색을 과감히 버리고 팀워크를 기반으로 실리 축구의 색깔을 입힌다면 8강에서 네덜란드에 무리하게 무너지며 한순간에 역적이었다. 반면 스페인의 축구는 대성공이었다. 스페인 델 보스케 감독은 사전 매모를 하고 필요한 물품만 장바구니에 담은 실속파 주부 같다. 스페인은 승리하는 데 딱 필요한 골만 넣고 실점은 최소화해 우승컵을 싹 빼갔다. 스페인은 총 7경기에서 8골 2실점의 전설 축구를 펼쳤는데 이 중 1-0 승리가 네 번이었다. 이 얼마나 실리적인가!



2 슈퍼스타들의 쓸쓸한 퇴장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던 스타들은 남아공 땅에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됐다. 세계 축구 트로이카 메시, 호날두, 카카가 하나같이 죽을 썼다. 메시는 한상적인 발재간과 동료에게 필러주는 청초적 킬러 패스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으나 정작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는 4개의 도움만 기록한 채 4년 후 브라질 대회를 가약해야 했다. 엔초 페리리같이 빠른 축구 호날두도 남아공에선 빌정 난 망아지에 불과했다. 골 맛을 보려고 요리리리 뛰어다녔지만 소득은 없었다. 16강전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과 붙은 게 불운이었다. 포르투갈이 북한과 벌인 조별 예선에서 '어부바 골'을 넣으며 시동을 걸었지만 무적반대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그의 퍼포먼스도 막을 내려야 했다. 삼바 군단의 에이스 카카는 자신의 플레이와 동가 감독의 실리 축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사기 캐릭 카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코트다부르전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받은 레드카드 그는 그의 불운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다. 하지만 클로제만큼은 여전했다. 사실 클로제는 올 시즌 리그에서 극도의 부진에 빠졌고 팬들은 그의 남아공행에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데리고 가준 퀼브 감독의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듯 5경기에서 4골(통산 14호 골)을 넣으며 호너우두의 월드컵 최다 골(15골) 기록에 턱밑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축구의 신은 자신과 동급인 호너우두의 기록이 깨지는 걸 시샘했던 걸까. 클로제는 간직작세로 찾아온 허리 부상으로 세 역사를 쓸 때는 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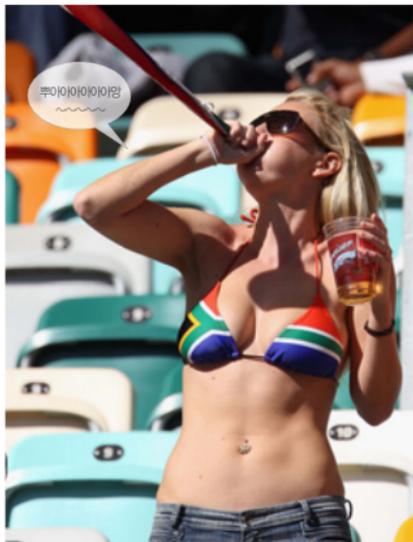


3 이 죽일 놈의 오심!

대화마다 타자는 이번에도 예외 없었다. 지난 대회 때보다 7배나 많은 32개의 카메라 부대는 심판이 보지 못한 구석구석을 잡아내며 그들이 든 봉 사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서 오심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16강에서 독일과 만난 잉글랜드는 전반까지 1-2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잉글랜드는 전반 막판 동점 기회를 얻었다. 램퍼드가 때린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을 통과한 뒤 행커나온 것이다. 이런 축구의 '죽' 자도 모르는 당시선 여진이 났어도 어김없이 골이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한 흐르레라 리온은 다 주신은 램퍼드의 슈트를 특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절호의 동점 찬스를 날린 잉글랜드는 독일에 말리며 1-4로 대패했다. 이 죽일 놈의 오심으로 없었으면 차미에터라구 통째 시력을 가진 로트 심판 도입이 시급하다!

4 유럽 강세, 아프리카 시 to the 망

아프리카 팀들은 개최국 자격을 얻은 남아공을 포함해 사상 최다인 6개국이 본선 무대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개최 대륙의 프리미엄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줄줄이 무너졌다. 6개국 중 16강에 오른 나라는 초콜릿처럼 끈적끈적한 팀워크를 보여준 가나뿐이었다. 가장 많은 13개국이 본선에 오른 유럽은 우승 후보로 꼽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며 우울한 여름을 보낼 뻔했다. 강호 스페인과 잉글랜드도 조별 예선부터 뼈저리게 감지했다. 하지만 역시 유럽은 강했다. 유럽은 준결승 4자리 중 3개를 뺏으면서 축구 강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미는 8강까지 4팀이 올라가며 선전했지만 양 강인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독일에 각각 발리며 일처감치 짐을 싸야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이좋게 16강에 오르며 아시아의 티켓 존속권을 일축했다.



뿌아아아아아아앙

5 '신형 전차 군단' 독일 신드롬

이번 월드컵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팀을 꼽으라면 단연 독일이다. 독일은 비록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평균 연령 26.3세인 신형 전차 군단의 성능은 놀라웠다. 낡은 본체의 녹을 벗기고 새몸통 튜닝한 게르만 전차는 아프리카 대륙을 토벌할 만큼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다. '중원 사령관' 슈바인슈타이거는 발라 이상의 지휘력을 선보이며 그의 공백을 무색케 했다. 게다가 외젠, 필러, 케타라라는 신무기의 장착으로 기존 독일이 신궁은 스타일에 화려함을 기미했다. 독일은 조별 리그를 2승 1패로 통과하더니 16강과 8강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를 각각 4-1, 4-0으로 대파하며 준결승까지 뚫아 내달렸다. 그러나 초반에 너무 자라친 화력을 뽐은 탓일까. 전차 부대는 4강전에서 무적 현대의 대포 한 방을 맞고 파고라졌다. 내전기에 우승까지 바라본 독일은 9위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독일이 보여줬던 축구는 많은 팬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예사처럼 넘치고 시원시원한 플레이에 기술까지 더해져서 무수히 많은 골이 쏟아져 나왔고 현저 팬들은 부부젤라 콘서트로 화답했다. 역시 골은 많이 넣어야 제맛이다!



6 진정한 무적함대로 거듭난 스페인

스페인인 네달리드를 꺾고 19번째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다.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을 들어 올리며 80년 만에 무관의 한을 풀었다. 매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면서 정작 타이틀이 없던 스페인은 남아공의 패배를 장식하며 '진동 무적함대'가 됐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도 짧은 패스를 일사 없이 주고받으며 볼 점유율을 높이는 '포제션 축구'를 선보였다. 사비, 이니에스타, 페드로 등 비르셀로나 출신이 대거 포진한 라 리가는 워닝 일레븐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다. 비이는 5골로 무적함대의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스페인이 치른 일곱 경기 중 주도권을 상대방에 내준 상황은 거의 없었다. 미드필더들의 볼 손수 능력의 위력은 탁월하고 웬만해서는 원터치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장악할 수 있었다. 수비 시에는 좀처럼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상대 공격자가 공을 잡으면 손수건에 두세 명이 에워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다는 로번도 스페인의 협력 수비 앞에선 속살없이 무너졌다. 스페인은 두 메이저 대회유로, 월드컵을 연속해서 석권하며 향후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됐다. 말뿐인 무적함대가 진정한 무적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7 어김없이 깨져버린 징크스

수십 년을 이어오던 월드컵 징크스가 이번 대회에서 외로로 깨졌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개최국 남아공이다. 남아공은 '이제껏 개최국이 16강도 못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징크스를 보기 좋게 깨버렸다. 남아공은 조별 예선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보이며 무부젤라를 미친 듯이 붙여대던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다. 스페인이 우승하면서 1930년 우루과이 대회 때부터 내려온 '남미, 유럽의 대륙별 순환 우승' 징크스와 '비유럽에서 열린다면 남미가 우승한다'는 징크스도 함께 깨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이전 대회에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 다음 대회는 16강 이상 올라간다'는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다. 말소사. 그럼 우리 2010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후구가 되는 건가?



8 남아공 하늘에 떠오른 셋별들

남아공 땅에도 어김없이 셋별이 떴다. 이번에는 독일산 별들의 광채가 가장 빛났다. 독일의 어린 공격수 쾰러는 월드컵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르는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쾰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데스리가 3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아마추어 선수에 불과했다. 그런 무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한 월드컵에서 골든슈(골과 영 플레이어 상을 동시에 차지하여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독일 미드필더 외칠은 자신의 이름 두 자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부름은 개구리 눈매가 매력적인 외침은 앙서유처럼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 태백 패스로 전차 군단의 활력을 책임졌다. 우리의 8강 야망을 산산조각 냈던 수아레스의 자체 발광도 눈부셨다. 각도만 생기면 사정없이 때리는 대표 앞 속도 끝내지 못한 조국을 40년 만에 4강행에 이끈 '신의 손' 사건은 그를 일약 우루과이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볼프 머리 도스산토스(멕시코)와 이청용의 활약도 별들의 대열에 들기에 충분히 눈부셨다. 아 이리다 설명하겠네.



9 자기 스타일에 무섭도록 집착한 팀들

실리 축구라는 대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구여를 끝까지 고집한 팀이 있었다. 대표적 팀이 비열산 감독이 이끈 칠레다. 칠레는 대회 내내 '무조건 돌진 앞으로'를 표방했다. 산체스와 수아소를 내세운 칠레의 공격진은 설 세 없이 발 발 거리는 빠른 발로 상대 수비진의 골머리를 팍팍 쳤다. 하지만 돌아치기 바빴던 칠레는 치고 빠지는 데에는 재주가 없었다. 칠레는 16강 상대가 브라질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는지 뒷문 단속에 소홀했고, 결국 세 골이나 반집팀이 당했다. 지리적 특성조차 갑갑한 스위스는 알프스같이 견고한 포백 라인을 쌓으며 상대가 공격만 하다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질식 축구'를 선보였다. 조별 예선 3경기 동안 스위스가 득점과 실점은 각각 1골에 불과했으니 말 다한 거 아닌가. 하지만 스위스보다 더한 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파라과이와 벌인 16강전에서 진정한 수면 축구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부부젤라를 한차례 불러대던 남아공 주민들도 이 경기를 보다가 지쳤는지 침을 흘리며 꾸벅꾸벅다.

RIDICULOUS AWARDS

MAXIM 남아공 월드컵 황당 시상식

월드컵의 재미를 더해준 이들에게 상을 내리노라.

5천 만 국민을 놀라게 한 반전드라마 상 - 김남일

김남일은 우루과이와 벌인 16강전에서 수비진화를 위해 후반 교체 투입되었다. 하지만 34년 된 이 정경형은 오랜만의 직업을 맡을 듯이 않았다. 결국 그는 경기로 여겨온 패닉이 막스 안 태클을 감행해 상대 공격자의 다리를 뺏아들었고 그 순간 우리는 또 한번의 극적인 반전드라마를 봐야 했다.

괴물이 터질 것 같아 불을 칠 수가 없어서 상 - 남아공 원주인 부부 켈러 오케스트라 악단



남아공 원주민들은 진정한 소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았다. '슈퍼 초해머드급 집단 뿌우우우' 하는 소리에 선수들의 정신은 피폐해지던 것과 같아 시청자들은 움츠러 버릴까 봐 놀라게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짐승과 같았다. 그들이 맞닥뜨린 맹물의 형은 리운드를 거칠 할수록 줄어들었고 심지어 부부젤라 소리가 없으면 월드컵 보는 맛이 안 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달걀.

자나 깨나 자연보호 상 - 카추라니스



한 선수의 행동 하나가 경제위기로 어려운 국가 이미지를 드높였다. 그리스의 혼남 미드필더 카추라니스는 우리나라와 경기 도중에 파인 잔디를 꼭꼭 눌러 심었다. 그것도 0-2로 뒤진 상황에서 일이대 그리스인은 신화의 민족극 대연에 기쁨을 갖고 있었다.

도박사보다 통통한 능력자 상 - 정영이 언어 미술



한날 연체동물이 이렇게 영리한 줄은 몰

랐을 거다. 독일 해랑생물학관 소속인 에서는 정영이 언어 미술은 독일의 월드컵 7경기 승패 결과와 스페인의 우승을 모두 맞았다. 로또만큼 맞추기 힘든 월드컵 결과에 줄줄이 맞춘 파울의 몸값은 4000만 원이라 치렀겠다. 취지 각성에 시리지는 당시 시시 으르렁 흰 눈여회를 따바타고 삼을 거다.

벗고 깎다가 이미지까지 깎아먹은 상 - 김홍국 최화정

우라리가 16강에 진출하는 바람에 무심코 벌은 약속을 실천한 이들이 있다. 호랑나비 홍국이 가져가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을 과감히 삭발했고 화정이 이모는 아무도 얹지 않는 비키니 진행을 끝까지 진행했다. 결과는? 둘 다 색 볼이 좋진 않았다.

쿠어스필드의 다섯 생존자

쿠어스 무덤에서 투수들이 살아 돌아오기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덴버 공동모지에서 화려한 셋아웃을 기록하며 제발로 당당히 무덤을 기어 나온 다섯 생존자를 만나보자.

BY 양기명 IMAGES 모든 야구 사진/Getty Images/로이터



야구에 쥐여받은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쿠어스필드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1986년에 개장한 쿠어스필드는 덴버가 연고인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이다. 지역 맥주 회사의 이름을 딴 이 구장은 태백산 정상보다 높은 해발 1610m에 자리 잡고 있다. 덕분에 쿠어스필드를 찾는 팬들은 병풍처럼 펼쳐진 로키산맥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지만 이따리너하게도 투수들은 도살장 끌러가는 돼지마냥 이곳에 가기 싫어 한다. 왜? 아무리 날고 가는 투수라도 이곳에선 생애장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승 투수이던 마이크 햄프턴과 데릴 카일도 콜로라도 유니폼을 갈아입고 처참히 묻혔다. MLB 정상급 투수들이 쿠어스필드에 방문하는 족족 묻히는 이유는 산동네의 낮은 기압 때문이다. 기압이 낮으면 공기 밀도는 희박해진다.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 타구 비거리는 늘어나고 투수의 변화구는 각이 무더진다. 이로 인해 타구 속도는 빨라지고 그만큼 안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제 왜 쿠어스필드가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지 알겠지?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산만 처리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여기 죽음의 무덤을 기어코 헤쳐나온 불굴의 다섯 투수가 있다.

1. 김선우

현재는 실력보다 2PM 준호와 사촌지간으로 더 유명한 김선우도 쿠어스 무덤에서 완봉승을 거둔 적이 있다. 잠실 행두산에서 열심히 사잡히는 지금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김선우의 쿠어스필드 완봉승은 존 톨슨 이후 4년 만에 나온 대단한 기록이었다. 김선우는 샌프란시스코 지아언츠와 발인 홈경기에서 901명 동안 3피안타 3탈삼진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고 팀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그날 평소보다 작구 구속이 떨어졌지만 변화구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6회 8번 타자 마이크 매시나에게 내준 볼넷만 아니었다면 무사사구 완봉승도 가능했다. 백기는 베리 본즈와의 대결이었다. 김선우는 세계 최고 타자인 본즈와 겨룬 3차례 승부를 모두 범타로 잡아메야 양 카들에게 한국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줬다.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알미울 만큼 컨트롤이 좋은 변화구로 상대 타자를 낚아내던 일리아스로 만들었다. 경기 후 클린트 허들 감독은 "이 경기장이 개장한 이래 최고의 피칭으로 치른 완벽한 경기였다"며 김선우의 피칭을 칭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럼 뭐하니? 아직도 삼판 볼 뿐인데.

2. 톰 글래빈

최완 기교파의 교과서 글래빈은 무덤에서 두 차례 셋아웃을 기록한 유일한 투수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에이스였던 글래빈은 "야구에 대한 나의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허세가 틀리지 않을 뎀스 증명했다. 글래빈은 평생 한 번도 힘들다는 쿠어스필드 완봉승을 무려 두 번이나(1905년 6월 17일, 1907년 4월 19일) 해냈다. 글래빈은 완봉승을 거둔 두 경기에서 10개의 삼진을 잡으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크레이지 피칭을 펼쳤다. 그는 쿠어스필드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10번 이상 등판했을 동안 3점 초반대의 기적 같은 방어율(참고로 쿠어스필드 통산 방어율은 5점대대를 넘기며 끝까지 생애장을 거부했다. 이름 되면 영예의 전당에 올리고 할 말 없지 않나?)



3. 노모 히데오

LA 다저스 시절 박찬호의 팀 메이트로도 잘 알려진 '늑은 어머니' 히데오는 하늘이 점차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노히트 노런을 두 번이나 해낸 엄청난 선수다. 그것도 양 대 리그에서 각각 한 번씩 말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덤에서 나온 기록이다. 노모는 1966년 9월 17일 쿠어스필드에서 901명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고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노히트 노런을 만들어냈다. 노모의 쿠어스 노히트 노런 기록이 더욱 대단한 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대기폭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그날, 덴버는 비가 오르기 시작하는 곳 은 날씨였다. 짙은 마운트 탓에 와이드업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노모는 평상시보다 어려운 투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노모는 불굴의 시루라이 피칭으로 MLB의 새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쿠어스필드에서 딱 한 번 잘 던진 날이 바로 노히트 게임을 달성한 그날이다. 그전까지 노모는 쿠어스필드에서 9장대로 리그 최약의 방어율을 달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4. 팻 렘

청서치 군단(플로리다 밀린스)의 선발 투수였던 팻 렘은 1965년 9월 18일 쿠어스필드에서 완봉승을 거뒀다. 렘은 공격적으로 먹고사는 플로리다의 막강 타선을 맞아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렘은 901명 동안 단 1개의 안타만 내줬고 7명의 플로리다 타자를 바보로 만들어 팀을 17-0 대승으로 이끌었다. 렘의 완봉승은 당시까지 2번재로 안타를 적게 내주며 세운 기록이었다. 하지만 렘이 노히트 노런이란 대기록을 남기는 게 배 아뻘던 플로리다의 타자 단테 베크트는 렘이 던진 공을 기어이 쳐냈고 빛맛은 타구는 행운의 안간기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서 놓쳐야만 했다.



5. 로이 오스왈트

우리에게도 친근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스 로이 오스왈트(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두 차례나 발라버리면서 금메달을 땀다는 콜로라도만 만나면 팔팔 날았다. 오스왈트는 2008년 9월 7일 쿠어스필드에서 901명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를 내주며 콜로라도 타선을 요리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5월 17일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벌인 홈경기에 선발 투수로서 2경기 연속 완봉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그는 피츠버그 타선을 맞아 89개의 투구수 중 무려 70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으며 그레 맥러스 행치는 컨트를 을 선보였다. 공기가 부족한 산 무덤에서 역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

데 말이다! 게다가 출루한 3명의 주자마저 모두 더블플레이로 잡아내는 바람에 27명의 타자만 상대. 진루 '0' 의 최위권 기록을 남겼다. 27타자 무사사구 완봉승은 어지간한 노히트 노런 경이보다도 힘든 기록이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만큼 잘 던진다고 해서 붙은 '화이트 페드로' 라는 별명이 그보다 잘 어울리는 백인은 없을 거다!

한 미 일 新 에이스 삼국지

삼국에 새로운 영웅이 강림했다.



류현진

리뷰 김광현이 있지만 무재김광현이 2배가 더 나간다는 따지면, 류현진이 영성상부한 대한민국의 에이스다. 그는 데뷔 첫해부터 투수 3관왕과 신인왕, MVP를 동시에 석권하며 한국 야구의 괴물이 되었다. 이는 100년이 넘는 MLB 역사에서도 두 차례밖에 있는 일이다! 50km/h의 패스트볼과 세류 체인지업이 주 무기인 그는 현재(2010년 7월 9일 기준) 1승으로 다승 선두를 달리며 진정한 야구 슈퍼스타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산 고졸 히메네스와 비교할 때 그는 더욱 정교한 체구와 버라이어티한 구종을 갖췄다. 향토에서는 2세에 불과한 그의 현재 기량이 선동렬 박찬호의 전성기 못지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려, 지금처럼만 쏘복 자라다오.



히메네즈

히메네즈는 신동(콜로라도) 출신 최초로 세이빙상 수상이 기대되는 선수다. 시속 160km를 웃도는 투심 패스트볼을 무기로 메이저 리그를 행창하고 있는 그는 현재(2010년 7월 9일 기준)까지 15승(다승 1위)을 거두는 동안 단 1패만을 기록 중이다. 그는 데뷔전도 1승 이후 10년 만에 전반기에 15승을 따낸 선수가 됐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나선다. 이 정도라면 쿠어스필드에 히메네즈 등성이라도 생길 거시다!

다르빗수는 최근 3년간 시몬이다 15승 이상씩 챙겨온 일본 최고의 투수다. 극강의 우완 다르빗수는 165cm의 장신에서 내리꽂는 변화구와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볼 배합을 앞세워 지난 5월엔 무려 30년쯤 무실점으로 불어 막았다. 그는 반항점을 든 을 시몬 때나 당하는 부진(70)에 빠졌지만 다음 2월(8승)과 개년 최고의 평균 자책(1.4)을 기록하며 여전히 골라스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에이스도 한국 김태균에게 140m 대포로 두들겨맞은 적이 있다!



다르빗수



TO DIE FOR

피와 땀으로 충만한 HBO의 (트루 블러드)에는 나타샤 알람 공주님(진짜 공주대이 스트리퍼) 등장해 그 흥롱한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며 많은 이의 가슴에 강렬한 일광을 올린다. 그녀에게 스트립 댄스 교습비가 아깝진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나?

BY BREKKE FLETCHER PHOTOGRAPHS BY KAYT JONES



브래지어 및 언더 | Chantal Thomas
구두 Terry Biviano



U즈베키스탄의 툰드라 지방에 대해 알고 있나? 추위로 공공 얼어붙은 딱딱한 땅 배고는 뭐가 유명하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옇튼 나타샤 알람이라는 배우가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으로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 시절 그녀는 모델 에이전시에 발탁되어 이후 전 세계를 돌며 모델 활동을 했다. 그리고 결혼했다! 제길. 심지어 상대는 이란 왕족이었다. 이후 우리의 버림대로 그녀는 이혼을 했지만 평생 '프린세스'라는 칭호는 잃지 않는다. 이 고귀한 미소는 브라운군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미드 (인투리자) (남작) (CS)에서 간간히 단역으로 등장하던 그녀는 현재 미국 HBO에서는 난쟁, 오입질의 끝을 보여주는 색다른 뱀파이어 이야기 (트루 블러드) 새 시즌에 출연하고 있다. 나타샤 알람은 뱀파이어 리드 여역의 가슴팍에 인기는 스트리머로 등장해 압도적인 매력과 가슴, 훌륭한 노출 연기와 신음 소리로 많은 시청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트루 블러드)에 관심이 없었던 당신도 그녀가 몸을 잡고 돌거나 뱀파이어와 질척하게 몸을 섞는 장면을 보면 아마 그 감동을 받기 위해 보고 또 보고, 다운로드하고, 이드리아가 3D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게 될 거다(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다).

<트루 블러드>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동유럽에서 온 연서 이베타를 연기하면서 몸을 잡고 춤을 춘다. 주인공 에릭이 운영하는 뱀파이어 나이트클럽 팡타자에서 일하기 위해 오디션을 보다가 갑자기 에릭과 서로의 몸을 탐닉한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내가 뽑힌다. 내가 가서 하는 일은 대체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거다.

어땠나?

재미있었다. 붕 잡고 춤추는 레슨을 받았고 촬영 중에 몇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

음, 기술이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춤 배우주고 뒤집어주고, 색다른 문짓을 보여준다.

에릭 역의 알렉산더 스카스기드와 촬영장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격렬한 섹스 촬영에 몰입했다는 게 사실인가?

맞다. 처음 만나서 첫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센 장면을 찍어야 했다. 그가 말했다. '초면에 이렇게 인사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여기 서서 다 보고 그걸 한다는 게'

아니 그게 뭘 배워든 소리인가?

나도 몹시 긴장했는데 누드라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실 딸리는 장면은 어떻게 말했?

배우는 누드 장면을 찍을 때 대부분 주요 부위를 가리는 특별한 언더웨어 비슷한 걸 입는다. 음, 그는 말했어. 그가 걸어 들어오더니 가슴을 벗었는데 정말로 속옷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난 '그래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의 벗은 몸을 보고 인기가 풀렸다는 건가?

그가 섹스인 촬영에 끝난 자제로 인해 서 나도 자신감을 얻었다. 몸은 기릴 게 없는 걸은 걸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고향 우즈베키스탄은 자주 방문하?

전혀 고향에 가보지는 가족들이 나를 보러 오도록 하는 게 낫다. 부모가 고심하다 돌아간 뒤 통증을 겪어

나? 가련 우울해지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간섭 수 없어진다.

영역은 어떻게 배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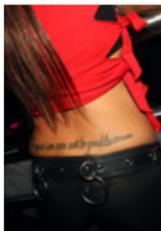
20대 초반에 모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날 엄청하게 생각한다는 묘한 기분 이 들었다.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말을 알아듣거나 말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모든 사람이 내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영어 자막이 나오는 미국 영화와 영문 서적을 잔뜩 읽는다. 두 달 정도 후 나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장담 놀랍다!

당신이 인생에서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정도 빨리 배우는 것쯤은 경미하다.



뜨거운 촬영 현장



WORLD CUP IN DA CLUB Party

MAXIM

6월 26일, 대한민국의 원정 첫 16강전의 승리를 좀 더 화끈하게 만끽하기 위해 파티 피플이 모였다. 승리를 의심하는 이는 물론 한 명도 없었다. 레드 코드로 온통 핫하게 꾸민 파티 피플의 열정에 8강 진출의 기쁨을 얻은 클러빙을 밤새 즐기 위해 구름 같은 인파가 일찌감치 몰려들기 시작했다. 16강 탈락 순간엔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 하지만 좌절도 잠시, 그 무엇보다 이미 돌아오른 파티의 열기를 식힐 순 없었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최상민, 최한울, kajpaparazzi, RACCOON
COOPERATIONS GOA LIMITED (www.goalimited.com) CLUB MASS(www.clubmass.net)



01

결과는?

졌다. 젠장. 이날 우루과이의 수아레즈에게 당한 일격에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전폭 기대에 부풀어 클럽을 찾은 사람들이 친물을 끼얹은 듯 울상을 하고 클럽을 떠나 소주 집으로 향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들은 진정 즐길 줄 아는 파티 마니아들이었다. 축구 팬에게도 불구하고 광란의 파티를 끌어낸 GOA 크루들의 매끄러운 기획이 빛나는 장면이었다.



02

오 히어 클러버들은 한국의 8강 진출 실패는 까맣게 잊은 듯, 아니 오히려 좌절을 광란의 밤으로 승화하려는 듯, DJ 에릭 쿠퍼의 디제잉에 맞춰 광란의 몸짓을 시작했다. 에릭 쿠퍼는 이미 국내에도 상당수의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다. 그는 그래미 덴스 음반을 수상했고 수차례 빌보드 차트를 휩쓴 바 있다. 그가 선사하는 몽환적인 비트에 빠져들면서 어느덧 사람들은 눈앞에 한자를 드러내며 열광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붉은 악마의 파이팅을 나타내던 레드 코드 의상은 이제 정열의 상징일 뿐이었다.





03

새벽 3시가 지나자 곳곳에서 우루라이전 페스티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클럽 매스로 몰려든 사람들이 플로어를 더욱 가득 메우고는 격양된 비트와 사운드에 몸을 맡겼다. 연이던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트렌스 DJ 백승이 올라와 다시 한 번 클러버들을 무이지경으로 뒤흔었다. MAXIM과 함께하는 GOA 파티는 언제나 그랬듯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날도 아침 햇살이 클럽 안구 안을 비출 때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파티 플래너 GOA Limited의 절고 친조적인 크루들은 다음 파티를 준비하며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그들의 파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MAXIM이 이들과 함께 한다.



DJ LINE-UP Eric Kupper

원래 프랑스 출신인 에릭 쿠퍼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키보드 연주자, 편곡자, 작곡가이자 최고의 리믹스 아티스트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세션 키보드 연주자, 기타리스트로 밴드 활동을 하며 음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400장이 넘는 음반 작업에 참여했고, 이것이 에릭 쿠퍼의 음악 영역을 넓히는 토양이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Eric Kupper presents K-Scope'라는 이름 아래 3장의 앨범을 냈고, 가장 최근 앨범은 2009년 1월에 발매된 'Bedrknuss'다. 헤드폰을 머치 전화 수화기처럼 붙들고 디제잉을 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그는 이날 클럽 매스에서 열린 GOA 파티에서도 특유의 디제잉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록, 펑크, 하우스, 모크, 팝 등을 조화시키는 에릭 쿠퍼에게는 '여러 장르에서 영감을 얻은 다채로움'이라는 수식어가 함께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침해이 없다'거나 '집식 DJ'라는 혹평을 쏟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퓨전과 믹싱에 유독 패김을 느끼는 우리나라 클러버들에게는 이미 최고의 DJ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GavyNJ FIRST EXPERIENCE

BY 고경희 WORDS BY 김상빈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오정기 ASSISTANT 조영민



촬영장 침투하기

미스틱 >> 화이트 컬러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장화영 >> 블랙 & 화이트 컬러 스트라이프 민소매 티셔츠 Papaya
노시연 >> 화이트 컬러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스카이 블루 컬러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레오파드 패턴 쇼츠 codes combine





노시환 >

여머글드 컬러 시스루 상의 **sig-ri**

스카이블루 컬러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화이트 & 블루 컬러 스트라이프 쇼츠 **TOMMY HILFGER**



《장희영》

입체적인 실루엣의 원피스 MICHAEL KORS
사각 방금, 실버 원형 빈지 모두 JAME & BELL
블랙 컬러 슈즈 LMOSTREET
실버 컬러 적삼 CARBINE by 레지프로



미스티 >> 서은 원미스 Panna
 노시현 >> 블랙 컬러 시스루 상의 JAMESBELL
 비틀 컬러 비키니 에디터 소장
 비틀 컬러 쇼츠 TOMMY HILFGER
 장화영 >> 블랙 & 화이트 컬러 스트라이프 원피스 MICHAEL KORS
 실버 반지 개인 소장품

실제로 만나 보니 훨씬 미인이다. 포털 사이트에 걸린 멤버들 사진 교체기 시급하다.

사진 찍는 게 여전히 어색하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끝내야 하는 인터뷰는 어색함이 극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나온 사진마다 멸망 그 자체다. 포털 사이트에 사진을 교체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그름영이 멋지다. 노래의 여왕, 기바(歌妃)인(이제 이(歌)부! 새 멤버 미스티가 들어왔으니 그름영도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들 그름영에 담긴 뜻을 알면 멋있다고 좋아하더라. 정혜민이 나가고 미스티가 들어왔지만 노시현(눈을 담당), 장화영(몸을 담당)은 건재하니까 그름영은 일단 그대로 갈 거다.

소속사 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는 그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았고, 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몇 년 동안 법정과 경찰서를 뒹굴나게 드나들었다. 멤버 모두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경험을 한 셈이다.

매번 슬픈 노래의 곡을 타이틀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나?

우리고 밝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목소리가 도통 어울리지 않는다. 팬들도 우리가 미디엄 벨로의 슬

픈 노래를 부를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소속사 대표님이 직곡가라서 매번 타이틀로 비슷한 스타일의 슬픈 노래를 준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대웃음. 곡 깊이가 들지 않는 건 장점이다.

MAXIM 화보를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화보 촬영이 처음이라서 많이 놀랐다. MAXIM을 뒤적거렸더니 할벗은 여자 사진이 많아서 놀라 지빠지는 줄 알았다. 보수적인 화영은 처음 보고 평평 울었을 정도다. MAXIM에서 보내준 촬영 컨셉트를 보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작작 화보 촬영을 가장 멋지게 소화한 건 화영이었다.

화보 촬영이 처음인 데다 MAXIM 화보여서 각정을 많이 했는데 촬영장 스태프가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음악 방송이 아니고선 당신들을 TV에서 보기가 힘들다.

라디오는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편한데 얼굴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예능감이 없다 보니 예능 프로그램은 이유래도 불편하다. 출연했다가 통편지정답 방송에 나오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데뷔한 후 멤버들의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했다고 들었다.

연예계는 먹고 먹히는 정글이다. 마음을 믿고 맡길 사람이 별로 없다.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했다. 여기에 슬픈 노래를 매번 감정을 잡고 부르다 보니 더욱 내성적인 성격이 되더라.

좋아하는 이상형의 연예인을 말해달라.

일본 그룹 아라시의 나노미야 카즈나리, 강동원, 그리고 소지섭.

정말 이상형이군! 에디터처럼 평범한(?)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당신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냥 사이다.

가수가 아닌 다른 분야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화영은 뮤지컬, 시연과 미스티는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가수로서 실도 즐겁지만 연기를 통해 스스로의 틀을 깨버리고 싶다. 그리고 나면 방송 무대에서도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지금 기바엔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음반이 무조건 많이 팔리는 거다.



《노시먼》

질개선 사이로 속이 보이는 화이트 컬러 티셔츠 **Gaia**

블랙 컬러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심어 반금 **JAMESBELL**

화이트 컬러 라인 장식의 스커트 **skg-er**





《장화영》
코르셋 모양의 데님 핏 MANGO
심비 왕금 JAMESBELL
데님 스츠 adidas Originals
지브라 패턴의 슈즈 SHOESONE

ICON

BY 이영미 WORDS BY 김경한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HAIR / MAKE-UP 리뷰티코(뷰티앙)
ASSISTANT 조정은
COOPERATIONS HUGO BOSS(02-543-7685) BDN(02-514-0693) BROWNBREATH(www.brownbreath.com)

Woo

MAXIM이 황태자 같은 외모에 마당쇠처럼 친근한 성격을 더한 멋진 남자 우지원을 만났다.



우지원 사진봉 받기

Ji Won

전장, 실물이 훨씬 질서였다. 당시처럼 잘생긴 얼굴로 선다면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었겠다.

잘생겼다고 생각해보면 적 없다. 운동 선수치고 험하지 않게 생긴 정도다.

검슨이 지나치다. 솔직히 잘생겨서 덕본 경우가 훨씬 많을 거다.

선수로서는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다. 사람들이 기록 외적인 걸로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F4가 부러지 않은 대학 시절에는 여자 팬이 99.9%였다.

울산 모비스 시절 팀이 우승한 후 남자 팬이 적잖이 생겼다. 별명이 황태자에서 마당쇠로 바뀌어사인지 남자 팬이 하나둘씩 늘어났다(웃음).

당시 고려대 박한 감독을 둘러싼 유머 시리즈가 유행이었다. 선수들에게 "넌 리버풀도 해?" "넌 공객해?" 등 일관적(?) 전술을 지시했던 게 사실인가?

어느 정도 부풀려지긴 했지만 친한 선수에게 듣기라도 박한 감독님이 큰 맥락(?) 위주로 지시한 건 사실이다.

대학 시절 팬에게 받은 가장 인상적인 선물은?

가장 인상적인 팬은 있었다. 체육관에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울면서 나를 찾았다. 얼마나 섬뜩한가 싶었을 정도로 알고 보니 자방에 사는 팬이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날 만나면 수술

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란 생각이 들었던다. 아직 그때 기억은 생생하다.

여자 팬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스타들은 거의 없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다.

수많은 여자 팬이 꽃이다나더 보면 뜻하지 않게 양다리를 걸친 경우도 있을 거다.

한 번도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 남 녀를 막론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걸 제일 싫어한다.

당시는 아누스처럼 이중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다친 팔이 잘못 교정돼서 많이 휘어진단 쪽도록 노력해서 숏 하나는 자신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대학 시절엔 농구계의 황태자로 불렸지만 프로에선 마당쇠라는 별명도 알았다. 젊은 나이에 식스맨으로 뛰었지만 선수 생활의 마지막 5년 동안 4번의 정규 리그 우승, 2번의 통합 챔피언에 오르며 말년에 화려했다. 그리고 보니 실명서 냉·은평을 아지간에도 많이 오갔다(웃음).

팀에서 끝나가던 슈터가 한순간에 식스맨으로 전락했는데 용케 잘 참았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는 팀에서 주축으로 잘 뛰고 있었기에 더 힘들었다. 술

직히 트레이드 요청을 해볼까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닥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니까 주어진 역할로도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당신과 유재학 감독은 '애증'의 관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감독님이 없었다면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농구 인생을 열여섯 분에 대학 시절 최희광 감독님이라면, 농구 선수로서 삶을 완성시켜준 게 유재학 감독님이다.

자신의 선수 생활을 10자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면?
"후회는 없다."

지도자 수업 대신 유소년 농구 교실을 시작한다고 들었다.

8월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지에서 '우지원 W Gym 유소년 농구 교실'을 시작했다. 초·중학생과 농구에 관심이 있는 어른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최근에 농구 열기도 한풀 꺾였고, 초·중·고 농구팀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다.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길게 봤을 때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까지 망라하는 아카데미로 만들고 싶다. 최종 목표는 내 이름으로 된 체육관을 오픈하는 거다.

농구 외에 좋아하는 다른 스포츠가

있는지 궁금하다.

야구는 팀 순위를 비롯해 선수의 기록까지 체크할 만큼 좋아한다. 어린 시절부터 삼성과 투신의 팬이었다.

MAXIM과 함께 상의를 벗고 색다른 화보를 촬영했을 생각은 없나?

거절한다. 아이들도 아는데 왜 저꾸 버려? 뜨네!

우지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였나?

소중한 아내와 만나 결혼한 후 귀한 아이를 얻었을 때다. 그녀를 만나 확복한 기쁨을 꾸렸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당신처럼 잘생긴 아내가 있어서 딸들이 무척 행복하겠다.

그려면 뭐하나. 실속이 있어야지(웃음).

오늘 촬영은 어땠나?

영양진창이다! 농담이다. 연예인이 아니라서 사진 촬영은 여전히 낯선데 MAXIM 스태프가 친절하게 대해준 덕분에 잘한 것 같다. MAXIM에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과 내용이 많다. 여지도 재미있게 보는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지원과 농구 한만 하고 싶은 용자는 우지원 W Gym 유소년 농구 교실을 찾아라. 문의 031-74-5565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레드 라인트 화이트 티셔츠, 그레이 티셔츠, 데님 팬츠 모두
BROWNEREATH
시계 모델 소장
(표지) 라이드 블루 & 피치 컬러 체크 셔츠 HUGO BOSS
블랙 컬러 벨트 모델 소장
그레이 컬러 벨트 BON

Dwayne Johnson

전 WWE 선수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그가 영화 <디 아더 가이즈>에서 땀방한 두 가슴을 털링 거리는 슈퍼스타 경찰로 돌아왔다.

자, 첫 번째 질문이다. 어떻게...

열네 살 때 처음 했다. 그 여자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93초였을 거다. 장담한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당신의 세 영화였다.

새뮤얼 L. 잭슨과 나는 산속에서 사랑에 빠진 두 명의 카우보이를 연기했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지.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거다. 우리는 말 대신 양을 가지고 있었지. 참, 질문이 뭐였나?

<디 아더 가이즈>에서 연기하는 건 어땠나?

매우 재미있었다. 우리는 멋진 액션 장면을 찍기 위해 뉴욕을 폐쇄했다. 특히 새뮤얼 잭슨과 일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다. 우리가 먹은 모든 또한 서로에게 잘 맞아서 더 즐거웠다.

누군가가 당신을 '더 록'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쁜가?

그렇다. 난 나를 그렇게 부르는 놈들 깃방망이를 때려준다. 아니, 사실은 '더 록'이란 이름을 좋아한다. 다시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언제든지 다시 '더 록'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든 막노동 일꾼이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보지마지 이렇게 말한다. "어, 록이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록 이씨!" 이들 모두 깃방망이 맞는 거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어린이 영화에 주로 출연하냐?

좋은 영화니까. 나는 가정적이고, 잘 만든 좋은 가족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가족 영화엔 훌륭한 메시지가 있다. 다른 장르의 영화에 도전하러본 마음도 있다.

캐릭터가 운동선수로 유형화되는 것 같은 않나?

그게 바로 배역 배당 미팅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야. 당신이 공을 던져, 그리고 받는 거야 맞지?" 이런 식이다. 스포츠는 언제나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교훈을 준다.

대학 풋볼 선수 시절이 그리지 않나?

나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마이애미 대학에 다녔다. 그때는 무사히 졸업하는 것과 NFL에서 뛰는 게 목표였다. 당시에 말도 안다시피 살은 때로 계획하지 않은 길로 우릴 이끈다. 나는 CFL(캐나다 풋볼리그)에서 잘했고, 그래서 레슬링을 시작했다.

지중 캐나다인들은 배 아프겠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일주일에 34만 원을 벌고, 다른 선수 5명과 방 두 개 딸린 아파트에 살았다. 러브 모델에서 빼내온 메트리스에서 잠을 잤고.

몸이 율가를 봐 걱정하지 않았나?

이제 내 몸매이들은 필리핀산 시면 발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지금은 유명 영화배우이자 모교 대학의 후원자다.

인생이 새롭지 않다. 그렇지 않나? 일주일에 34만 원 벌면서 참치 캔으로 연영하고, 필리핀산 시면발이를 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 대학에 30억 원을 기부하고 학위 수여

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거나. 아예 이 아가가 점점 '오파라스'와 비슷해진 다.

아, 그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이 다른 인생 통로를 걸었다면 무슨 일을 했겠는가?

몇 년 동안 범죄학을 공부했다. 첩보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첩보 영화를 구상 중이다.

영화 <디 아더 가이즈> 후에 또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게 있나?

액션 영화 <패스트, 형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는 캐릭터를 맡았다. 7년 연식의 클래식 세빌을 몰고 알라스카 공도 때려잡는 슈퍼 레드호크 총으로 나쁜 놈 사이를 노린다.

코미디 토크스 '세타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더 록 오버마'를 연기했던 어땠나?

대통령을 연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 역할을 재미있게 소화하고 싶었다. 다, 수석 작가 세스 마이애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락 오바마를 연기하면 팬츠를 것 같은데?" 그는 "더 록 오버마" 로 날 감동시켰다.

바락 오버마를 지지하냐?

나는 대통령의 팬이다. 실제로 우리는 하와이에 있는 두 리아별 학교에 다녔다. 그는 훌륭한 운동선수였고 여전히 몸이 좋다. 그는 언제든지 손을 뻗어 사방에 있는 것들을 흔들낼 수 있지. 다른 이의 영영이를 건어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고 감동 조 절도 질한다.

나쁜 습관이 있나?

거울을 볼 때마다 근육을 핑기는 버릇이 있다.

당신이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직접적이고 단호하다. 다가가서 내 자신을 소개하고 이름을 묻는다. 그리고 "아름답으시네요. 저는 허를 무기로 싸우는 레슬링계의 제왕입니다. 한번 시험해보시겠어요?" 라고 말한다. 대체로 잘 먹혔다.

농장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언제나 농장을 원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에 농장이 있다.

더 록 농장?

난 농부가 아니다. 셔츠를 벗고 시류지를 차려 운전한다. 낚시를 많이 한다. 버지니아의 땅을 샀을 때, 부동산 직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 지역과 정말 잘 어울려요! 씨씨 스페이스(공포영화 <캐러>에서 캐리를 연기한 배우)와 존 그라섬(인기 스타일 작가)이 여기 살거든요!"

훌륭한 볼링팀이 만들어지는 건가? 전혀!



여기엔 보라기



“저는 허를 무기로 싸우는
레슬러입니다. 한번 써보시겠
어요?”

똑똑하고 스마트한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폰

아이폰 4G를 지르지 못한 설움은 잠시 접어두자. 대신 당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줄 똑똑한 스마트폰이 여기 있다.

BY 촬영 PHOTOGRAPHS BY ARC STUDIO

1. SONY ERICSSON XPERIA X10

아이폰 4G, 갤럭시 S, HTC 디자이너가 나온 이 당에 X10은 CPU의 엑스페리아 X1001i 몬스터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이란 건 추오빠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이폰과 대등한 싸움을 펼친 녀석답게 소니 에릭슨에서 내놓은 꽤나 쓸 만한 스마트폰이란 건 사실이다. X10은 소니 에릭슨 고유의 기능이 매력적이다. 휴대속 사진을 편리한 다이렉트로 전송할 수 있고, 음악을 듣다가 유적비디오가 보고 싶다면 유튜브로 바로 접속해서 감상할 수 있다. 80만 화소의 카메라 역시 여타 스마트폰에 비해 또렷한 화질과 색감을 자랑한다. 여성 사용자에게 더욱 인기가 높은 스마트폰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드로이드 1.6 버전이라서 최신 OS만 지원하는 아픔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반기 최신 OS로 업데이트하면 지금보다 훨씬 쓸 만한 녀석으로 변신할 거다. 사무용으로든 마찬가지다.

문의 www.sonyericsson.com/kr/xperia 1588-4170
가격 80만원 원(판매가 기준)

2. HTC DESIRE

넥서스 원의 쌍둥이 동생이다. HTC가 넥서스 원을 출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사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1GHz의 펄런 스냅드래곤 CPU, 3.7인치 아몰레드 AMOLED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500만 화소 AF 카메라 등 스펙도 대동소이하다. 차이가 있다면 램이 512MB로 넥서스 원의 512MB보다 다소 높고, HTC만의 자체 내장용 인터페이스가 탑재된다는 거다. 보통 자체 UI는 안드로이드 기본 UI보다 구려서 있으나 마찬가지 경우라면 HTC 디자이너는 트위터, 페이스북 북을 별도의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이용 가능한 프렌드 스트림(FRIEND STREAM)처럼 자체 UI의 완성도가 높다. OS는 기본적으로 2.1이 설치되어 있고 업그레이드 옵션 2.2일명 프로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www.htc.com/kr 1588-3220
가격 90만 원(판매가 기준)



3
RIM
BLACKBERRY
BOLD 9700

4
HTC
NEXUS ONE

5
SAMSUNG
GALAXY S



3. RIM BLACKBERRY BOLD 9700

블랙베리는 혼자보단 둘일 때 빛을 발한다. 아이 폰이나 안드로이드폰으로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면서 블랙베리의 통합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면 베스트다. 스마트폰이라고보다는 스마트 '메일' 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최근 스마트폰도 훌륭해지고, 다양한 어플을 제공하는 타라 블랙베리의 인기도가 조금은 추종하지만 외근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보낼 수 있다는 게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하는 장점이야. 영입면이 컬러 액분재블랙베라 폰을 선호하는 게 아니다.

문의 www.blackberrycor.kr 1589-7756
가격 88만 원(판매가 기준)

4. HTC NEXUS ONE

구글과 대만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HTC가 손잡고 만들었다. 가장 큰 장점은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2.2일경 프로요를 탑재했다는 거다. 프로요는 21 버전보다 2~3배 가까이 속도가 빨라졌고, 와이파이가 Wi-Fi 테더링(다른 인터넷 기기의 모바일 역할) 기능을 지원한다.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던 넥스 S와 한 차이를 보여줌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다. 구글의 모바일 오피스, 캘린더 등과도 원격 연동하기에 사무용으로 쓰기에 최적화됐다. 어도비 플래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맥스파스를 만날 일도 거의 없다. 다양한 어플을 휴대폰의 내장 메모리가 아닌 외장 메모리로 저장 가능해 용량의 압박을 느낄 일도 줄어들었다. 다만 방향키를 대신하는 트랙볼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문의 www.show.co.kr 1588-3352
가격 69만9천 원(판매가 기준)

5. SAMSUNG GALAXY S

일단 하드웨어 성능은 우월하다. 4인치 슈퍼아몰레드(SUPER AMOLED) 액정은 아이폰을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의 액정을 구리게 만들 정도다. 여기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심크리드 오피스를 기본으로 탑재했다. 한글 문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오피스와 PDF 파일의 편집은 가능해서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만 사무용으로 쓰기에 충분하다. 대신 제품 자체의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불편할 만한 버그가 꽤 많다. 애플을 공짜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삼성의도가 넘은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다. 아이폰의 대항마가 되려면 적어도 안드로이드 2.2 프로요 업그레이드는 필수지만 업그레이드의 진척이 얼마나는 보장도 없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근두근할 거다.

문의 kz.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94만 원(판매가 기준)

오렌지 컬러 타이 48,000원 SEG
스퀘어 패턴의 파란 컬러 타이 48,000원 SEG
화이트 & 레드 컬러 사선 스트라이프 타이 가격 미정 HAZZYS
플러워 패턴의 블루 컬러 타이 98,000원 TOMMY HILFINGER
비행기 패턴의 네이비 컬러 타이 105,000원 SYSTEM HOMME

COOPERATIONS SYSTEM HOMME, SEG, HAZZYS(02-2138-7769)

입상 상사 대처법

민기 어렵겠지만 그들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감지 않은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법도
당연히 존재한다 BY 권민애



IMAGES: 위키미디어 공용, 위상인상사/위크매스틴.com

‘파레토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20 대 80 법칙으로 더 유명한 이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20%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그가 당신의 상사라면? 회사를 때려 치울 것인가? 칼질을 고통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CASE 1 반말하는 상사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는 당신의 상사다. 대들지 마라. 상사가 반말을 사용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면 그 문화에 당신이 맞춰라. 이질적인 직장 문화를 당신이 받아들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이질적인 문화에 불평, 불만을 토로 하는 당신을 직장이 받아들이 수 없느냐가 문제다. 당신은 (솔프게도) 일개 신입 사원이다. 상사가 반말을 할수록 더욱 공손하게 대답하라. 그도 인간이다! 반말은 찾아줄 거다. 서클프랙트! 이렇게 생각하자. 당신이 도우지 못할 수 없는 문화에 적응해낸다면 당신은 어딜 가든 성공할 수 있다. 몇 번만 버티라. 인사 이동은 있게 마련이고, 당신의 경력과 인내심은 도인의 수준으로 축적 쌓일 것이다.

CASE 2 아근시키는 상사

업무량이 많아서 아근이 필수적이려면 할 수 없다. 다른 직종으로 옮겨라.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아근을 시키는 상사라면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 칼퇴는 반드시 지켜 상사를 길들여라.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쯤 사무실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늦게까지 일하라. 이를 생색내지 말고 묵묵히 수행하라. 둘째,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라. 아근형 상사는 오래 일할수록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믿고 있다. 업무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른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다른 팀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면 칼퇴근을 포기하고 이를 도와줘라. 그러면 당신의 퇴근 시간에 대한 동료들의 비난을 막을 수 있다. 칼퇴근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보이는 거다. 이를 반복하라. 동료들도 칼퇴근 문화에 동참할 것이고, 당신의 상사는 더 이상 아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CASE 3 독설가 상사

업무상 필요한 꾸중은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상사의 꾸중에

만성화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신이 멧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단 같은 내용으로 꾸중을 듣는 것에 대해 무감해져선 안 된다. 또 상사가 화를 낼 뻔 한 마디 사과로 족하다. 일일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반항으로 비취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말도 남발하면 변명이 되지 깔끔하게 한 번만 하라. 마지막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접근하라. 보통 사람은 화를 낸 후 시간이 지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이때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를 걸어오면 미안함이 배가 될 것이다. 밑에라도 약삭같이 달라붙어라. 독설은 줄여줄 것이다..

CASE 4 무능한 상사

일단 이상형을 기대하지 마라. 그도 사람이다. 완벽하고 인간적인 상사를 기대했다? 현실엔 무능력하지만 운빨과 인맥빨로 상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허다하다. 정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상사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버리고 업무적 관계만 잘 유지하라. 상사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업무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가 그의 미용만 잘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은 타인의 비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다. 당신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일하면 당신이 철도해 그 공은 상사에게 못하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굳이 상사의 행동을 고쳐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당신의 상사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라. 일이 잘못 되면 모든 책임은 상사에게 돌아간다. 상사가 서류함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지시하면 중요한 서류까지 깨끗이 청소하라. 문제가 될 시연 상사의 지시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위 방법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상사가 아무리 무능하다고 억울도 그를 좋아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또 한국의 관례는 대부분 눈치도 빨라 당신의 마음가짐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다잡고 인간적으로 대가하도록 노력하라. 단 케어에 침을 뱉는다. 그의 자리에 짐을 붙여놓는 일 정도 괜찮다. 그해도 안 된다! 저자심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라.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정식으로 부탁하라. 당신이 그냥 서류를 던지고 그와 맞장 뜨고 해서 당신의 케어에 이 정도는 맞지 않는다. 그도 당신의 케어를 관리하고 싶은 위치에 있다. 더러워도 노력하라.

회사 선배에게 사랑받는 법

선배에게 밋모이는 순간 회사 생활은 장밋빛이 아닌 핏빛으로 물들 거다. **입사 2~4년차 선배들에게 사랑스러운 후배상을 물었다. 잘 보고 따라하라.**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당신이 신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이를 극적으로 수행해내어 능력을 인정 받는 일 वाली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는 당신이 사소한 행동 몇 가지만 신경 쓰면 간단하게 회사 선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던 의미기 때문이다.

STEP 1 신입은 신임

DO 씩씩하게 인사
잘하는 후배를 보면
밥 한 끼 사주고 싶
다. - S전자 3년차
남성

인사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자 존중의 표현이다.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회사 명찰을 단 사람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반드시 인사하자. 소극적으로 미소만 짓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크게 각인되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미소를 해야 사교를 바꾼다. 무조건 큰소리로 인사하라.

DON'T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막내 티 내는 후배, 짜증나서 죽여버리고 싶다. - 광고회사 3년 차 여성
장정거리는 목소리로 "인터넷이 안 돼요" 라든가 "팩스가 왜 안 보내질까요" 등의 사소한 질문을 늘어놓는다면 당신도 짜증나겠지? 사소한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라. 밀투도 문제다. 나약한 밀투는 당신의 단점을 부각시킬 뿐이다. 신입답게 패기를 보여라. "저가 해보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시켜더라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잘 해보겠습니다!" 등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STEP 2 업무에 책임감!

DO 초음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후배. 참 예쁘다. 다 가르쳐주고 싶다. - B회사 3년 차 남성
업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

간보고' 다 일이 잘못되면 혼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선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도 당신이 처칠 없이 일을 해볼지? 초미의 관심사! 당신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말이다. 중간보고를 자주 하면 일이 중간에 잘못됐을 때 금방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 포지션에 맞게 일하라. 선배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혹은 인정받고 싶어 혼자 공부대는 그 마음가짐에 보는 선배는 속이 터진다.



DON'T 매일 지각에, 그는 핸드폰을 1분에 한 번씩 확인하는 후배. 일하러 왔지 전화하러 왔어? - 키지노 딜러 4년 차 여성
기본적으로 직장은 일하는 곳이다. 임무는 뒷전이고 메신저나 하면서 일가를 보낸다면 그런 당신을 예뻐해줄 선배는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척 해봤자 상대방 눈에는 다 보인다. '헛'이 무리지 마라. 겉보 기원 순종적이지만 무능한 직원. 그게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STEP 3 선배를 존경하라

DO 내가 하는 일은 뭐든 다 잘해 볼 만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후배가 있었다. 심지어 내가 잘못 알려준 정보 때

문에 후배가 상사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 탓이라고 말 안 하더라. 믿음직스러웠다. - S 네트웍스 2년 차 남성
당신은 늘 선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라. 무조건 일단 '예' 라고 대답하라. 만약 선배가 '쇼! 쇼! 쇼! 아니 그래' 라고 말해도 그렇다고 대답하라. 무조건 맞다고 하면 선배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예' 라고 답한 후 자신의 생각을 소심하게 덧붙여라. 사랑은 성인이 될

수록 타
인의 지적을
받아들여 태도를 고치
기요. 자신이 가늠하지는 못했던
기여한다. 선배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
하지 마라
DON'T 똑같은 후배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높은 상사한테는 실랑실랑 고리 치고, 바로 뒷선배인 나한테는 은근히 반말을 섞으며 민안하게 보더라. 뒷목으로 대라고 싶었다. - S 은행 3년 차 여성
아무리 친해져도, 그 선배가 당신보다 어디라도 선배와 맞먹지 마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 후배의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적이 있고, 직장인의 반 이상이 후배를 라이벌로 의식한다. 목욕터 임무만 수행해도 선배가 당신을 경계할 판인

데. 당신이 선배와 맞먹으려는 순간 그는 방어막을 치고 당신을 차단할 것이다. 선배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려 하지 마라. 당신은 대부분 시간을 당신 선배와 근무하지 그보다 훨씬 높은 상사와 일하지 않는다. 높은 상사 역시 당신의 말보다 선배의 말을 더 신뢰할 거다. 그러니 우선, 선배에게 잘하라.

STEP 4 공과 사는 '적절히 구분하라'

DO 예쁜 후배? 여자 후배. 실은 후배? 남자 후배. 당연한 거 아닌가 - 갑자기 3년 차 남성
절망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여자가 아니라라도 남자 선배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당신이 남성임용을 이용하라. 솔직히 남성 동회에 참석하라. 대부분의 정치적 관계가 여기서 형성된다. 공사를 병행하지 마라. 사석에서 선배에게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부를 팔라라. 아한 남들도 좋고 '함님'이라 정답게 불려도 좋다. 여자 동기의 애교에 맞고 싶다면 공식상대 접근해 리라를 쌓아라.

DON'T 회사를 욕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욕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 후배의 친구의 선배의 친구가 바로 나였으니까 일 잘하고 씩씩해서 좋아했는데 바로 정나기가 떨어졌다. - H백화점 4년 차 여성
회사 밖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문 분야일 경우 해당 업종에서 소문은 더 빨리 퍼진다.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말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며, 부정적인 말은 더 빨리 퍼진다. 또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태도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다. 말은 사교를 지배하고 사고는 행동을 지배한다. 회사 밖이라도 예사만큼 가질 것.



THE WARLORD

토머스 코크레인

BY 김성현 WORDS BY NASICA

토머스 코크레인

그까지 명장이 별 건가?

토머스 코크레인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활약한 영국 해군의 유명 스타다. 집안도 평범해서 제9대 던도날드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10대 백작 자리를 꿰찼다. 잘난 놈은 뭐가 달라도 다르듯 집안 백을 뒤로한 채 시관생도 신분으로 군인 생활을 시작한다. 장교 임관 시험을 거쳐 위관급 장교(중위나 대위급)가 아니라 그냥 하급 해군 장교를 맡힌다의 자리에 오른 후당시 영국 해군 계급 체계는 정식 함장에 임명되기 전에 일종의 임시 함장 개념인 커맨더를 거쳤다) 1800년에 최초의 자기 배인 슬로프(sloop, 150~300톤 정도의 돛대가 2개인 소형 군함) 스피디 호의 커맨더로 임명됐다. 첫 배 스피디 호는 군함치고는 작은 편이라서 장난감스러운 14문의 대포와 54명의 선원을 싣는 게 고작이었다. 보통 이런 배는 전투에 참여하기 보단 연안 경비나 연락선으로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 코크레인은 명장이란 타이틀을 단 농담게 예시롭지 않았다. 스피디 호를 이끌고 전장을 누비다가 스페인 전함에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자 당시 종립국이던 덴마크 국기를 내걸고 '배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위장 표기를 내건 후 유유히 빠져나왔다. 또 한번은 적의 함대에 쫓기다 따라잡힐 위기에 처하자 작은 등불을 켜고 유인하다가 나무통에 그 등불을 반대 방향으로 띄워 보낸 후 도주했다. 일본 닌자는 가볍게 찔러 먹을 기세다!





클래식인 영화
에그린 브라더스!!

주요 사건 1 엘 가모호 나포 사건



▲ 코크레인이 1817년 6월 스피드호를 지휘하여 그 두배가 넘는 크기의 스페인 프리깃 엘 가모호를 나포하던 장면을 묘사한 그림 (Clarkson Frederick Stanfield 작)

코크레인은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건 스페인 엘 가모(El Gamo) 호 나포 사건의 공이 컸다. 14문의 대포와 54명의 선원을 태운 스피드호가 32문의 대포에 319명의 선원을 실은 엘 가모 호를 포획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다에서는 지형지를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화력 차이를 극복하기가 모태 솔로가 커붙이 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코크레인은 좌절하지 않고 흡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일단 스피드호의 영국 국기를 미국 국기로 바꿔 달고 엘 가모 호의 높은 갑판에 장착한 대포가 사격할 수 없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바로 선행을 날렸다. 당시에는 전투 직전에 제대로 된 국기만 내걸면 반칙이 아니었다. 치사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사실 전쟁에 치사하고 자시고 할 때를 거를이 어디 있나. 전투가 시작되자 몸뚱이 날려버려서 넘어지는 엘 가모 호는 갑판에 전투원을 집합시켰다. 군함과 거리가 근접한 경우엔 상대편 배에 돌마니를 투입해서 백병전을 펼치는 게 상식이다. 코크레인은 '올레'를 외치며 배의 갑판이 닿을라 할 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피드 호의 대포를 산탄처럼 엘 가모 호에 쏘았다. 덩치가 작은 스피드 호는 갑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근거리에선 엘 가모 호의 높은 갑판에 있는 대포를 쏘았지만 대포알이 포물선을 그리는 건 당신이 포병이 아니어도 더 알 거기다 맞을 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적의 갑판에 밀집한 전투원을 우주로 보낸 코크레인은 스피드 호의 군바리와 함께 엘 가모 호로 유유히 접수했다.

주요 사건 2 발디비아 요새 도시 점령

칠레 독립 전쟁 당시 1820년 발디비아 요새의 공격을 위해 상륙하는 칠레 독립군의 모습이다. 이때 코크레인이 지휘하던 상륙군은 350명, 방어하는 스페인군은 1,600여 명이었지만, 칠레 독립군은 불과 7명의 사망자만 내고 발디비아를 점령했다.

코크레인은 칠레의 독립 전쟁에 용병으로도 참전했다. 그리고 이때 코크레인의 이름을 칠레 역사에 아로새길 눈부신 업적을 달성한다. 칠레 해안의 요새 도시, 일명 발디비아를 점령한 거다. 이곳은 당시 스페인이 칠레에 군대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요충지였고 7~8개의 요새로 둘러싸인 철옹성이었다. 발디비아를 해군 병력으로 공격하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명장치고 개념 박힌 성격이 가진 이는 드물 듯 코크레인 역시 실력과 비례하는 지랄 같은 행동으로 칠레 독립 정부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코크레인에게 월급과 인센티브를 주기가 아까웠던 칠레 독립 정부는 그에게 성공이 불가능한 작전을 맡긴 후 그가 전쟁에서 G.C를 치고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요새도시(요새도시가 아니다) 발디비아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다.



하지만 코크레인이 누군가 실력 하나로 명장의 반열에 오른 시나이다. 북한의 고성은 친화적 인간 어찌가 없는 이상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다고 본 그는 양 동을 기습을 다한 작전을 펼쳤다. 야간에 일부 수병을 보트로 발디비아에 상륙시켜 요새 일부를 공격했다. 야밤에, 그것도 기습에 깜짝 놀란 스페인 돌마나가 다른 요새로 도망치는 중에 상륙 부대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숨어들었다. 적을 피해 옆 요새로 도망간 스페인 수비병은 도망기도 거머차려달라 불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리는 중에 요새가 무너졌다. 코크레인 부대의 거듭되는 공격에 기가 질린 나머지 요새는 싸우기도 전에 항복 것 발을 내걸었다. 결국 코크레인은 불가늠할 거리는 발디비아를 (인센티브를 위해서) 가까이 점령했다. 이 전투는 향후 칠레 독립 전쟁의 큰 분수령이 되었고, 그의 활약에 감동한 칠레 해군은 군함의 이름을 'Almirante Cochrane (코크레인 제독)'으로 지었다. 칠레 독립 정부가 코크레인을 몇 억여라고 내린 명령 덕분에 코크레인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 1820년 발디비아 공격 당시 상황도. 피렌시아 칠레 독립군의 진격로, 빨간색이 스페인 수비군의 도주로다. 이 환란의 놀음놀거리를 보라.



그가 명장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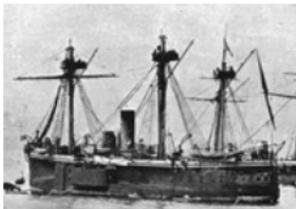
창의성과 과감성을 겸비하다.

그는 모험 소설의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다 간 시나이다. 창의성과 과감성을 바탕으로 명장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것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2배 넘는 확률의 적 함에 돌격하는 것도 철용성 같은 요새 도시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개성

강한 성격은 그를 주변 사람과 원만히 지내지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다이나믹했고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다. 수많은 작가는 '올 더우너!' 하고 이름 문화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 해군의 모험담을 그리고 교전 소설은 대부분 코크레인인 사나이의 일생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뒷이야기 - 명장의 말년 생활

이후 코크레인은 브라질도 해군을 거쳐, 오트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던 그리스 해군에서도 복무한다. 이때쯤 영국에서 코크레인을 겸용 출시시키는 여론이 커졌다. 코크레인은 금의향방 하면서 예전의 명예를 회복한다. 나중에 서인도제도 해군 사령관을 지낸 그는 1850년대의 크림 전쟁에서 해군의 지휘권을 맡길 뻔했지만, 위엄천천한 작전 스타일에 질린 영국 해군성에서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그 때부터 이였을까, 크림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만족스러운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1854년에 명예 계급으로 해군 준장이 임명되었고, 1860년에 사망.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 1875년 영국에서 건조한 칠레 해군 코크레인 제독(Almirante Cochrane)로



◀ 영국 해군에서 퇴역한 프리깃함 노르마크(MS Norfolk) 호도 2007년 칠레 해군에 인도된 후 코크레인 제독(Almirante Cochrane)이라고 명명되었다. 지금도 칠레 해군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IN THE MOVIE



영화 속 코크레인!
난 정말 '레알' 명장이야!
2003년도에 개봉한 (미스터 앤드 캐넌)은 코크레인의 일생을 그대로 옮겨놓은 소설 (더 파사이드 오브 더 월드(The Far Side of the World)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도 항공가 지해서 보면된다. 그의 일생이 궁금한 이라면 행차서 볼 것. 러셀 크로 행이 몸이런 몸은 다 잡고 알려진 팔팔하니 영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다.

TOUGH GUY



그의 업적 아닌 업적
사나이는 이 정도쯤은 해야 한다.
금전 선거 O.K

코크레인이 영국에서 하원의원으로 지역구에서 출마했을 때 이이다. 당시 영국 지역구 선거는 다이나믹 코치마 찾지않게 부패의 천국이었다. 투표 결과는 모두 기묘으로 표시했다. 투표 당 57~1천원까지 약 1300만명의 값을 매겼다. 하지만 그는 선거에서 단 한 푼의 뇌물도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았기에 시연하게 미국구를 먹었다. 이 훌륭한 남자는 뇌물하지 않았다. 사실에게 표를 던진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총 3개 10~1천 200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썼다. 1년 후 같은 지역구에 코크레인은 다시금 하원의원으로 출마했다. 사람들은 그를 찍으면 당연히 100 푼을 받을 줄 알고 코크레인에게 표를 던졌다. 그러나 당선된 코크레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댄 푼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구하지 않고 오해 스럽기를 시전하지 않는 걸한 사람였으니까 말이다.

주식은 언제나 사기!

코크레인은 1848년 영국에서 대규모 주식 사기에 휘말려 윤택 판결을 받았다. 장터에서 마리와 두 손 행렬에 묶인 채 공공연히 모욕을 당한 후 1천 파운드의 뇌물을 내는 것도 모자라 기사 작위도 취소되고 해군에서도 추방당했다. 그가 사기에 걸려 구가 담했다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그는 당시 영국에서 박지성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했다. 벌금 1천 파운드는 사람들이 모래줄 돈으로 내준 것이고, 그 행렬에 연는 행렬도 그곳에 모인 팬의 북을 두러워한 당국에서 끌려가 면세했다. 자존심 학구고 크레인은 이듬해 하원의원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됐고,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후 영국을 뒤로하고 남미로 떠났다.

19금 고려 성인 가요

此布誤笑見云志
 和氣氣氣氣氣上表
 首北南中如有物
 論之上日便交神
 二二二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조선시대에 한 번 거부당하고,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 하여 이 시대에서 또 한 번 거부당한 비운의 고려가요를 모아봤다. 교과서엔 안 나오는(수능엔 더더욱 나올 리 없는) 19금 고려가요, 거 정리 한번 해보자꾸나. 얼썬! BY 2024

상화집

상화집에 상화사와 가고신턴

① 회화야비 내손모을 주여이다

이말슴이 이명맛과 나명들명

② 다로러거더리

③ 조고맛간 샷기광과 네마리라 호리라

(더리들명 다리러더리 다리러더리

다로러거더리 다로러

④ 괴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위 다로러거더리 다로러

⑤ 괴잔디 ㄹ티 땃거느니 업다)

1연: 만두 가게 외국인 사장의 합체

상장사에 불려라 가고신턴

그덜 샷슈가 내손모을 주여이다.

이말슴이 이명맛과 나명들명

다로러거더리

조고맛간 샷기 샷과 네마리라 호리라

(반복구)

2연: 상장사 스님과의 합체

드레우크레 무를길라 가고신턴

① 우뭇똥이 내손모을 주여이다

이말슴이 이우뭇똥의 나명들명

다로러거더리

조고맛간 드레바가 네마리라 호리라

(반복구)

3연: 우물가 '우뭇똥'과의 합체

술물지의 수물사라 가고신턴

오것아비 내손모을 주여이다

이말슴이 이맛맛의 나명들명

다로러거더리

조고맛간 석구비가 네마리라 호리라

(반복구)

4연: 술집 사장과의 합체

현대어 풀이

만두 가게에 만두 사러 갔는데

외국인 사장이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가게 밖을 나고 들면

여차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새끼 광대 내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더리들명 다리러더리 다리러더리

다로러거더리 다로러

거기 나도 자러 갈까?

위 위 여차 다리, 남자 다리

그 간 데처럼 좋은 것이 없더라

상장사에 불을 켜려 갔는데

그 광 중에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절 밖을 나고 들면

여차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새끼 중아 내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드레 우물에 물을 길러 가 있는데

장성진 남자가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우물 밖에 나고 들면

여차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두레박이 내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술과는 짝에 술을 사러 갔는데

그 집 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집 밖에 나고 들면

여차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술 바가지가 내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갈래: 고려가요

어조: 자랑체

제재: 다양한 남녀와의 합체 경험담

주제: 합체는 좋은 것이어!

배경 지식

주인모가 팔라 스멜을 풍기며 부른 노래. '상화집' 기억하? 사실 영화 속 장면은 실제 역사와 전혀 다르다. '상화집'은 왕 양애에서 정종 신하를 떨기 위해 만든 궁중 음악 중 하나로, 총렬양대 이후 궁중 음악에 편입됐다. 총렬양은 색을 사랑하고 성적 도착 행위를 즐겼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관비를 골라 남장 벌대를 만들고 '상화집'을 연습시켰다고 한다. 자, 그럼 색 스림도 만족했다는 그 어떤 노래 한번 해석 해볼까?

생생 작품 감의

'상화집'은 평민 계층의 한 처자가 자신의 '성' 경험을 솔직하게 풀고 이를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노래다. 주인공의 상태는 총 4명으로 다양한 인적 특성을 지닌다.

① '회화야비'는 고려와 문물을 거래하던 서역인을 의미한다. 첫 번째 연부터 이 처가 세계 나간다. 요즘으로 치면 클럽에서 코장(야랑) 부비부비하다 는 맞아서 떡매질했다는 소리거든

다음 여음구 ② '다로러거더리'는 인기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다로러'는 처자 다리, '가리라'는 남청대 다리로 두 쌍의 다리가 엉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가사라고 주장했다. MAX은 이 주장에 절대 동의한다! (근거 따위 필요 없다) ③ '조고맛간 샷기광 대'는 궁중 무대에 등장해 국의 재미를 돋우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④ '고진데기타 덩가초니 업다'에서 '덩가초니'란 단어는 율창하고 무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주인공이 당시처럼 아랫도리가 무성한 탈쟁이 남청대와 잤다는 소리가 아니라, 잠자기가 수를 림처럼 이득해 좋았다는 의미다. '덩가초니'를 '지저분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나 참 지저분하게 자랄 뉘었소'란 의미가 된다. 둘 다 잘 놀았다는 의미지 뉘.

⑤ '우뭇똥'은 '우물가의 똥'을 말한다. 일 반적으로 '똥'은 출중한 남성을 지칭할 때 쓰인다. 따라서 '우뭇똥'은 우물가에서 만 '남 잘쟁이'가 절은 남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똥을 왕으로 해석한다면 고려의 우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우왕은 물속에서 옷을 벗고 여러 기생과 함께 우렁차게 매교를 즐겼다고 한다. 우왕, 우왕ㅋㅋㅋ 그가 자주 들러 합체를 시도한 처친은 여성이 빨래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 동네 우물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로써 주인공 처자는 국적, 종교, 결혼 여부, 연령, 계급을 뛰어넘는 넓디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다. 대단하다. 그대여

오름이 앞글에 뒤어



내가
고지라네



만전춘별사

어룡유희 뱃님자리 보와 남과 나와
어리주골만딩

어룡유희 뱃님자리 보와 남과 나와
어리주골만딩

정훈 오노밤
더피 새오식라 더피 새오식라
1연: 락을 치렀다는 강한 의지

정경오침상에 어느즈미 오리오
①신함을 여러두고 ②도화가 발하두다
도화는 시름없서 소중함 호두다

2연: 락예질을 향한 욕망

넉시라도 남을 혼디 너넉정 너기다니
넉시라도 남을 혼디 너넉정 너기다니
③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3연: 갈등이 원망으로 잠깐 고조

④올라 올라 아련 비올라
⑤역출란 어의두고 ⑥소해 자라온다
소릇 열면 어룡도 도흐니 어룡도 도흐니

4연: 남 혹은 남정네의 등장

⑦남산에 자리 보와 ⑧옥산을 베퍼 누어
⑨금수산 니를 안해 사향각시를 아나 누어
남산에 자리 보와 옥산을 베퍼 누어
⑩약든 가슴을 맞호습사이다 맞호습사이다

5연: 열정적인 합체 권유

아소 남하 원래 평생애 여림술 모로우새

6연: 영원한 사랑을 약속

일하면
곶방이10000



나잡어 봐라



- 약장가사

현대어 풀이

얼음 위에 대나무 잎을 깔아서
임과 내가 얼어죽을지라도
얼음 위에 대나무 잎을 깔아서
임과 내가 얼어죽을지라도
정든 오노밤
더피 새웠으면 좋겠네 더피 새웠으면 좋겠네

독수골방에 여러 잠이 올라
서쪽 창을 열어두니 복숭아꽃이 만개했구나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 봄바람을 받기구나

뉘러시라도 임과 한곳에 가고자 여겼더니
뉘러시라도 임과 한곳에 가고자 여겼더니
(이름 계속) 고집하시는 이 누구이고 누구이고

오리아 오리아 우유부단한 오리아
어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초가 일면 어울도 좋지 어울도 좋지

남산에 자리 깔고 옥산을 베풀어 삼아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남산에 자리 깔고 옥산을 베풀어 삼아
약든 가슴을 서로 맞혀봅시다 맞혀봅시다

야 남아! 평생 헤어짐은 모래예요

갈래: 고려가요

어조: 양금체, 능글체
계제: 합체의 소중함
주제: 한 남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남도 먹어보세.

배경 지식

‘쌍화집’과 ‘쌍벽’을 이루는 ‘만전춘별사’는 조선시대 근대 양반들이 허삼을 금지하지고 청을 울렸을 정도로 음탕한 기묘하다. 사실 ‘음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매우 주관적이어서 화자들마다 이 노래의 해석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에 MAXIM은 가장 도발적인 해석인 사연에도록 하였다. 자, 한번 들어아볼까? 즐자자, 자네

생생 작품 감의

임과 헤어진 주인공 처지는 락예질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비탄중에 남정네를 만나 락을 친다. 락공함이 좋았는지 둘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① ‘서창’은 임의 죽음을 의미한다. 서쪽은 극락의 상징이며 이쪽 창을 열어 보았다는 것은 남정네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임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도 잠시. 곧 ② ‘도화’, 즉 복숭아꽃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노닥거리리는 저 복숭아꽃처럼 자신도 한창 때인데, 독수골방을 하저니 몸이 실상 간지러운 것이다.

③ ‘벼기더시나’는 ‘고집하는 이’로 해석된다. 주위 사람들의 정절 요구에 주인공은 짜증이 났다. 남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소리친다.

마침내 새로운 남정네 등장 ④ ‘올’은 오리로 오리는 남성의 성기 혹은 남성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인다. 그런데 이 오리, 당신처럼 참 뽕뽕뽕뽕하다. 그 예전 드나 들 수 있는 ⑤ ‘어울’, 즉 어울이 이미 존재한다. 어울은 한 여성 혹은 사향기를 상징한다. 다른 여자에게나 가지 ⑥ ‘소’, 즉 자신에게 왜 왔어 여자? 엉망일 부린다. 그러자 남정네는 당신!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어울로 가겠고 능글스럽게 대꾸한다. 익숙한 장면 아닌가? 이들은 연애 초기 ‘밀당’의 단계에 있다.

‘밀당’ 끝에 이루어진 합체는 1연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하다.

① ‘남산’에 자리를 깔고 ② ‘옥산’을 베풀어 삼아 누웠다. 이것이야말로 무야지강이다! 거기다 ③ ‘금수산’ 이불까지 덮었다. ④ ‘약든 가슴’이란 ‘약손’과 같은 관습적 어휘로 서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진 가슴이란 의미(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이 들어 있다면, 그 가슴 함겨대하겠다). 서로의 가슴을 철뚜덕철뚜덕 맞부딪히며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자고 말한다. 그리고 만만 지 원아 안 된 사이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신 위운 내지!

정음사



돌하 노비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똥도리
저저 너러신고요
어귀야 **①**준 디돌 드덕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로시라
어귀야 **②**내 가논디 곱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똥도리

- 악학개법

현대어 풀이

달님 높이 들으시어
멀리까지 비취어 주세요
저자께 제신결까요
(‘제가’ 혹은 ‘당신’) 합체를 할까 두
렵네요
어느 곳에 마음을 놓고 계세요
(당신 찾으며 가는데) 내 가는 곳 저를
까 두렵네요
(혹은 내 거시기가 저를까 두렵네요)

갈래: 고려가요
어조: 협박체, 운석체, 피곤 유발체
제목: 신용 따윈 개나 쥐버린 부부
주제: ‘내가 안 오면 내가 간다’
혹은 ‘내가 바밤 피우면 나도 바밤
피운다’

배경 지식

“정음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창에 든
별의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슬픈 망부석 설화다. 그런데
“정음사”가 조선조의 유희자들에 의해
음설 가요로 규정되어 배척당했다는 사실
은 알고 있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 가도대
체 왜? 뭔가 뒤가 구리다. 그렇다. 선생님
은 당신을 속여왔다(고려사)에 따르면 이
노래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순수한 애
정이 담긴 순수 서정가요지만(중종실록)
에 따르면 이 노래는 제목부터 끝까지 음
탕한 성인가요다. 분하다. MAX이 진실
을 날리야 피해차주었다.

이 우리 그냥
굴하게 회해하자



생생 작품 강의

“정음사”란 제목을 전주의 속현 즉 지역
명칭으로만 알고 있는 당신은 굉장히 소신
하다. 한자 ‘井정’ 자는 우물, ‘邑(읍)’
자는 고을이라는 의미다. 우물이 모인 고
을. 무슨 뜻일 것 같나? 여성이 그곳이다.

① ‘준 데’ 는 집착질퍽한 고프로 사항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 **원자**가 다른 남자와
땀매질을 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의미 혹은
당신의 다른 여자와 땀매질을 하게 될
까 봐 걱정된다는 의미. 전자는 남정네가
땀 생각 품지 않게 도발하는 것이고 후자
는 비가지를 뱉. 박 고는 거다. 피곤한 것.

② ‘내 가는데’ 는 ‘내가 가는 길 혹은
내 거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
하면 내가 가는 길에 달이 저물까봐 걱정
된다는 의미다. 임 귀짓질이 위험할까 봐
달을 비취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임
잡으러 가는 길 서수술까 봐 달을 비취달
라고 비는 거(대아, 망부석이라든). 후자로
해석해도 ‘내가 다른 남자랑 땀칠까봐 겁
이난다’, ‘내 거기가 말라간다’ 등의 의미
인데, 이 얼마나 짜증나는 협박인가! **내리**
돌이 될 때까지 기다린 집착녀가 난다.

쉬어가기

《고려도경》 속 고려인

우리 조상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드네!

“부유한 집에서는 아랫날 3~4인이거나 못이하는 데 조
금만 맞지 않아도 쾌진이다.”

☞ 본래는 일부부일체제가 원칙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었다. 다처인 경우에도 처들 간 차이는
없었다. 왕조고 고려의 바유란 사람은 부인 한 명에 접
한 명까지 허용하는 1처1첩제 틀 주장한 적이 있다. 어
떻게 됐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일 반은 아내들이
저놈은 저지 같은 놈이라 욕을 퍼부어 한동안 그는 외
출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재상 중 아내를 겁내하는 이
가 있어 이 왕국 제도는 의논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도
박유,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고려 풍속은 밤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 고려의 풍조가 불교였던 것 알고 있지? 불교 의식인
연등회, 팔관회는 국가의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
즐거움 축제 기간에는 술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임금과 신하가 모두 취해 상하 관계가 무시되는 일
이 많았다. 고려연대의 풍동이 서로 싸우다 덤질 들어
왕 궁까지 남아가 왕을 모시는 신하의 허리깨기 부러
지는 등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황병 사태가 자주 일어
났다. 혹시 아니라, 임금과 신하끼리 아자 타임도 뻘짓이?

“고려인은 모두 깨끗하다. 그들은 항상 죽음이 때가
많은 것을 바운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짐을 나시며, 여벌에는 하루에 두 번의 목욕을 한다. 시
냇물에 남지 구별 없이 옷을 던져놓고 혼욕을 한다.”

☞ 《고려도경》은 고려인이 아닌 중국 사신이 쓴 역사서
다. 중국인인 그에게는 자주 씻는 모습이 놀라웠나보다.
역시... 웃웃, 지금 우리의 마음과 옛날 고려인의 마음이
같아졌을까, 고려인도 중국인에게 때가 많은 것을 바
웠었다 하니, 역시 우리 조상님, 흔히 혼욕까지 가능했
다니, 나 고려시대로 돌아갈래~

“고려인들은 사신이 고려 정래로 들어오면 사람을 보
내 식사를 제공한다. 3일 동안 식사를 보내오는데, 기간
이 지나 바람에 막혀 떠나지 못하더라도 식사를 더 이
상 보내지 않는다.”

☞ 고려인은 규칙을 잘 지킨다. 손님용 식사는 3일만 제
공한다. 그가 사정이 생겨서라도 며칠은 말든 딱 3일만
준다. 철저한 프로 정신이다.

“고려에는 무로 급식 제도가 있다. 큰 관아터에 한 팔
죽을 담아두고, 대접, 국자 등도 놓아둔다. 왕래하는 사
람이 마음대로 먹게 하되 권한을 가리지 않는다.”

☞ 무로 급식을 삼거 공양으로 내세우는 시대다. 풍로
관련 설교를 전두 부부는 후예야 밥을 제공하지 시대
다. 다시 한번 고려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SWEET

~~LITTLE~~

BIG

THING

작고 귀엽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가슴은 폭발적이다. 고교생 신분
으로 '착한 글래머' 화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정을 만날 이
유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S



착한 글래머
촬영장 엿보기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오윙키
COOPERATIONS 폴리 비키(www.balibiki.net)
LEVI'S BODYWEAR(02-3442-0220)



최은정이 독본한 엠비스 수영복 빅토리어 시크릿
대담 쇼츠 에디터 소정



와이트&세이버 얼러 버거-니 딸리 버키



벗어진 블루 티셔츠 에디터 소장
오렌지 컬러 언더웨어 LEVI'S BODYWEAR

최은정 양에게,

더운 여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촬영장에서 만난 은정 양의 핫한 몸매에 저희는 아직도 연모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낮을 많이 가린다는 은정 양이 저희에게 방긋방긋 웃어주니 당연히 정신이 혼미해지며 병을 얻을 수밖에요. 아아, 당신은 '착한 클레머' 가 아니라 '나쁜 클레머' 입니다!

촬영 날 은정 양은 급성 장염 때문에 컨디션이 매우 나빴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염 환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찬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달라고 부탁했죠. 부디 우리의 몸염 치를 이해해요. 그런 훌륭한 모델이라고 쓰고 가슴이라고 읽는다음 어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고 몰으니 "이미 답 쌓은 지 오래다"라며 그나마 "체육과 음악을 좋아한다"고 마지막에 대답하던 당신의 꼴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디 좋은 성과 있으시길 공부하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요. 무료로 과외해 드릴게요. MAXIM의 모던 남자 직원이 은정 양의 괴의 선생이 되어주겠다고 피의 전쟁을 벌이겠죠. 승리의 열매는 아주 크고 달콤할 겁니다.

그리고 재발 "살 빼야 한다"는 소린 하지 말아요. 지구 종말보다 더 슬픈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흉대 근처에 놀러오면 고기 사줄게요. 잘 자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2010년 8월,

당신의 싸이 일흔이 되고 싶은
MAXIM 에디터가



STYLE

1 + 1

떨어져 있을 때도 마음은 늘 하나.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 MAKE-UP mEm

MODELS 송원석 천영민 ASSISTANT 조정민

플렉스 컬러 셔츠
599,000원 CITIZEN
부연도 보카 디자인의 캐주얼 슬리퍼
36,000원 NEWLINE
방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48,000원 GUEST X UNDERWEAR



촬영장 침투하기



블랙 & 화이트 컬러의 기하학 패턴 티셔츠
44,800원 Kai-jak man
핑크 & 화이트 컬러의 스트라이프 언더웨어
30,000원대
EMBROID ARMARY UNDERWEAR

일본 컬러 언더웨어
143,000원 Calvin Klein Underwear



욕조에 걸린 청량 옐로 컬러 티셔츠
45,000원 adidas Originals
다양한 색의 스트라이프 패턴 양말
15,000원 SYSTEM HOMME
피플 컬러 슈즈
39,800원 SHOESONE



피플 컬러 언더웨어
가격 미정 GUESS UNDERWEAR
피플 컬러 슈즈
39,800원 SHOESONE



중앙과 옆에 범퍼 유닛을
포인트로 넣은 블랙 드레스
22,000원
EGOIST INNERWEAR
왼손에 흰 네이비 컬러 티셔츠
19,000원 CONVERSE





남)
숫자가 적혀 역동적 느낌의
반소매 티셔츠
49,000원 JEEP

여)
브랜드 네임과 영어 문구의
조합이 깔끔한 화이트 티셔츠
36,000원 L'FUL

데님 프린팅 카툰 언더웨어
남성 드로즈 53,000원
여성 브래지어 66,000원
모두 LEVI'S BODYWEAR



COOPERATIONS CITIZEN, SYSTEM HOMME, CONVERSE, JEEP, TOMMY HILFGER(02-2136-7769) GUESS UNDERWEAR(02-934-0693)
adidas Originals(02-3447-7701) Kai-aakmann, EMPORIO ARMANI UNDERWEAR, Calvin Klein Underwear(3446-7725) EGOIST INNERWEAR,
LEVI'S BODYWEAR(02-3442-0220) LIFUL(www.liful.co.kr) SHOESONE(www.shoesone.co.kr)



WATERING POT Deodorant

물을 줄 곳은 따로 있지.

BY 그래픽 PHOTOGRAPHS ARC STUDIO MODELS 거머 혼란한 남, 신사들 도우미



언더암페드
나머지 한개

남

아인 북 스타일의 오지 개리 미팅 JAMIE & BELL
801트 블루 후클의 스타라이트 티셔츠
195,000원 SYSTEM HOMME
블루 컬러 티셔츠는 195,000원 SYSTEM HOMME

여

스타라이트 패턴 유레이 개리 미팅 JAMIE & BELL
801트 민소매 티셔츠 에버퍼 소장
801트 & 내버 할라의 스타라이트 바키니
195,000원 TOMMY HILFGER

드리블로

★★★★

딱 1번 사용했는데 1년 내내
촉촉했던 손바닥이 푸근푸근
해질 정도로 건조해졌다. 제
목을 처음 개봉할 때 용액이
입긴 통에 등그런 롤러를 직
접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데, 용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
하자. 취침 전 제품을 바르고
다음 날 손을 씻으면 되고,
제품을 바르면 전 손을 씻고
드라이어나 선풍기로 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하
자. 20ml 10,000원대
순수인(22세, 대학생)



NIVEA ★★★★★
실버 프로텍트-롤 타입

브랜드 특유의 향이 강해 처
음에는 가슴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연해진다. 주
변인들은 "수컷의 약취가 줄
었다"며 행복해했다. 롤러
로 바르면 타인이랑 매일 새
것을 사용하는 느낌도 만족
스럽다. 밤 냄새와 누런 자국
때만 남기지 않는 성공한 여
름이 될 것이다.
50ml 7,000원대
이성생(33세, 건축 디자이너)



NIVEA ★★★★★
실버 프로텍트-스프레이 타입

용기 디자인부터 시원함이
느껴지는 제품으로, 향이 과
상분까지 만족스럽다. 청량
감이 느껴지는 향기는 사용
시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
고, 아침에 샤워를 한 후 거
드랑이에 뿌려주면 재래까
지 상쾌했다. 아인 티셔츠를
하루에 두 번씩 갈아입을 필
요가 없어졌다. 60ml 7,000원
200ml 14,000원대
김구연(27세, 유치원 교사)



THE BODY SHOP ★★★★★
CHILLED & BREEZY ROLL-ON

용기가 동그알고 귀여운 데다
향도 꽤 좋다. 맑은 향의 역상
제품이다. 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할 때 살짝 따끔거리고
가려웠지만, 이 제품은 순해서
피부에 전혀 무리가 없다. 담
을 억제하는 기능은 조금 약
했다. 스틱 제품과 달리 동치
지 않고 잘 밀려내 사용이 편
하나 롤이 부드럽게 굴러가진
않았다. 50ml 14,000원
조일영(24세, 군인)



THE BODY SHOP ★★★★★
CHILLED & BREEZY STICK

반투명 교체 타입이라 하얀
자국이 남는 타 제품보다 편
했지만, 바를 때 체온이 밀
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
다. 향기는 좋으나, 강하지 않
아서 향기가 강한 샤워액엔 부
족할 듯하다. 반투명 스틱 특
유의 시원함이 없어 아쉬웠
지만 뽀송뽀송한 거드랑이를
차기에는 충분했다.
55g 14,000원
송우영(28세, 법조인)



RUSH ★★★★★
COCONUT POWDER

달콤한 코코넛 향이 피부더
형 제품으로, 용기 모양이나
향도 여성을 사로잡기 충분
했다. 파우더를 손에 덮어 발
라야 하는데, 양 조절을 잘못
하면 피부가 가루가 날라 옷
에 붙을 수 있다. 하얀 가루
는 검정색 옷에 묻어 잘 떨어
지 않지만 아무도 색의 옷
을 입는 날엔 피하자.
50g 15,100원
조영(28세, 대학원생)



1-2 DRY UNDERARM PADS ★★★★★
by 500n500

제품을 직접 몸에 붙이지 않
고 거드랑이가 되는 부분의
옷에 붙이는 패드 형식으로,
여성용 위생용품과 흡사하게
생겼다. 오전 8시에 부착해
저녁 10시까지 보송한 촉감
과 통풍한 착감질이 살아 있
는 부르는 제품이다. 시이
즈는 M과 L 두 개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1팩(12개) 20,000원대
김재민(27세, 유학생)



adidas ★★★★★
BODY-DEO Spray

남성용 타 데오도란트 제
품보다 가볍고 상쾌하며
향기의 지속력이 뛰어나
다. 여름에 많이 입는 거
드랑이 부위 이외에도
팔이나 무릎이 접히는 곳
등 다른 부위에 가볍게 골
고루 뿌려 사용하기 좋다.
하하리 맘 액제라 다른
제품보다 강력하진 않은
것 같다. 150ml 12,900원
이정민(23세, 대학생)



L'EAUPARKENZO pour homme
roll-on deodorant ★★★★★

롤타입의 역제형 제품이
라 바르고 난 후 마를 때
까지 냉 정도 기다려야 하
는 게 조금 불편했다. 하지
만 스틱형이나 스프레이형
에 비해 진액이 없어 피
끔하다는 장점이 있다. 맘
은 억제되었으나, 하얀색
옷에 제품이 묻어 오기 번
실했었다. 젤형
75ml 34,000원
최민혁(28세, 회사원)



STYLE

EYE CANDY

내 눈에 캔디!

PHOTOGRAPHS BY NICK FERRARI



RIM SHADY

올 여름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신글라스는 에비에이터(비행사) 스타일과 1980년대 유행한 웨이퍼(여행자) 스타일이다. 웨이퍼라는 렌즈 입 입으로 인강데가 살짝 튀어나와 자유분방해 보이면서 다양한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게 특징이다. 두 스타일은 1960~90년대 초반의 거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장식했는데, (탑 건)의 톰 크루즈, (영웅본색)의 주윤발, 그리고 요즘 애들은 모르는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의 최고 형준 스타 송학표나 김찬우, 장동건 등이 당시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그림인지 대충 감이 올 거다. (모르는 친구지 못)

1 066 008067 20만 원대 2 Persol P0 2982 30만 원대 3 Oakley Frogskins Collectors Editions 10만 원대 4 Gucci GG1828/S 30만 원대 5 Mosley Tribes Hagen Aviators 20만 원대 6 Carrera Vintage Endurance 10만 원대 7 Jil Sander JS626S 30만 원대 8 Ray-Ban CATS 5000 10만 원대 (미국 현지 판매 가격 기준)

STYLE

LOOKS GOOD WITH EASE

여자친구와 헤어졌나? 눈길도 안 주는 여자를 흠모하고 있다고?
그녀가 없으면 죽을 것 같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라.

'With You Or Without You'

그녀가 있던 말걸 지구는 잘만 돌아가고 당신이 먹고 자고 싸는 데 큰 지장 없다. 당신은 그녀가 곁에 없어도 괜찮다.
그래, 꽤 괜찮은 놈이다. 그간 음주와 불면증의 무한 루프를 돌면서 생긴 더크서를 친구들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
방금 막 여자에게 차였거나 이별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스타일이 여기 있다.

PHOTOGRAPHS BY ROGER J. RENBERG (MAXIM INDIA)
STYLE DIRECTION RINYADKHAH JAJO (MAXIM INDIA)

니트 디테일의 반팔 코트
Rishia by Arjun Saluja
재킷과 밴디
Cue
티셔츠
munkee.see.munkee.doo
모자
Tie Rack London





"꿈들이 푸처럼 바지 벗고 다니면
여자들이 귀여워해줄 줄 알았어요!"



그레이 상의와 내키버 바지
munkee.see.munkee.doo
피코트

Fightercock by Abhishek Gupta and Nandita Basu



"여자 따위 필요 없어요. 지금 난 내 물건으로
내 동굴을 탐험하는 훈련 중입니다."



티셔츠
munkee.see,munkee.doo
반바지
Cue
스니커즈
Adidas Originals





재킷
Rajesh Pratap Singh
셔츠
Rajiv Mohan
바지
Nitin Bal Chauhan
신발
Club
모자
Tie Rack London

HAIR: KIRAN PAU MAKEUP: VINITEN MOULI SANDHU STYLING: KARAN NIGHELS ASSISTANT STYLIST: APREER PROOLIA

"앙드레 김처럼 입지 않으면
한국 여자랑 잘 수 없다죠?"



본 화보는 인도판 MAXIM의 패션 화보이며 여기 등장한 의류들 국내에서 구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인도 현지 맞춤형이 되어 카레 향 풍기는 인도 미녀를 끌어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MAXIM은 글로벌 메가진입니다.
MAXIM 독자님도 글로벌하게 매력을 발산해 한국의 DNA로 세계인만을 하얗게 초초하게 물들이기 바랍니다. 니아스피.



"이걸 먹으면 여자친구
생기는 거 확실한 거죠?"



STYLING TIP

STEP 1. STREET FASHION



청바지와 티셔츠만으로 간지 나는 방법? 여자 만날 때 옷 잘 입는 법?

당신의 친절한 쇼핑메이트가 되길 자처한 전문가가 직접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알려준다. 지갑 열 준비 됐나?

BY 조영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BROWNBREATH(www.brownbreath.com)

WORK WEAR STYLE

같은 데님 소재지만 농도를 달리해 복고 느낌의 장-정 패션이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데님 특유의 거친 느낌을

덜한 셔츠 62,000원

샌버지 워터 핼츠

98,000원



ORIGINAL STREET FASHION

스트리트 패션은 모두 컬러풀 하면서 소화하기 어려운 난해한 패션을라고 생각하는 건 금물.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 34,000원
- 62,000원
- 98,000원
- 198,000원



모든 제품 BROWNBREATH

1. 밝은 색이 작자물 교환된 핼츠 워터 셔츠는 매 시즌 조금씩 다른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베스트 아이템 62,000원
2. 이번 시즌 모트 티셔츠 중에서 가장 베이시한 디자인으로 연한 레몬 컬러에 단추 장식과 라벨이 포인트인 심플한 티셔츠 36,000원
3. 슬림한 핼츠 감이 특징인 차는 셔츠는 엉덩이 부분에 악수하는 두 손이 연결된 모양의 로고를 자수로 새겨 인간 관계를 형성했다. 58,000원
4.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내구성을 높여 한층 업그레이드 한 스타디움의 백팩이다. 148,000원
5. 뒷부분이 메시 소재인 셔츠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마디가 모자 앞 부분에 자수로 새겨 있다. '형상에서 깨어나라!' 32,000원
6. 음악 캠페인 시리즈로 2006년 한정 발매한 제품을 다시 디자인했다. 'Workwong'이라는 문구와 피아노 그림이 뮤직선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36,000원
7.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우리가 즐기는 음악의 죽을 때까지 줄길 수 있도록 지켜라' 라는 슬로건 아래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예벤키, 360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티셔츠를 포장하는 고품두는 토틀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데 쓰인다. 36,000원
8. 메이커 토이 브랜드 '모모트'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으로, 브라운브레스의 옷을 입고 있는 디렉터의 얼굴을 형성했다. 각 5,000원



BROWNBREATH
티셔츠 선물하기

STREET+FASHION

스트리트 패션과 거지 패션은 한 줄 차이



Store: BROWNBREATH

브라운브레스는 어떤 브랜드인가?

브라운브레스는 4명의 각기 다른 브랜드 디자이너가 만나 설립한 스투다. 그래픽 티셔츠를 시작으로, 현재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Spread the Message'란 슬로건 아래 제복에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다.

매장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가?

홍대에 2개의 스투다 운영하고 있는데, 공식 스투다에는 BROWNBREATH 제품을 중심으로, VIVA-STUDIO, ATTIC, BRIXTON, BREEZ WAY, BUREAD ALIVE, HAPPY SOCKS 등 국내외의 다양한 브랜드를 함께 판매한다. 또 하나의 스투다는 스웨덴 브랜드 CHEAP MONDAY 팝업 스투다(인테리어 팝업창을 생각하면 된다. 특정 브랜드를 단기간에 홍보하고 사라지는 임시 매장을 정기간 진행한다).

주력 상품은?

브랜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담은 그래픽 티셔츠와 독특한 디자인에 실용성과 합리적 가격까지 갖춘 가방이 대표 아이템.

어떤 채널의 사람과 어울리는 브랜드인가?

편안한 피드백과 튀지 않는 컬러는 광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 코디에 마무리는 얼굴이라고 누가 그러더라(웃음).

여친친구와 함께 온 남자 손님 가장 많이 구입하는 아이템은?

요즘 고딕도 똑같은 색감의 커름룩은 안 입는다. 대

놓고 똑같이 맞춰 입는 것보다는 소름을 이용하는 게 더 멋스럽다. 최근 가방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커름 가방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다.

스트리트 패션이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뉴욕 스케이트보드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생긴 스트리트 패션은 변방함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보수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해 하급 문화로 취급됐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 이목을 끌면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옷'이라는 의미로 확장됐다. 최근에는 개성의 표출보다는 특정 브랜드를 추종해 입는 사람이 많아졌다.

요즘 뜨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명품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 전유물이었던 고가의 아이템(가죽 재킷, 양털 부츠, 셀비지 데님 등)을 스트리트 브랜드에서 재해석해 저렴한 스타일 사용,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브라운브레스 관계자가 자주 찾는 브랜드

Urban outfitters - www.urbanoutfitters.com
Revolve clothing - www.revolveclothing.com
Zozo-town - www.zozo-town.com

누어거버 스트리트 브랜드 스투다

PRIZM - www.prizm.co.kr
LIFUL - www.liful.com
LIFUL - www.lifuzstore.com
WORKSOUT - www.worksout.co.kr



최진수

BROWNBREATH 인터내셔널 사원

BMX 라이더. 패션브랜드에서 근무 경력은 약 3년째. 많은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열기 왕성한 고수다.

TIPS, TIPS!

쇼핑팁

가격 먼저 보지 마라. 제품이 저난 커져가 가격에 붙이고 있다. 싸 것만 찾으면서 고급질 원하는 것은 3년여의 환갑을 먹고 왜 같은 맛이 안 나냐고 화내는 것과 같다. 그래도 가격부터 보겠다는 사람은 차라리 동대문을 가자.

TPO(Time, Place, Occasion)별 코디 방법

평상복: 티셔츠 + 캠퍼지/ 체크 셔츠 + 치노 팬츠
소개팅이미지: 블레이저/재킷 + 넓은 스타일의 셔츠 재킷 + 인위니 티셔츠/ 피케 셔츠 + 플린트
휴가 나온 군안: 짧은 머리 가리려고 모자 쓰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컬러 매치 시 주의해야 할 점

색 대화가 심한 옷은 피하자. 옷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의 색상만 강조돼 특정 부분만 떠 보이기 때문에 좋은 실수였을 기대할 수 없다.

미러 채널을 커버할 수 있는 믹스 매치 방법

7부 티셔츠 위에 반팔 티셔츠를 매치하는 것. 미러 채널은 반팔 티셔츠만 입었을 때 다소 반짝해 보이는데 7부 티셔츠가 그 단점을 보완한다.

채널별 의류 선택법

미러 채널은 티드트한 옷은 피하고, 낙낙한 티셔츠를 여러 개 겹쳐 입거나 벨트/팬츠를 입어 보완하자. 동종한 스타일이 큰 옷을 입으면 더 동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의 셔츠와 면바지로 커버하자. 카기 지오 먼 슬림한 스타일로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코디하는 것이 좋다.

어름티 티셔츠만으로 간지 내는 법

티셔츠는 채널이 너무 머거나 동종한 스타일을 잘 살리기 어렵다. 적당하게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몸매가 가장 이상적이고, 넓은 어깨의 소용주인 티셔츠가 금상첨화. (헤디 하트 해. 40-40-80의 소리를 하더니 40만 두지 않겠다)

한어름에도 멋지게 비니를 쓰는 법

한어름에 비니 착용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자 앞에서는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의상

아직도 물어보는? 민소매 티셔츠, 통 큰 7부 반바지 그중 2개까지는 최악이다.

본인만의 의류 보편법

티셔츠는 잘 개어 색상별로 정리해놓는다. 바지는 개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청바지는 입으셨는지 자른소리를 워싱을 만든느데, 착용 후 30분 정도만 면 두 때만 해 헹가시 없는 주름과 워싱이 생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스트리트 브랜드

클래식한 스투다 미노노의 디자인의 'FREZZYVA'란 오지 브랜드를 선호한다.

MAXIM BUYER'S EDGE



'르페 음모 드로즈 3종 세트' 구매 시 머슬 티셔츠 무료 증정

라이프스타일 이니셔티브 (루페코)는 속옷도 멋스럽게 입고 싶어 하는 남성에게 르페 음모 드로즈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전체적으로 연한 아이보리 컬러의 로고에 프린트되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36700원인 르페 음모 드로즈 3종 세트 구매 시 머슬 티셔츠를 무료로 증정한다. 문의 544-6101



LG 제습기로 장마철도 뽀뽀뽀송하게

LG 제습기가 장마철을 대비해 가장용 7종, 대용량 상업용 2종 등 2000년형 제습기 9종을 출시했다. 이번 2000년형 제습기는 강력한 제습 성능뿐 아니라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적용해 인체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50~60% 수증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 특히 신종플루(황폐) 등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TV리필 바, 이온스 필터를 채용해 공기 청정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가격 20만~40만 원 문의 www.lg.co.kr

CITIZEN, 2010 신제품 출시 행사

세계 브랜드 시타시(CITIZEN)이 2010년 신모델과 시타시벨 테크놀로지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타시의 대표 기술인 에코 드라이빙(Eco-Drive)와 지난 80년간 개발해온 독보적 세계 기술 브랜딩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창조적 기술과 예술적 디자인의 집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시타시는 전국 유명 백화점 내 갤러리어 클럽 매장과 공간된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284-3300



알파, 렌즈 교환식 3D 카메라 NEX 펌웨어 업그레이드 실시

소니코리아는 자사의 세계 최경량 렌즈 교환식 3D 카메라 알파 NEX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NEX의 3D 패노라마 기능 업그레이드는 누구나 직접 3D 제작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의 568-0911



파나소닉코리아, 3종날 곡선형 전기면도기 2종 출시

이번에 출시한 '팬데쉬 ES-T 50'은 3종날 곡선형 면도망을 장착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밀착감을 높여 간편한 면도를 도와준다. 또한 피부 골곡에 따라 움직이는 다방향 무빙 헤드 방식으로 밀착력이 좋아 짧은 수염도 놓치지 않는 깔끔한 면도기가 가능하다. 색상은 퓨어 블랙이며, 가격은 192900 원. 문의 02-566-2783

비즈니스맨을 위한 비쿰(BEQUEM) 크로스백

비쿰이 비즈니스맨을 위해 오피스 밖에도 활용도가 높은 '퀵스 패턴 비즈니스 백'을 제안한다. '퀵스 패턴 비즈니스 백'은 부드러운 소재와 PVC 소재를 만들어내고, 급속리움은 물론 가벼운 착용감까지 선사한다. 여기에 심플한 브라운 색 가죽 라인이 세련된 정제미를 더한다. 문의 02-417-7204 www.bequem.co.kr



타이거 맥주, 여름 맞이 소비자 프로모션

아시아 대표 맥주 타이거는 여름 패키지 리뉴얼을 기념해 전국 수입업체 선문점 및 바, 마트 점포를 대상으로 저음 소진 사치지 '타이거맥주, 여름 맞이 소비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의 '플래티늄 질러'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타이거 티셔츠를 입고, 타이거 전용잔을 들고 이번 휴가 제제로 즐겨보자. 문의 www.tigerbeer.co.kr



타미힐피커, 클래식 김영 체크 셔츠 출시

패션 리더는 두 계절을 앞서간다. 리더가 아니라도 해도 가을 옷을 지금 마련하는 센스 장도는 발휘하자. 아메리칸 클래식 브랜드 타미힐피커에서 김영 체크 셔츠 라인을 선보인다. 코튼폴린 소재는 늦어봄부터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소재이며, 차분 팬츠나 데님과도 환상의 짝꿍이다. 색상은 화이트, 블루, 네이비, 레드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www.dummy.co.kr



LG전자, 냉동 전용 냉장 고빙고(氷庫) 출시

영양에 시는 우리 빙고가 냉동고와 되어왔었다. 한어름 병안해 두고 급속 냉각을 하기위해서도 안성맞춤이다. 빙고는 영하 23~15°C까지 1°C씩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지 오픈 핸들과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시랍 52인, 투명 선반 22인 등으로 보관과 내부 정리와 사용에 편리성을 강화했다. 풀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빙고를 불러보자.

가격 290,000원 www.l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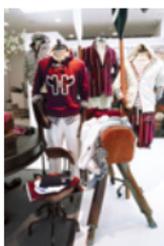


에스.티. 듀폰, 기능성 언더웨어 제품 선보여

진정한 남성에게 품격과 가치를 제공하는 프랑스 138년 전통의 세계적인 명품에서 기능성 언더웨어를 출시했다. 몸의 온도를 3°C 낮추주는 청량 섬유로 더운 여름에 적합한 ICE FL. 3이퍼를 향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DRY-ZONE과 우수한 신축성을 자랑인 ELFUD JERSEY로 구성되어있다.

문의 02-206-3692

www.st-duport.co.kr



헤지스(HAZZYS), 빈티지 로잉(Vintage Rowing) 라인 진행

LG패션 헤지스가 2010FW 첫 번째 시즌 테마인 빈티지 로잉 라인을 진행한다. 이번 라인은 로잉 클럽을 테마로, 미니멀한 컬러 그룹을 빈티지 워싱 처리. 예 시즌 헤지스에서 선보인 캐번트리지 로잉 클럽의 다양한 그래픽을 새롭게 청초해 차별화를 꾀했다. 블랙화이트를 기본 컬러로 집업 후드와 티셔츠, 캐주얼 재킷, 스카프, 트레이닝 맨츠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41-8631, www.hazzys.com

매일유업, 천연 과일야채샐러드 주스 퍼플 출시

매일유업이 100% 천연 과일야채 주스인 천연 과일야채샐러드 퍼플을 새롭게 출시했다. 몸에 좋은 5가지 과일인 포도, 사과, 자두, 블루베리, 청포도와 당근, 고구마, 토마토, 비트, 레몬비트 5가지 채소로 만들어진 100% 과일야채 주스로 천연 과일야채샐러드 퍼플 한 컵에는 일일 과일 섭취 권장량 500g이 들어 있어 비만 직장인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격 1200원 문의 02-207-2215



컨버스(CONVERSE) 슈즈 패턴의 클래식한 캐주얼 라인

올여름, 푹푹 튀는 슈즈 패턴 프린트의 슈즈 패턴 클래식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맘껏 뽐내보자. 슈즈 패턴 컬렉션은 70년대의 클래식한 스타일에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의 팬텀4 슈즈를 그래픽 요소로 활용해 집업 후드와 반바지를 구성했다. 색상은 화이트, 네이비의 심플한 컬러를 사용해 클래식한 멋을 강조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몸을 감싸준다.

www.conversekorea.com



필립스의 새로운 MP4 플레이어, 고기어(GoGear) 뮤즈

MP3의 음질이 살짝 아쉬웠던 민감한 구의 소비자들에게 기본 소식이 있다. 고기어 뮤즈는 원음인 MP3 파일로 압축될 때 손실 부분을 복원하는 풀시든드 음장기술을 탑재해 가정 CD에 가까운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서라운드 시든드 기능과 HDMI 단자를 채용해 HD 화질의 영화 감상까지 지원한다. 인체공학적 소음 방지 디자인은 당신 귀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가격 189,000원, 239,000원 www.philips.co.kr

MAXIM BUYER'S EDGE



ALBA, 블레이징 쿨 (BLAZING COOL) 출시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알바에서 2010년 시그나리미티드 에디션 블레이징 쿨을 출시한다. 블레이징 쿨은 무관덕 스틸과 골드 컬러의 대비가 양면적 매력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문자판에 적용된 카본 소재와 기계적 느낌의 디자인은 엔진 기어를 연상시켜 남성미를 더한다. 전 세계를 뒤흔쳐 160여개국 생산되었으며 국내에는 15개 한정 출시된다. 가격 미정 문의 02-611-382 www.albawatch.co.kr



상급 몰트 위스키, 글렌피피 15년, 16년산 미니 시리즈

글렌피피 스코틀랜드 본산인 워링그렌트맨스프는 500ml 위스키에 익숙한 한국인을 위해 글렌피피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15년산과 16년산을 작은 사이즈로 출시한다. 담백한 풀과 바닐라 향이 시니니 생강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맛을 내는 15년산과 장기간 숙성을 거쳐 만들어진 담백함이 전통적 오크 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16년산의 글렌피피는 당신에게 즐거운 음주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문의 02-252-161

겐조(KENZO)의 가볍고 상쾌한 룰 은 데오도란트

그라픽 요소를 첨가한 겐조의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한 '룰 은 데오도란트'는 여성용 3종과 남성용 3종으로 출시되며, 많이 나는 것을 24시간 효과적으로 억제해준다.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는 면식제 의상에 어울린 잔여물도 남기지 않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

가격 34,000원 문의 080-344-6600

www.kenzofurniture.com



유니레버 바세린이 제안하는 휴가철 피부 관리법!

유니레버 바세린의 에프터 선 안료로써 베라겔은 시원한 젤 타입으로 햇빛과 자외선에 의한 노출된 피부를 즉각 진정시켜주고 청량감을 부여해 피부에 상쾌함을 선사한다. 휴가지에서 여름을 햇하게 즐겼다면 말로에 성분 젤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자. 문의 060-041-700

www.unilever.co.kr



만다리나 덕(MANDARINA DUCK), 멜로즈(Melrose) 라인 출시



만다리나 덕의 멜로즈 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시되어 아이-아 등과 패시비티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폴리아미드 소재를 사용해 매우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과 효율적 수납공간이 돋보이면서도 조화로운 잘 이루고 있다. 실용적인 기능성에 더해 백백, 쇼퍼백, 크로스백 등 3가지 스타일로 구성되었고 다크 그린을 비롯해 네이비 블루, 블랙 등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96-804

8월 더위, 얼려서 즐기는 맥캘란(MACALLAN)

시원하게 얼려먹는 위스키는 당신의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것이다. 상급 몰트 위스키 맥캘란은 병동상에서 1시간 이상 얼려서 먹을 경우 살아 있는 질량감과 함께 부드러운 맛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드럽게 입안 가득 퍼지는 맛 이외에도 맥캘란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알틴 과일, 시트러스, 오렌지 맛과 향의 일체감이 당신의 여름을 달려준다.

가격 243,000원 문의 02-3468-4600



글렘 록의 새로운 라인, 걸프스트림 컬렉션

(Gulfstream Collection)

유니크한 디자인과 트렌디한 제품으로 전 세계 30개국을 거쳐 많은 이에게 사랑 받은 글렘록이 특별히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해 제작한 걸프스트림 컬렉션은 20여종의 혁신 연구와 손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따른 정확한 비율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되어 있고, 크로노그래프와 스키 핸즈를 갖춘 이 기능을 보였다. 독특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으로 이루어진 글렘록의 걸프스트림 컬렉션은 명품 시계 전문 부티크숍인 HODOLOGUM(오물로지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884-1332 www.horologium.co.kr

A.P.C. 2010 F/W Collection

프랜치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는 A.P.C.가 'Return to Basics' 을 모티브로 2010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테일러드 재킷부터 팬츠, 원피스는 물론 신발까지 갖춘 A.P.C.의 아이템들은 머스터드, 로열 블루, 브라운 등 프랜치 감성의 멋진 컬러로 구성되었다.

연재나 '조금 더' 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A.P.C. 아이템으로 다가오는 2010 F/W 시즌을 준비해보자.



HUGO BOSS WATCH, 2010 S/S 신제품 출시

도화적이고 세련된 감성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들을 위한 휴고보스 워치에서 2010년 S/S 시즌을 맞아 더욱 단정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신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라운드 케이스에 로마 숫자 인덱스와 버티컬 텍스처가 더욱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사한다. 올 시즌 휴고보스 워치의 신제품과 함께 진정한 남성미를 한껏 뽐내자. 가격 439,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axybook.co.kr



D&G Time, 젠틸(GENTEEL) Collection



유니크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으로 패션 피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D&G Time에서 2010년 젠틸 컬렉션을 선보인다. 젠틸 컬렉션은 스텝 소재의 케이스와 악어 무늬의 다크브라운 컬러 가죽 스트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

가격 294,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axybook.co.kr

CK 캘빈클라인 액세서리, 2010 F/W Collection 뉴맨(NEW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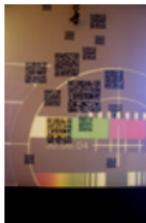


CK 캘빈클라인 액세서리에서 사티 캐주얼룩을 즐기는 패션 피플들을 위해 모던한 스타일의 뉴맨 시리즈를 제안한다. 심플한 나일론 보디에 실버 메탈릭 디테일이 돋보이는 뉴맨은 블랙과 그레이 컬러로 선보이며 크기에 따라 3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57

시스템과 시스템 음모, Sound Art Party

트렌드를 리드하는 브랜드 시스템과 시스템 음모에서 지난 7월 2일 저녁, 서울 신사동 '플레이 하우스 다운스타이' 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아티스틱한 전시 그리고 굿모닝 밤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시운드 아트 파티를 열었다. 모든 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 형식으로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www.system.co.kr



지이크, Romantic State Suit 출시

모던함과 클래식을 지향하는 남성 캐주얼 캐주얼 브랜드 지이크에서 F/W 시즌을 맞아 로맨틱 스테이트 슈트를 선보인다. 지이크 고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로맨틱 스테이트 슈트와 함께 남자의 개성만 가늘 세련되고 감각적 스타일링으로 멋진 트렌드셋이 되어보자.

www.seg.co.kr



패셔니스타들의 핫 아이템, DOX Japan 보잉 선글라스

강렬한 태양 빛에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한 여름, DOX Japan의 보잉 선글라스를 주목하자. 클래식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던한 블랙과 골드 템플을 사용해 세련된 감각을 더했다. 울어플을 채용한 폼프리 아이템 DOX Japan의 보잉 선글라스로 울어플 빛나는 태양 아래 더욱 빛나는 남자의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문의 053-856-5566



MAXIM AUGUST 2010

정기 구독 신청 방법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주세요. Tel 02-323-1182

6개월 정기구독

~~(정가 32,400원)~~ **27,540원**(15%할인) + 1000씩 적립

※ 2가지 중 택일

1. 6th 연극열전 <너와 함께라면> R석 티켓 1장(4만원)
· 일시 선택가능 · 장소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2. 프리미엄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BROWNBREATH 캡(3.4만원)

12개월 정기구독

~~(정가 64,800원)~~ **51,840원**(20%할인) + 2000씩 적립

※ 5가지 중 택일

1.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S석 티켓 1장(7만원)
· 일시 2010년 8월 5일 저녁7시 · 장소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2. 6th 연극열전 <너와 함께라면> R석 티켓 2장(8만원)
3. 아이폰 케이스의 명품 INCASE(5만원)
4. 프리미엄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BROWNBREATH 티셔츠(3.8만원)
5. 호주의 스트리트 브랜드 INSIGHT(BY LIFUL) 티셔츠(4.6만원)

24개월 정기구독

~~(정가 129,600원)~~ **97,200원**(15%할인) + 4000씩 적립

※ 2가지 중 택일

1.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S석 티켓 2장(14만원)
2. 프리미엄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BROWNBREATH 티셔츠&캡(7.2만원)

※ 정기구독은 첫달 시은품에 한하여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 의류 시은품의 경우 사진과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창간기념 가격인하는 계속됩니다!

날권구매시 ~~5400원~~ → 4900원은 계속됩니다!



연극열전 <너와 함께라면>



BROWNBREATH 티셔츠



BROWNBREATH 캡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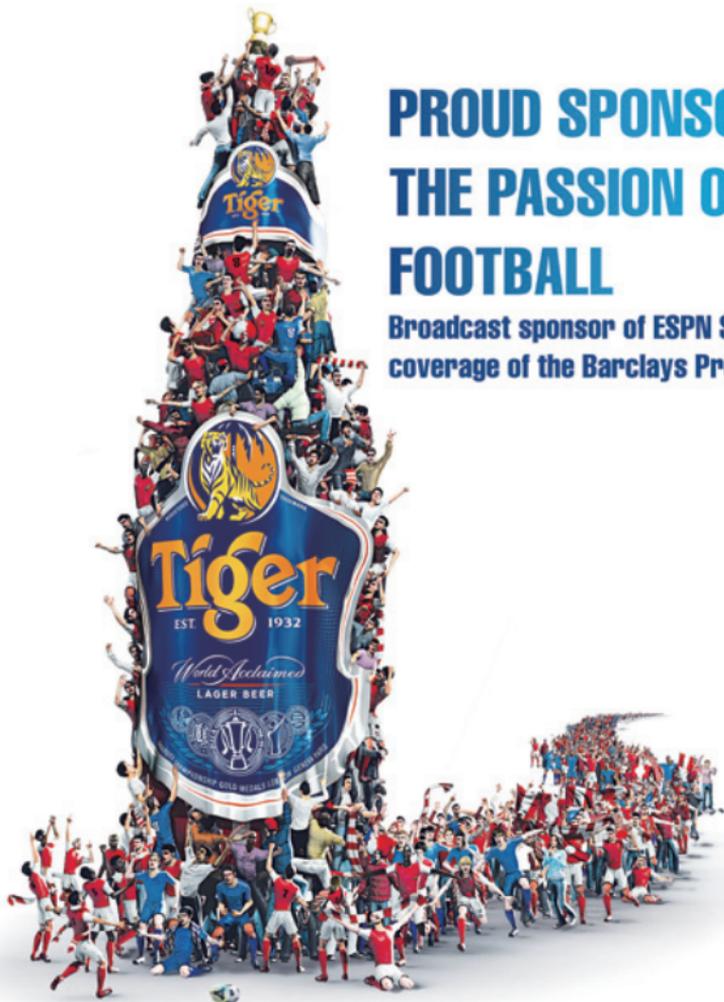
아이폰 케이스 INCASE



INSIGHT(by LIFUL) 티셔츠(화이트, 블랙)

PROUD SPONSOR OF THE PASSION OF FOOTBALL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타이거 맥주
받기



ESPN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Tiger ENJOY WINNING

MAXIM

 SOUTH KOREA

한국 농구의 아이콘
전설이 되다

우지원

GUY'S BALLS

포항 스틸러스 설기현, 김기동
쿠어스필드 서바이버
2010 월드컵 돌아보기

언어 영역의 추억
19금 고려가요
착한 우리말사전

So Hot 가비엔제이

STYLE

언더웨어 + 여름 티셔츠

데오도란트

스트리트 패션

솔로를 위한 스타일

GUY'S TOY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폰

MAXIM 회사차 선발전

마티즈 vs 모닝

팔도 소주 전국대회

극강의 레고 덕후

페라리 458 이탈리아

디카 줌 비교 실험

좀비 소설

남자라면 알아 마땅한

자동차 정비



AUGUST 2010



9 772093 422007

ISSN 2093-422X

www.maximkorea.net